독파민

정답과 해설

중학 국어

문학2

1 시

예제 01 **길** | 윤동주

여러분은 '길'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대부분 우리가 걸어 다니는 땅 위의 '길'을 먼저 떠올릴 거예요. 하지만 '길'은 단순한 공간을 넘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지향하는 방향이나 목적 또는 삶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작품의 화자에게 '길'은 어떤 의미일지, 또한 화자는 어떤 '길'을 가고 싶어 하는지 파악하며 작품을 감상해 봅시다.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고백적, 상징적, 의지적
주제 참된 자아를 찾기 위한 노력
특징
- 일상적인 표현과 고백적 어조를 통해 주제를 드러냄
- 상징적 소재를 사용하여 화자의 내면세계를 형상화함
- 경어체의 종결 어미 '-ㅂ니다'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고백적 태도를 드러냄

: 경어체의 종결 어미 '-ㅂ니다'의 반복 → 운율 형성, 고백적 어조

잃어버렸습니다.
상실을 인식함, 목적어를 생략하여 주의를 집중시킴 → '참된 자아의 상실'을 의미하지만, 1연에서는 드러나지 않음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상실은 인식했지만, 무엇인지 어디에 두었는지 모름 → 화자의 복잡한 심정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 자신의 내면세계를 탐색하며 잃어버린 참된 자아를 찾는 과정으로 나아감
길에 나아갑니다.」 ▶ 1연: 상실을 인식하고 찾아 나선 길
① 상실한 것(참된 자아)을 찾기 위해 화자가 선택한 공간이자 과정
② 작가가 살아가는 암울한 현실 그 자체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끝없이 이어진 돌담길 → ① 자아 탐색의 과정이 길고 고됨, ② 암울하고 고된 현실 상황이 계속됨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 2연: 화자가 걸어가는 길의 모습
□: 화자와 참된 자아의 만남을 가로막는 장애물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참된 자아가 있는 화자의 내면세계와의 단절을 야기하는 대상 → 절망적 상황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 3연: 참된 자아와의 단절
화자가 느끼는 절망감, 암울한 상황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 참된 자아를 만나기 위한 과정이 오랜 시간 이어짐 → 시간의 영속성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 4연: 참된 자아를 찾기 위한 오랜 과정

돌담을 더듬어 눈물짓다
① 참된 자아를 찾지 못한 안타까움, ②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자아 성찰의 매개체 참된 자아를 회복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
▶ 5연: 자아 성찰을 통한 부끄러움의 인식

풀 한 포기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① 시련과 고통의 과정, ② 험난하고 고된 삶의 길
담 저쪽에 내가 남아 있는 까닭이고,
화자의 지향점 → 참된 자아
▶ 6연: 시련과 고통의 길을 걷는 이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현실적 자아 → 부끄러운 자아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 7연: 참된 자아를 찾고자 하는 의지
참된 자아: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진정한 화자 자신

길

본문 014~015쪽

감상 스킬로 확인하기

화자·대상
- 1연에서 화자는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깨달은 상태인가요? (○, ⊗)

화자는 자신이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은 인식하고 있지만,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 무엇을 어디에서 잃었는지는 알지 못한다.

- 6연으로 보아, 화자가 찾고자 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 화자는 담 저쪽에 남아 있는 참 된 자 아를 찾고 있어요.

시어(구)
- '돌담'과 '쇠문'은 어떤 의미를 지니나요?

> 화자와 참된 자아의 만남을 가로막는 장 애 물을 의미해요.

- 화자가 상실한 것을 찾기 위해 선택한 공간은 어디인가요? 길

문제

1 ④ 2 ② 3 ⑤ 4 ④

1 시어(구) **시어의 의미**

이 시에서 '길'은 화자의 자기 탐색과 성찰의 공간이자 과정으로서 설정된 장소이다. 화자는 이와 같은 '길'을 걷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잃어버린 참된 자아(본질적 자아)와 자신이 지향하는 삶의 자세를 되찾고자 한다. 화자와 참된 자아 사이의 단절을 상징하는 것은 '돌담'과 '쇠문'이다.

2 화자·대상 **화자의 상황** + 시어(구) **시구의 의미**

〈보기〉를 통해 당시 일제의 고등계 형사가 작가를 감시하고 압박하여 작가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은 이 시의 3연에서 길 위에 드리운 '긴 그림자'를 통해 표현되고 있다. 즉, '긴 그림자'는 화자를 둘러싼 절망적인 현실을 의미한다.

오답노트 ❶ ㉠은 화자가 자신의 내면세계를 탐색하는 부분이다.
❸ ㉢은 화자가 참된 자아를 찾는 과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표현한 부분이다.
❹ ㉣은 화자의 자아 성찰로, 참된 자아를 회복하지 못한 자신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는 부분이다.
❺ ㉤은 잃어버린 참된 자아를 찾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난 부분이다.

알아 두기 '길'을 걷는 과정의 상징적 의미

상실을 인식함	→	길을 나섬	→	'길'의 상징적 의미
참된 자아를 잃어버린 상황		담 저쪽의 참된 자아를 만나기 위해 길을 걸음		참된 자아를 탐색하는 공간이자 과정

화자가 잃어버린 것은 담 저쪽에 남아 있는 참된 자아로, '길'은 잃어버린 참된 자아를 찾기 위한 탐색의 공간이자 과정을 의미한다. 화자는 '길'을 걷는 여정을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참된 자아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3 시어(구) 시어의 의미

5연의 '하늘'은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하는 매개체이며, 이러한 성찰을 통해 참된 자아를 찾고자 하는 의지를 다지게 한다. 화자는 '하늘'을 쳐다보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부끄러움을 느낀다. 이처럼 '하늘'은 화자의 자기 성찰을 이끌고, 참된 자아를 찾고자 하는 의지를 다지게 하는 매개체이다.

오답 노트 ❶ '주머니'는 화자가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 손을 넣어 더듬는 공간이지만, 자아 성찰의 매개체라고 보기 어렵다.

❷ '돌담'은 화자와 참된 자아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❸ '쇠문'은 돌담에 닫혀 있는 것으로, 화자와 참된 자아의 단절을 심화하는 대상이다.

❹ '그림자'는 화자를 둘러싼 암담하고 절망적인 현실 상황을 상징한다.

4 표현 표현상 특징

이 시의 화자는 내면세계에 대한 탐색과 이를 통한 자기 성찰의 내용을 고백적이고 진솔한 어조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잃어버렸습니다', '눈물짓다', '부끄럽게' 등의 표현이 나타나는데, 이는 화자의 상실감과 고뇌, 자기 성찰의 태도를 보여 준다. 따라서 이 시의 전반적인 어조는 단호하거나 자신감 있다기보다 차분하고 성찰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시에는 참된 자아를 찾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가 나타나긴 하지만, 이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과 부끄러움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화자가 단호하고 자신감 있는 어조로 자신이 지향하는 삶의 태도를 강조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노트 ❶ '길', '돌담', '하늘' 등 소박하고 일상적인 시어로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❷ 화자는 '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부끄러움을 느끼며, 참된 자아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차분하고 담담한 어조로 삶에 대한 자기 성찰적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❸ '돌담'이나 '쇠문', '그림자'와 같은 상징적 시어를 통해 화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을 형상화하고 있다.

❺ 경어체 종결 어미 '-ㅂ니다'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화자의 고백적이고 진솔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① 빛을 환하게 내 어둠이 없도록 한 존재
② 자연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인위적, 인공적 소리

ⓐ 텔레비전을 끄자 △: 인공적인 삶, 현대 문명 ↕ 대조 ○: 자연적인 삶, 생태계
『풀벌레 소리 (자연의 소리)
㉠ 어둠과 함께 방 안 가득 들어온다』 「 」: 공감각적 심상

[A] 『어둠 속에서 들으니 별레 소리들 환하다 「 」: 공감각적 심상 (어두워지며 풀벌레 소리가 크게 들림)
별빛이 묻어 더 낭랑하다』
▶ 1~5행: 텔레비전을 끄고 어둠 속에서 풀벌레 소리를 들음

귀뚜라미나 여치 같은 큰 울음 사이에는 (풀벌레보다 큰 존재 평소에 인식하고 있던 소리)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도 있다 (평소에 인식하지 못하던 소리, 풀벌레 소리)
㉡ 그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한다 (작은 풀벌레들의 소리에 관심을 갖게 됨 → 화자의 인식 범위가 확장됨)
『내 귀에는 들리지 않는 소리들이 드나드는 (풀벌레들의 작은 귀)
㉢ 까맣고 좁은 통로들을 생각한다
ⓑ 그 통로의 끝에 두근거리며 매달린
여린 마음들을 생각한다
▶ 6~12행: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

발뒤꿈치처럼 ㉣ 두꺼운 내 귀에 부딪쳤다가 (문명의 이기에 빠져 자연의 소리를 듣지 못했던 과거의 자아)
되돌아간 소리들을 생각한다』 「 」: 풀벌레 소리를 생각함 (풀벌레의 소리)
ⓓ 브라운관이 뿜어낸 현란한 빛이 (풀벌레 소리를 몰아내는 인간 중심의 문명, '어둠', '별빛'과 대조됨)
㉤ 내 눈과 귀를 두껍게 채우는 동안 (문명의 소리에 익숙해져 자연의 소리에 무관심해짐)
그 울음소리들은 수없이 나에게 왔다가 ('나'와 소통을 시도했다가)
너무 단단한 벽에 놀라 되돌아갔을 것이다 (부정적 인식)
『하루살이들처럼 ㉥ 전등에 부딪쳤다가 (원관념: 풀벌레 소리(직유법))
바닥에 새카맣게 떨어졌을 것이다』
「 」: 인간의 문명에 상처받고 외면당하는 자연의 모습
크게 밤공기 들이쉬니 (풀벌레 소리를 포용함)
ⓜ 허파 속으로 그 소리들이 들어온다 (풀벌레 소리를 내면으로 받아들임(공감각적 심상))
허파도 별빛이 묻어 조금은 환해진다 (풀벌레 소리를 내면으로 받아들이면서 기쁨과 생명력을 회복함)
▶ 13~20행: 풀벌레 소리에 무관심했던 자신을 반성함
▶ 21~23행: 풀벌레 소리를 내면으로 받아들이며 기뻐함

□: '-을 것이다'의 반복 ① 풀벌레 소리에 대한 화자의 추측임 ② 화자의 안타까움, 아쉬움의 정서가 나타남 ③ 운율을 형성함
: '생각한다'의 반복 ① 풀벌레 소리에 대한 화자의 관심과 깨달음을 강조함 ② 운율을 형성함

예제 02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 | 김기택

혹시 풀벌레들의 작은 울음소리를 들어 본 적 있나요? 주변이 정말 고요해야 겨우 들을 수 있는 작은 풀벌레들의 소리. 우리에게 수없이 다가왔었을 그 여린 소리들을 우리는 문명의 소음에 길들여져 외면했던 건 아닐까요? 풀벌레들의 작은 귀에서 화자는 어떤 성찰을 했을지, 작품을 감상해 봅시다.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감각적, 고백적, 성찰적
주제 문명의 소음에 길들여진 삶에 대한 비판과 성찰
특징 • 문명의 소리와 자연의 소리를 대조적으로 나타냄
• 다양한 심상을 활용하여 대상을 감각적으로 표현함
• 풀벌레 소리를 통해 깨달은 점을 진솔하게 고백함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

본문 016~017쪽

감상 스킬로 확인하기

화자·대상
• 이 시의 화자는 누구인가요?
> 풀벌레 소리를 듣고 있는 '나'예요.

시어(구)
• 화자가 대조적으로 바라보는 시어는 무엇인가요?
> 화자는 텔레비전으로 대표되는 인공적인 삶은 부정적으로, 풀벌레 소리로 대표되는 자연적인 삶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표현
• '브라운관이 뿜어낸 현란한 빛'에는 시각적 심상이 사용되었나요? (○ / ×)
'현란한 빛'은 텔레비전 화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밝고 화려한 빛을 눈에 보이듯 나타낸 표현으로, 시각적 심상이 사용되었다.

문제

1 ③ **2** ④ **3** ④ **4** ② **5** ⑤

1 화자·대상 **화자의 태도**

이 시의 화자는 텔레비전을 끈 뒤 비로소 풀벌레 소리를 인식하게 되고, 그동안 현대 문명의 빛과 소리에 익숙해져 자연의 작은 소리를 듣지 못했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성찰하고 있다. 특히 '단단한 벽'과 같은 표현을 통해 자연의 작은 소리에 둔감했던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고 있다.

오답 노트 ❶ 화자는 텔레비전의 빛과 소리로 대표되는 현대 문명의 삶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드러낸다.

❷ 이 시에 화자가 자연 속에서 살았던 시절이나 그에 대한 그리움은 나타나지 않는다.

❹ 어린 시절에 헤어진 존재나 그들과 다시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은 나타나 있지 않다.

❺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그들을 부러워하는 화자의 태도는 나타나 있지 않다.

알아 두기 인식의 변화에 따른 화자의 성찰

인식의 전환	텔레비전을 끄고 평소에 듣지 못했던 풀벌레 소리를 듣게 됨
↓	
인식의 확대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와 풀벌레들의 작은 귀, '여린 마음들'까지 생각하게 됨
↓	
화자의 성찰	'단단한 벽'으로 인해 풀벌레 소리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을 반성하고, 풀벌레 소리를 내면 깊숙이 받아들임

2 표현 **표현상의 특징**

[A]는 청각을 시각화한 공감각적 표현을 사용하여 이미지를 생생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3 화자·대상 **화자의 정서와 태도** + 시어(구) **시구의 의미**

㉣은 화자가 텔레비전과 같은 문명의 빛과 소리에 익숙해져 자연의 소리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을 의미한다.

4 시어(구) **시어의 의미**

ⓑ는 작은 풀벌레들의 여리고 예민한 마음을 뜻하는 것으로, 자연의 여린 생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 ⓓ, ⓔ는 현대 문명이나 인공적인 환경을, ⓒ는 그로 인해 자연의 작은 소리에 둔감해진 화자의 감각을 의미한다.

5 주제 **작가의 의도**

이 시의 화자는 텔레비전을 끄고 풀벌레 소리를 듣게 된 경험을 통해, 문명의 소리에 길들여져 풀벌레 소리와 같은 자연의 소리를 잊고 살았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현대인들에게 내면을 채울 수 있는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권유하고 있지만, 환경 오염에 대한 내용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오답 노트 ❶ 이 시에는 텔레비전을 끄고 난 뒤, 풀벌레 소리를 듣게 된 화자의 경험이 제시되어 있다.

❷ 화자는 텔레비전을 끈 뒤 어둠과 함께 들어온 풀벌레 소리를 인식하였다.

❸ 화자는 문명의 빛과 소리가 자신의 눈과 귀를 두껍게 채웠고, 그로 인해 자연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추측하고 있다.

❹ 화자는 현대 문명에 익숙해져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와 같은 자연의 소리를 외면하고 살아온 것에 대해 성찰하고 있다.

실전 01

접동새 | 김소월

보통 새의 소리를 '지저귄다'고 표현하지요. 그런데 접동새는 '운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새어머니에게 학대를 받다 죽은 소녀가 동생들이 그리워 접동새가 되어 밤에 찾아온다는 슬픈 설화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 작품은 그 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에요. 접동새가 이 작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감상해 봅시다.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전통적, 민요적, 애상적, 향토적

주제 죽어서도 잊지 못하는 애절한 혈육의 정

특징
- 설화를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여 '한'의 정서를 드러냄
- 의성어를 반복하여 음악적 효과를 얻고, 애상적 분위기를 형성함
- 7·5조, 3음보의 민요조 율격을 계승하여 전통적이고 애상적인 느낌을 줌

접동
접동새의 울음소리(의성어)
접동 / 아우래비 접동
a-a-b-a 구조, 3음보 → 민요적, 전통적, 애상적
▶ 1연: 접동새의 울음소리

진두강 가람 가에 살던 누나는
구체적인 지명 사용 → 향토성
진두강 앞마을에 / 와서 웁니다.
▶ 2연: 죽어서도 마을을 떠나지 못하는 누나

옛날, 우리나라 / 먼 뒤쪽의
추상적 시간 설정 → 설화의 특징
진두강 가람 가에 살던 누나는
의붓어미 시샘에 죽었습니다.
접동새 설화의 내용 요약적 제시 (누나의 비극적인 죽음)
▶ 3연: 의붓어미의 시샘 때문에 죽은 누나

누나라고 불러 보랴
주관적인 감정 표출
오오 불설워 / 시새움에 몸이 죽은 우리 누나는
영탄법
죽어서 ㉠ 접동새가 되었습니다.
- 누나의 환신
- 죽은 누나의 한

▶ 4연: 죽어서 접동새가 된 누나

아홉이나 남아 되던 오랩동생을

죽어서도 못 잊어 차마 못 잊어
반복 → 운율 형성, 누나의 그리움과 한 강조
『야삼경(夜三更) 남 다 자는 밤이 깊으면
「」: 죽어서도 계모의 눈을 피해 다녀야 하는 누나의 처지
이 산 저 산 옮아 가며 슬피 웁니다.』
▶ 5연: 죽어서도 동생들을 잊지 못해 슬프게 우는 누나

접동새

본문 018~019쪽

감상 스킬로 확인하기

화자·대상

- 화자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 깊은 밤에 접동새 울음소리를 듣고 있어요.

- 화자는 죽은 누나에 대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나요?

> '오오 불설워'라고 표현함으로써 슬픔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시어(구)

- 접동새의 울음소리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 누나의 한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표현

- 이 시는 몇 음보의 민요적 율격을 사용하고 있나요? 3음보

문제

1 ③ **2** ⑤ **3** ④ **4** ③

학습 노트

- **애상적 어조**: 슬퍼하거나 가슴 아파하는 어조
- **음성 상징어**: 소리나 모양 등을 흉내 낸 말.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면 시적 대상을 감각적이고, 생생하게 표현하며, 리듬감을 형성할 수 있음
- **전통적 율격**: 고전 시가에서 반복되는 정형화된 율격으로, 우리나라의 민요에서 주로 나타나는 7·5조, 3음보가 있음

1 화자·대상 **화자의 정서**

화자는 접동새 울음소리를 들으며 의붓어미의 시샘에 죽은 누나를 떠올리고, 누나의 처지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오오 불설워', '슬피 웁니다'와 같은 표현에서 누나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한 화자의 슬픔과 안타까움이 드러난다.

오답노트 ❶ 화자가 자신의 지난 삶을 반성하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❷ 이 시에 화자 자신의 암울한 처지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❹ 화자는 누나의 죽음을 안타까워할 뿐,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를 드러내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❺ 화자가 저항하는 대상이나 자신의 꿈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2 표현 **표현상의 특징**

이 시에서 화자는 접동새가 된 누나의 사연을 전할 뿐, 시적 대상인 누나와 대화를 주고받는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3 시어(구) **시어의 의미**

㉠은 억울하게 죽은 누나가 환신한 존재이자 동생들을 잊지 못해 밤마다 찾아오는 누나의 한을 상징한다. '죽어서도 못 잊어 차마 못 잊어', '슬피 웁니다'에는 죽어서도 동생들을 잊지 못하는 누나의 그리움과 한이 드러난다.

오답노트 ❶ 이 시에서 접동새는 동생들을 잊지 못해 밤마다 찾아와 슬피 울 뿐, 누나가 복수심을 드러내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❷ 의붓어미의 시샘은 누나가 죽게 된 원인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은 죽은 누나가 변한 존재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❸ 접동새가 이 산 저 산 옮아 가며 우는 것은 동생들을 '죽어서도 못 잊어 차마 못 잊어' 하는 마음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갈 곳을 잃은 방황으로 보기는 어렵다.
❺ 접동새는 누나의 환신으로 동생들을 잊지 못하는 누나의 그리움과 한을 상징한다. 그런데 이 시를 통해 누나가 의붓어미의 시샘에 죽었다는 것을 알 수는 있으나, 가난한 현실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배경지식 **접동새의 상징성**

접동새는 '귀촉도', '두견이', '자규' 등으로도 불린다. 접동새는 특히 울음소리가 구슬퍼서 시가 문학에서 한이나 슬픔의 정서를 상징하는 소재로 자주 활용된다.

4 종합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이 시에서 누나가 접동새로 환생한 것은 억울한 죽음으로 인한 한과 아홉 동생들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다. 따라서 누나의 환신을 희망의 정서와 연결 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노트 ❶ '접동'이라는 소리를 반복하고 '접동 / 접동 / 아우래비 접동'의 반복적 구조를 활용하여 접동새의 울음소리에 리듬감을 부여하고 있다.
❷ 2연·3연의 '누나'가 4연에서 '우리 누나'로 변주되면서 민족이 지닌 슬픔의 정서, 한의 정서로 공감을 이끌어 내고 있다.
❹ '죽어서도 못 잊어 차마 못 잊어'는 3음보의 전통적 율격을 사용하여 남겨 두고 떠난 동생들에 대한 누나의 그리움과 한을 강조하고 있다.
❺ 접동새가 된 누나는 동생들을 '죽어서도 못 잊어 차마 못 잊어' 하며 '슬피' 울고 있다. 〈보기〉에 따르면 이러한 누나의 슬픔과 한은 나라를 잃고 슬픔에 빠진 우리 민족의 한과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다.

독해 체크

본문 020쪽

❶ 접동새 ❷ 환신 ❸ 한 ❹ 애상적 ❺ 설화 ❻ 민요

어휘 체크

본문 021쪽

1 오랍동생 **2** ② **3** (1) ㉡ (2) ㉢ **4** ①

1 이 시에서 누나는 죽어서 접동새가 된 뒤에도 아홉 명의 '오랍동생'을 잊지 못해 밤마다 슬피 운다. 이때 '오랍동생'은 여자가 자기의 남동생을 일컫는 말이다.

2 '진두강 가람 가'는 누나가 살던 곳이다. 이때 '가람'은 '강'을 뜻하는 옛말이다.

3 (1)은 동생이 여러 면에서 뛰어나 남들의 미움을 살 만하다는 뜻이므로 '자기보다 잘되거나 나은 사람을 공연히 미워하고 싫어함. 또는 그런 마음.'을 뜻하는 '시새움'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2)는 달빛이 밝은 한밤중의 정경이므로 '밤 열한 시에서 새벽 한 시 사이', 즉 깊은 밤을 뜻하는 '야삼경'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4 '불설워'는 '몹시 서러워'라는 뜻의 방언으로, 죽은 누나에 대한 화자의 애통한 정서를 드러낸다. ①은 어미를 잃은 참새의 처지에서 오는 서러움을 나타내므로 〈보기〉와 같은 의미로 쓰였다. ②는 뿌듯함, ③은 반가움, ④는 감탄, ⑤는 기쁨과 관련된 상황이다.

실전 02 **향수** | 정지용

이 작품의 제목인 '향수'는 고향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뜻해요. 여러분에게 '고향'은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나요? 이 작품은 농경 시대 한국인의 고향의 전형적인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작가에게 '고향'은 과연 어떤 모습이고 또 어떤 의미인지, 작품을 살펴보며 감상해 봅시다.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향토적, 감각적, 묘사적, 회상적
주제 고향에 대한 그리움
특징 • 후렴구가 반복되는 병렬식 구조로 구성됨
• 향토적인 시어를 사용하여 정겨운 느낌을 줌
• 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고향의 모습을 선명하게 묘사함

넓은 벌 동쪽 끝으로 (□: 향토적 소재)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 휘돌아 나가고, (청각적 심상, 의인법)
ⓑ얼룩빼기 황소가 (시각적 심상)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공감각적 심상(청각의 시각화))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 (□: 설의법, 후렴구 반복)

※ 후렴구의 효과
① 그리움 강조
② 운율감 형성
③ 연과 연을 구분
④ 통일성·안정감 부여

▶ 1연: 고향의 평화롭고 한가로운 풍경(원경)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시간의 경과 표현, 계절감(겨울))
비인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공감각적 심상(청각의 시각화))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고단한 아버지의 모습)
ⓓ짚베개를 돋아 고이시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

▶ 2연: 겨울밤의 풍경과 늙은 아버지에 대한 회상(근경)

흙에서 자란 ㉡내 마음 / ⓔ파아란 하늘빛이 그리워 (고향을 그리워하는 화자)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 천진난만한 어린 시절의 모습)
풀섶 이슬에 함초롬 휘적시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

▶ 3연: 꿈 많던 어린 시절에 대한 회상

전설(傳說)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직유법(원관념: 검은 귀밑머리), 역동적 이미지)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시각적 심상) — 구김살 없는 어린 누이의 모습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소박하고 평범한 아내의 모습)
사철 발 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촉각적 심상) — 가난하고 고단한 삶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

▶ 4연: 어린 누이와 아내에 대한 회상

하늘에는 성근 별 (시각적 심상)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 시간의 흐름, 동화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
서리 까마귀 우지짖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청각적 심상 / 가난한 삶의 모습)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거리는 곳, (시각적 심상 / 청각적 심상, 단란하고 정겨운 모습)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

▶ 5연: 단란하고 정겨운 고향의 모습

향수

본문 022~023쪽

감상 스킬로 확인하기

화자·대상
•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은 무엇인가요? 고향

시어(구)
• 이 시는 추상적인 시어를 사용하여 시적 대상을 형상화하고 있나요? (○, ⊗)
이 시는 실개천, 얼룩빼기 황소, 질화로, 짚베개 등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시어를 사용하여 고향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표현
• '금빛 게으른 울음'에 쓰인 심상은 무엇인가요?
> 청각적 심상을 시각적 심상으로 전이시켜 나타낸 공감각적 표현이 사용되었어요.
• 이 시에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 매 연에서 같은 시구로 끝맺는 후렴구의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어요.

문제

1 ⑤ 2 ⑤ 3 ⑤ 4 ②

학습 노트

• **의성어:** 소리를 흉내 내는 말

1 표현 표현상의 특징

이 시는 시각, 청각, 촉각, 공감각 등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고향의 모습을 선명하게 묘사하고 있다. '금빛 게으른 울음', '밤바람 소리', '따가운 햇살' 등의 표현을 통해 고향의 풍경을 생생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오답 노트 ❶ 이 시에는 저녁, 밤, 낮 등 다른 시간대의 고향 모습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된다고 볼 수 없다.
❷ 이 시는 고향의 풍경을 묘사할 뿐, 이와 대조되는 공간은 드러나지 않는다.
❸ 이 시에서 '도란도란'이라는 의성어가 한 번 사용되었을 뿐, 유사한 의성어가 빈번하게 사용되지는 않았다.
❹ 첫 연의 내용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매 연 끝에 같은 시구가 반복된다.

알아 두기 감각적인 표현과 그 효과

시각적·청각적·촉각적·공감각적 심상 등 다양한 심상을 사용함
↓
고향의 모습을 다채롭게 묘사하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환기함

2 표현 표현의 효과

㉠은 연마다 반복되는 후렴구로, 연과 연을 구분하고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형성하며 작품 전체에 통일감을 부여한다. 또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주제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오답 노트 ❶ ㉠은 고향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직접적으로 표출한 것이므로, 시적 대상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❷ ㉠은 연을 구분할 뿐, 연과 연의 관계를 밝혀 주지는 않는다.
❸ ㉠의 동일한 시구가 반복되고 있을 뿐, 특정 음운을 반복한 것은 아니다.
❹ ㉠은 각 연의 끝에서 시상을 매듭짓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반복하여 강조하지만, 각 연의 의미가 단계적으로 심화되는 구조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알아 두기 후렴구의 기능

이 시는 각 연의 마지막에서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라는 후렴구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낸 것이다.

후렴구의 반복 → • 운율감을 형성함 • 주제나 정서를 강조함 • 형태적인 통일성과 안정감을 줌 • 각 연의 장면을 하나의 정서로 묶어 줌

3 시어(구) 시어의 기능

〈보기〉는 이 시에 사용된 향토적인 소재의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파아란 하늘빛'은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이지만, '실개천', '얼룩빼기 황소', '질화로', '짚베개'와 달리 농촌의 구체적인 생활 모습이나 향토성을 드러내는 소재로 보기는 어렵다.

오답노트 ❶, ❷, ❸, ❹ '실개천, 얼룩빼기 황소, 질화로, 짚베개'는 주로 농촌에서 볼 수 있는 향토적 소재이다. 이러한 소재들은 고향의 소박하고 정겨운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배경지식 향토적 소재

향토적 소재는 고향이나 시골의 정취가 담긴 것들을 말한다. 이처럼 시골을 떠올리게 하거나 시골적인 정감이 담긴 소재들이 작품에 사용되면 소박하고 정겨운 분위기가 느껴진다. 이 시는 향토적 소재들을 활용하여 가난하여 고달픈 생활을 했지만 정겹고 단란했던 고향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4 주제 시상 전개 방식에 담긴 작가의 의도

이 시는 전체적으로 고향의 평화롭고 정겨운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2연에는 겨울밤에 졸음에 겨워 짚베개를 돋아 고이는 늙은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난다. '엷은 졸음에 겨운', '짚베개를 돋아 고이시는'이라는 표현은 아버지의 평범하고 일상적인 모습을 그릴 뿐, 아버지 자신의 서글픈 심정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따라서 아버지의 모습에서 노년의 서글픔이 나타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노트 ❶ 1연은 넓은 벌을 배경으로 하여 평화롭고 한가한 고향 마을의 모습을 그려 내고 있으므로, 마을 전체의 모습이 보이도록 먼 거리에서 촬영하는 것이 적절하다.

❸ 3연에는 화살을 찾아 풀섶을 헤매던 어린 시절 화자의 모습이 그려져 있으므로, 천진하고 순수한 분위기가 어울린다.

❹ 4연은 들판에서 이삭을 줍는 누이와 아내의 모습을 회상하고 있으며, 특히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이라는 표현에서 아내의 소박하고 평범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❺ 5연에는 깊은 밤, 흐릿한 불빛 아래 사람들이 돌아앉아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타나므로, 정겨운 분위기가 느껴지도록 영상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배경지식 이 시의 창작 배경과 이미지즘

이 시는 정지용이 일본 유학을 앞두고 고향을 그리며 쓴 시이다. 정지용은 모더니즘의 대표적 시인으로, 특히 감각적 이미지를 구체화함으로써 이미지즘의 독창적 경지를 이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시는 감각적이고 향토적인 시어를 사용하여 연마다 한 폭의 그림이 연상되도록 하여 고향에 대한 보편적인 정서인 향수를 마치 한 폭의 풍경화처럼 생생하게 그려낸 그의 대표작이다.

독해 체크 본문 024쪽

❶ 실개천 ❷ 그리움 ❸ 통일성 ❹ 고향

어휘 체크 본문 025쪽

1 (1) ○ **2** 지줄대는 **3** (1) ㉣ (2) ㉡ **4** ③

1 이 시에서 '넓은 벌'은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는 고향의 들판을 가리키므로, '벌'은 '넓고 평평하게 생긴 땅.'을 의미한다.

2 이 시에서는 '낮은 목소리로 자꾸 지껄이는'이라는 뜻의 '지줄대는'을 사용하여, 실개천이 마치 사람이 나직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3 (1)은 저녁노을이 들판을 금빛으로 물들이는 해 질 무렵의 정경이므로, '해가 질 때 빛이 약해진 모양'을 뜻하는 '해설피'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2)는 빗방울이 드문드문 떨어지기 시작하는 상황이므로, '물건의 사이가 뜨다.'라는 뜻인 '성글다'의 활용형 '성근'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4 '함초롬'은 '젖거나 서려 있는 모습이 가지런하고 차분한 모양.'을 뜻한다. ③은 두 눈에 물기가 차분하게 서려 있는 모습을 나타내므로 〈보기〉와 같은 의미로 쓰였다. ①은 반가움, ②는 놀람, ④는 눈부심, ⑤는 무거움과 관련된 상황이다.

실전 03 **수라(修羅)** | 백석

여러분은 '아수라장이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아수라장'은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끔찍한 현장을 표현할 때 쓰이는 말이에요. 이 작품의 제목인 '수라'는 '아수라'를 달리 부르는 말인데요, 작가는 왜 이런 제목을 붙였을지 생각하며 작품을 감상해 봅시다.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일상적, 경험적, 서사적, 상징적

주제 가족 공동체 해체의 비극 및 가족 공동체의 회복에 대한 소망

특징 • 시적 대상을 의인화하여 표현함
• 화자의 특정한 행동이 반복되며 시상이 전개됨
• 구조의 반복과 변용을 통해 정서의 점층적 심화 과정을 보여 줌

□: 화자의 정서 변화 → 점층적으로 심화됨

거미 새끼 하나 방바닥에 나린 것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가족 공동체 구성원 ①　화자　무심함

㉠문밖으로 쓸어 버린다 ○: 행동의 반복
가족 공동체 해체의 원인

차디찬 밤이다 ─ ① 시간적 배경
② 화자의 무심함
③ 거미 가족이 처한 비극
④ 시련과 고통의 현실(일제 강점기) 암시
▶ 1연: 거미 새끼 한 마리를 아무 생각 없이 문밖으로 쓸어 버림

어니젠가 새끼 거미 쓸려 나간 곳에 큰 거미가 왔다
어미 거미. 가족 공동체 구성원 ②

나는 ⓑ가슴이 짜릿한다
정서 변화의 시작(죄책감, 거미에 대한 연민)

나는 또 큰 거미를 쓸어 문밖으로 버리며
새끼와 어미가 만나기를 바라는 행위

찬 밖이라도 새끼 있는 데로 가라고 하며 ⓒ서러워한다
가족 공동체 회복의 소망　거미에 대한 연민, 안타까움
▶ 2연: 새끼 있는 곳으로 가라고 큰 거미를 문밖으로 쓸어 버림

이렇게 해서 아린 가슴이 싹기도 전이다

어데서 좁쌀알만 한 알에서 갓 깨인 듯한 발이 채 서지도 못한 무척 작은 새끼 거미가 이번엔 큰 거미 없어진 곳으로 와서 아물거린다
작은 새끼 거미의 연약한 외양을 구체적으로 묘사함 – 안쓰러움 강조
가족 공동체 구성원 ③

나는 ⓓ가슴이 메이는 듯하다
가족 공동체의 해체로 인한 슬픔, 안타까움

내 손에 오르기라도 하라고 나는 손을 내어 미나 분명히 울고불고 할 이 작은 것은 나를 무서우이 달아나 버리며 나를 서럽게 한다
안타까움과 가여움이 행동으로 구체화됨　의인화
화자의 마음과 달리 달아나 버리는 거미에 대한 안타까움

나는 이 작은 것을 고이 보드러운 종이에 받아 또 ㉡문밖으로 버리며
좁고 위험하지만 가족이 있는 곳, 가족 공동체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공간

이것의 엄마와 누나나 형이 가까이 이것의 걱정을 하며 있다가 쉬이 만나기나 했으면 좋으련만 하고 ⓔ슬퍼한다
의인화
가족 공동체 회복의 소망　가족 공동체의 해체에 대한 슬픔, 정서의 직접적 표출
▶ 3연: 갓 깨어난 아주 작은 새끼 거미를 문밖으로 내보내며 슬퍼함

수라

본문 026~027쪽

감상 스킬로 확인하기

화자·대상

- 화자는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나요? 거미 가족
- 화자는 시적 대상에게 어떤 감정을 느꼈나요?

> 1연에서 3연으로 시상이 전개될수록, '무심함 → 연민 → 슬픔'으로 감정이 점점 고조되고 있어요.

- 큰 거미와 무척 작은 새끼 거미를 문밖으로 버린 행동에는 화자의 어떤 마음이 담겨 있나요?

> 거미 가족이 다시 만나기 를 바라고 있어요.

시어(구)

- '거미 새끼, 큰 거미, 무척 작은 새끼 거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 한 가족으로, 이들이 헤어진 모습을 통해 흩어진 가족 공동체를 보여 주고 있어요.

표현

- 시간적 배경을 나타내는 말이 있나요?

> '차디찬 밤'이라는 부분에서 시간적 배경이 나타나고, 이는 거미 가족이 처한 비극적인 현실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이기도 해요.

문제

1 ③　2 ②　3 ②　4 ③

학습 노트

- **의인화:**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빗대어,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
- **촉각적 심상:** 피부에 닿는 듯한 느낌을 주는 이미지 예 부드러운 고양이의 털
- **투영:** 시적 화자의 마음이나 생각 등을 다른 대상에 비추어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
- **통찰:**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꿰뚫어 봄.

1 표현 표현의 효과

이 시는 시상이 전개됨에 따라 시적 상황과 화자의 정서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하지만 '차디찬 밤', '방바닥', '문밖' 등의 시간과 공간은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것이 점차 구체화된다고 볼 수 없다.

오답 노트 ❶ 이 시는 거미를 의인화하여 거미 가족에 대한 화자의 연민과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❷ 이 시에는 '거미 새끼', '큰 거미', '무척 작은 새끼 거미'가 차례로 등장하고 이를 문밖으로 버리는 화자의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❹ 이 시는 거미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비극적인 상황을 '차디찬 밤'이라는 촉각적 심상으로 강조하고 있다.

❺ 이 시는 '쓸어 버린다', '짜릿한다', '서러워한다', '아물거린다' 등 현재 시제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화자의 행동과 정서를 생생하게 보여 주고 있다.

알아 두기 점층적 시상의 전개

이 시는 연이 바뀌면서 행의 수가 늘어나는 구조이며, 시상이 전개될수록 대상에 대한 묘사도 세밀해진다. 또한 화자와 시적 대상의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화자의 정서도 점층적으로 심화된다. 특히 '아무 생각 없이'에서 '가슴이 짜릿한다', '서러워한다', '가슴이 메이는 듯하다', '슬퍼한다'로 이어지는 표현에서 화자의 정서가 점차 깊어지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1연 → 2연 → 3연
행의 수 증가 →

- 거미에 대한 묘사가 더 구체화됨
- 화자의 정서가 점층적으로 심화됨
- 거미와 화자의 심리적 거리가 점차 가까워짐
- 거미 가족에 대한 화자의 연민과 공감이 확대됨

2 시어(구) 시어의 의미

화자가 '거미 새끼'를 문밖으로 내보내면서 ㉠은 가족 공동체가 해체되는 공간이 된다. 반면 ㉡은 '무척 작은 새끼 거미'가 가족과 다시 만날 가능성이 있는 공간이다.

오답 노트 ❶ ㉡은 가족과 재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찬 밖'이므로 생명의 보존이 보장되는 공간이라고 보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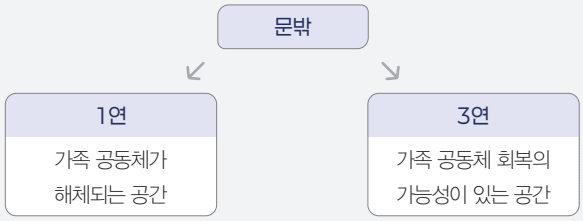
❸ ㉠은 가족과 헤어지는 공간이며, ㉡도 가족이 안락함을 누리는 공간은 아니다.

❹ ㉠을 생존을 위해 거쳐야 하는 공간으로 볼 근거가 없고, ㉡에서도 가족의 재회와 화합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❺ ㉠에서 화자와 거미가 갈등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알아 두기 '문밖'의 의미

시적 공간은 작품 속 사건이나 정서가 드러나는 공간으로, 작품의 맥락에 따라 일상적인 공간도 특별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이 시에서 '문밖'은 1연과 3연에서 동일한 물리적 공간이지만, 화자의 태도와 의도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닌다.



3 화자·대상 화자의 정서

1연에서 아무 생각 없이(ⓐ) 새끼 거미를 문밖으로 쓸어 버렸던 화자가 2연에서 거미에 대한 연민(ⓑ)을 느끼기 시작한다.

오답 노트 ❶ ⓐ는 거미에 대해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않는 화자의 무심한 상태를 보여 준다.

❸, ❹, ❺ 2연의 ⓒ와 3연의 ⓓ, ⓔ에서는 거미에 대한 연민과 안타까움이 계속 유지되거나 심화되고 있다.

알아 두기 화자의 정서 변화

1연	새끼 거미	별다른 생각이 없음
↓		
2연	큰 거미	가슴이 짜릿하고 서러움을 느낌
↓		
3연	무척 작은 새끼 거미	가족을 만나기를 바라며 슬퍼함

시상이 전개될수록 거미에 대한 화자의 연민과 슬픔이 점차 깊어진다.

4 종합 표현론적 관점에 따른 작품 감상

시인은 거미 가족의 처지에 자신의 상황을 투영하고, 거미에게 연민과 슬픔을 느끼고 있으므로 대상과 거리를 유지하여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오답 노트 ❶, ❷ 이 시는 자연물인 '거미'를 통해 시인 자신의 이야기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흩어진 거미 가족의 모습에 자신의 처지를 투영하여, 가족과 떨어져 살아가는 자신의 상황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❹ 거미 가족이 흩어진 모습을 통해 일제 강점기에 가족 공동체가 해체된 우리 민족의 비극적 현실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❺ 〈보기〉에서는 시 속 화자를 시인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화자는 처음에는 '거미'를 아무 생각 없이 문밖으로 쓸어 버리지만, 시상이 전개됨에 따라 '거미'에 대한 연민을 느끼게 된다.

배경지식 이 시에 투영된 시대상

1930년대에 일본의 폭압적인 식민 정책과 경제 수탈로 인해 우리 민중의 삶은 더 피폐해졌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 만주와 연해주 등으로 이주하였고, 어쩔 수 없이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 하는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면, 문밖으로 내보내져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거미들의 모습은 일제 강점기라는 외적 현실로 인해 고향을 떠나 가족과 헤어져 살아야 했던 우리 민족의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

독해 체크 본문 028쪽

❶ 연민 ❷ 슬픔 ❸ 가족 ❹ 거미 ❺ 해체 ❻ 의인화 ❼ 점층

어휘 체크 본문 029쪽

1 ⑤ **2** ② **3** 고이

1 이 시에서 '아물거리다'는 '작거나 희미한 것이 보일 듯 말 듯 하게 조금씩 자꾸 움직이다.'라는 뜻으로, 무척 작은 새끼 거미가 희미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낸다. 이를 통해 연약한 작은 새끼 거미를 바라보는 화자의 안쓰러움이 드러난다.

2 '짜릿하다'는 '심리적 자극을 받아 마음이 순간적으로 조금 흥분되고 떨리는 듯하다.'라는 뜻이다. 〈보기〉에서는 큰 거미를 본 화자가 마음이 찔리는 듯한 느낌과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으므로, 자신의 잘못을 떠올리며 마음에 자극을 받는 ②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였다. ①과 ④는 신체적 감각, ③과 ⑤는 흥분이나 즐거움과 관련된 상황이다.

3 이 시에서 화자는 무척 작은 새끼 거미를 보드러운 종이에 받아 고이 내보내는데, 여기에는 여린 생명을 다치게 하지 않으려는 조심스러운 태도가 드러난다. 이때 '고이'는 '온전하게 고스란히.'라는 뜻이다. 제시된 문장도 오래된 편지를 상하지 않게 그대로 간직해 왔다는 내용이므로 '고이'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실전 04 **꽃** | 김춘수

우리는 생활 속에서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진정한 관계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 작품은 대상과 진정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을 노래하고 있어요. 화자가 어떤 행위를 통해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지 이해하며 작품을 감상해 봅시다.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관념적, 주지적, 상징적
주제 존재의 본질 구현에 대한 소망
특징 • 간절한 어조를 통해 화자의 소망을 나타냄
• 존재의 의미를 점층적으로 심화하고 확대함
•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함

인식의 대상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인식의 주체 대상에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 대상에 대한 인식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무의미한 존재 ▶ 1연: 대상의 본질을 인식하기 전의 무의미한 존재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 2연: 명명 행위를 통해 의미를 부여받은 존재
의미 있는 존재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준 것처럼

나의 이 ㉠ 빛깔과 향기(香氣)에 알맞은
존재의 본질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 다오.
존재의 본질 구현에 대한 소망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 3연: 나도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소망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소망

우리들은 모두
'나'의 소망이 '우리들'의 소망으로 확장됨
무엇이 되고 싶다.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 – 화자와의 의미 있는 관계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서로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존재
▶ 4연: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소망

꽃

본문 030~031쪽

감상 스킬로 확인하기

화자·대상

- 1연에서 인식의 주체는 '그'이고, 인식의 객체는 '나'인가요? (○, ⊗)

1연에서 이름을 불러 주는 인식의 주체는 '나'이고, 인식의 대상은 '그'이므로 서로 뒤바뀌었다.

- 화자는 시적 대상과 관계를 맺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요?

>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 화자의 소망은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나요?

> '되고 싶다'라는 시구를 반복하여 화자의 소망을 강조하고 있어요.

시어(구)

- 시어들 간에 대립적인 의미를 지닌 시어가 있나요?

> 이 시에서 (몸짓, 꽃)은 무의미한 존재로, (몸짓, 꽃)은 의미 있는 존재로 쓰였어요.

표현

- 이 시는 어떠한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나요?

> '나 → 너 → 우리'로 인식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어요.

문제

1 ④ **2** ② **3** ① **4** ④

학습 노트

- **변주:** 반복되는 시어나 시구, 문장 구조 등의 일부에 변화를 주어 의미를 강조하거나 시상을 전개하고 리듬감을 형성하는 것
- **역설적 표현:** 표면적으로는 논리의 모순이지만 그 속에 참뜻(진리)을 담아, 신선함을 주는 표현 방법 예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 **수미상관:** 시의 처음과 끝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구를 배치하는 방법

1 화자·대상 화자의 태도

화자는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라고 하며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기를 바라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소망은 '그의 꽃이 되고 싶다'에서 '우리들은 모두 / 무엇이 되고 싶다'로 확대되면서 개인을 넘어 존재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소망으로 확장된다.

오답노트 ❶ 이 시는 개인들 사이의 관계 맺음을 노래하고 있을 뿐, 공동체적 삶의 자세를 회복하자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❷ 화자는 자신의 본질에 알맞은 이름으로 불리기를 바랄 뿐, 누구에게나 알려지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

❸ 이 시에는 화자가 처한 고난과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나타나지 않는다.

❺ 화자는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고 있으므로, 한쪽의 헌신적인 사랑을 노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알아 두기 상호적인 관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나'도 '그'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음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서로가 서로를 인식하고 의미를 부여함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서로에게 오래도록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소망

이 시에서 화자는 한쪽이 다른 쪽에게 일방적으로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인식하고 의미를 주고받는 관계를 소망한다. '그의 꽃이 되고 싶다.'에서는 '나'도 '그'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마음이 드러나고,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에서는 이러한 소망이 상호적인 관계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화자는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진정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2 표현 표현상의 특징

1연에서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2연에서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3연에서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준 것처럼'으로 시구의 반복과 변주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또 3연과 4연에서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무엇이 되고 싶다',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와 같이 반복과 변주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오답노트 ❶ 이 시에서는 이름을 불러 주는 행위를 통해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을 뿐, 시적 공간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시적 공간의 대립적 설정 또한 나타나지 않는다.

❸ 역설적 표현은 표면적으로는 논리의 모순이지만 그 속에 참뜻(진리)을 담아, 신선함을 주는 표현 방법을 가리킨다. 이 작품에서는 이름을 부르는 행위를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을 뿐, 역설적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❹ 수미상관의 구성은 시의 처음과 끝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구를 배치하는 구성 방식이다. 그런데 이 시의 처음과 끝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구가 대응하여 반복되지 않는다.

❺ 자연물인 '꽃'이 등장하지만, 이때 '꽃'은 자연물로서의 의미가 아닌 '의미 있는 존재'라는 상징적 의미로 쓰였다. 따라서 자연물과의 친밀한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배경지식 시에서의 반복과 변주

시에서는 동일하거나 비슷한 시어 또는 시구, 시행, 더 나아가 문장 구조 등을 반복하는데, 이러한 반복은 시의 운율감을 더해 주며, 시의 의미를 강조해 주는 효과가 있다. 한편, 단순히 반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내용에 변화를 주기도 하는데, 이를 변주라고 한다. 김춘수의 「꽃」에서는 '~이 되고 싶다'라는 문장 구조를 반복하되, 그 앞의 내용을 '그의 꽃이', '무엇이',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로 변주하고 있다. 이러한 반복과 변주를 통해 운율감을 형성하고,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강조하고 있다.

3 시어(구) 시구의 의미

이 시에서 '나'는 누군가로부터 자신의 본질에 알맞은 의미를 부여받기를 소망하고 있다. 즉 '나'도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 그와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싶은 것이다. 이때 ㉠ 빛깔과 향기는 '나'가 지닌 고유한 특성이나 본질을 의미한다.

오답노트 ❷ '나의 이 빛깔과 향기'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 '빛깔과 향기'는 '나'가 이미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그'로부터 얻고자 하는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름을 불러 주는 것은 새로운 특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닌 본질을 인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이다.

❸ '나'는 자신의 ㉠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이름으로 불리기를 바랄 뿐, 새로운 특성을 지니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다.

❹ '나'는 자신의 ㉠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이름을 불러 달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 빛깔과 향기는 '그'에게로 가기 위해 더 갖추어야 하는 특성이 아니다.

❺ ㉠ 빛깔과 향기는 '나'가 지닌 본질적 특성으로, '그'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성이 아니다. 이 시는 서로의 공통점보다 각 존재의 고유한 본질을 인식하는 관계 맺음을 강조하고 있다.

알아 두기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이름 부르기

빛깔과 향기		이름 부르기
존재의 본질적 특성	+	대상의 존재를 인식하고 대상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행위

↓

상대의 고유한 특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름을 불러 줌으로써 서로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음

4 주제 작가의 의도와 작품 감상

이 시에서 '그의 꽃이 되고 싶다'는 것은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는 존재에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나'도 '그'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 진정한 관계를 맺고 싶다는 마음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그의 꽃이 되고 싶다'를 주체와 대상 간의 관계가 변하지 않아야 진정한 관계 맺음이 가능함을 나타내는 시구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노트 ❶ '이름을 불러 주'는 것은 의미 없는 존재였던 '하나의 몸짓'을 의미 있는 존재인 '꽃'으로 바꿔 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름을 불러 주는 행위는 주체가 어떤 대상과 진정한 관계를 맺기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

❷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은 이름으로 불리기 전, 의미가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 해당한다. 따라서 존재로서의 의미를 드러내지 못한 상태를 나타낸다.

❸ 이 시에서 이름을 불러 주는 것은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이고, 이름을 불러 준 이후에는 그 대상은 의미 있는 존재로 변화된다. 따라서 '나'가 이름을 불러 준 이후 '그'가 '나에게로 와서 / 꽃이 되었다'는 것은 '그'가 의미 있는 존재로서 '나'와 관계를 맺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❺ '우리들은 모두 / 무엇이 되고 싶다'는 '나'의 소망이 '우리들'의 소망으로 확대된 것으로, 우리는 모두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의미이다. 이를 통해 존재들 사이의 진정한 관계 맺음에 대한 소망이 보편적인 차원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알아 두기 존재의 의미와 관계 맺기

이 시에서 '이름을 불러 준다'는 것은 단순히 대상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인식하고 의미를 부여하여 관계를 맺는 행위이다. 이름이 불리기 전의 '그'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지만, '나'가 이름을 불러 준 뒤에는 '꽃', 즉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 이러한 관계 맺기에 대한 소망은 3연의 '나'에서 4연의 '우리들'로 확대된다.

이름을 부르기 전	→	이름을 부른 뒤
'하나의 몸짓' – 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없는 존재		'꽃' –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

↓ 관계의 확대

'나와 그' - '우리들'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보편적 소망

독해 체크 본문 032쪽

❶ 무엇 ❷ 몸짓 ❸ 꽃 ❹ 우리

어휘 체크 본문 033쪽

1 몸짓 **2** ⑤ **3** ③

1 이 시에서 화자는 이름을 불러 주기 전의 대상을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에는 아직 '나'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 못한 존재였다는 뜻이 담겨 있다. 이때 '몸짓'은 '몸을 놀리는 모양.'이라는 뜻이다. 제시된 문장도 말 대신 몸을 움직여 뜻을 전한다는 내용이므로 '몸짓'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2 〈보기〉의 '빛깔'은 '물체가 빛을 받을 때 빛의 파장에 따라 그 거죽에 나타나는 특유한 빛.'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다른 것과 구별되는 그 대상만의 고유한 특성을 의미한다. ①~④는 모두 물체가 지닌 색을 가리키지만, ⑤는 그림에 담긴 화가만의 개성을 나타내므로 〈보기〉의 '빛깔'과 문맥적 의미가 같다.

3 이 시는 이름을 부르는 행위를 통해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보기〉의 설명과 관련이 깊은 단어는 '사람, 사물, 사건 등의 대상에 이름을 지어 붙임.'을 뜻하는 '명명(命名)'이다.

실전 05 **첫사랑** | 고재종

이 작품의 제목은 '첫사랑'인데 작품을 들여다보면 '눈'이 나뭇가지에 '눈꽃'을 피우는 과정에 대해 노래하고 있어요. 작가는 '눈꽃'을 통해 어떻게 '첫사랑'을 표현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작품을 감상해 봅시다.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서정적, 낭만적
주제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을 위한 시련과 고난
특징 • '눈'을 의인화하여 사랑의 모습을 표현함
• 겨울에서 봄으로의 계절 변화에 시적 의미를 부여함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번 피우려고 (나뭇가지: 사랑의 대상, 꽃: 눈꽃=사랑)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눈: 사랑을 이루려는 주체,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눈이 사랑(눈꽃)을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함 – 의인법, 설의법)
▶ 1연: 눈꽃을 피우기 위한 눈의 도전

싸그락 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눈 내리는 소리(눈꽃을 피우기 위한 노력) – 의성어)
난분분 난분분 춤추었겠지 (눈이 어지럽게 날리는 모양 – 의태어)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수백 번, (눈꽃을 피우기 위한 눈의 수많은 노력과 시련)
▶ 2연: 눈꽃을 피우기 위한 눈의 수많은 노력과 시련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바람에 눈이 금방 날아가듯이 첫사랑 역시 그러함. 첫사랑의 순간적 속성)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 준 다음에야 (햇솜 같은 마음: 눈의 순수한 마음 – 직유법, 다 퍼부어 준: 헌신적인 태도)
마침내 피워 낸 저 ㉠ 황홀 보아라 (㉠ 황홀: 눈꽃, 첫사랑 – 은유법)
▶ 3연: 인내와 헌신 끝에 얻은 눈꽃

봄이면 가지는 그 한 번 덴 자리에 (덴 자리: 눈꽃이 피었던 자리, 첫사랑의 상처(이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봄에 피어난 꽃, 성숙한 사랑의 아름다움 → 은유법, 시련을 겪은 후 성숙한 사랑을 이룰 수 있음을 역설적으로 표현함)
▶ 4연: 봄에 피어난 꽃의 아름다움

첫사랑

본문 034~035쪽

감상 스킬로 확인하기

화자·대상

• 눈이 사랑하는 대상은 무엇인가요? 나뭇가지
• 눈은 수백 번 미끄러지면서도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 눈은 헌신적인 노력으로 눈 꽃을 피우려고 해요.

시어(구)

• 눈꽃과 첫사랑은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 둘 다 헌신적인 노력을 거쳐야 이룰 수 있지만, 쉽게 사그라들 수 있는 속성을 지니고 있어요.
• 이 시에서 '아름다운 상처'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봄 꽃으로, 첫사랑의 아픔을 통해 이루어 낸 성 숙 한 사랑을 의미해요.

표현

• 이 시는 화자의 공간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나요? (○, ⊗)
이 시는 눈이 내리는 겨울에서 꽃이 피는 봄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2연에서 눈이 내리는 소리를 생동감 있게 표현한 말은 무엇인가요?
> '싸 그 락 싸 그 락'이라는 의성어로 표현했어요.

문제

1 ⑤ 2 ① 3 ②

학습 노트

• **설의적 표현:** 답이 명확한 상황에서 물음의 형식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는 표현 방법
• **보조 관념:** 원관념의 뜻이나 분위기가 잘 드러나도록 도와주는 관념
• **예찬적 태도:** 사람이나 사물의 장점이나 훌륭한 점을 우러러 찬양하는 태도

1 표현 **표현상의 특징**

이 시에서 사랑을 이루어 내려고 노력하는 주체는 '눈'이며, 눈이 사랑하는 대상은 '나뭇가지'이다. 주체와 객체가 전도된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노트 ❶ 2연에서 '싸그락 싸그락'은 눈 내리는 소리를 표현한 의성어로, 음성 상징어를 통해 눈이 오는 시적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❷ 4연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는 첫사랑의 아픔을 '상처'로, 그 아픔을 딛고 얻은 성숙한 사랑의 결실을 '아름다운'으로 표현한 시구이다. 표면적으로는 모순이 되는 역설적 표현이지만, 시련과 고난을 겪은 뒤 얻은 사랑의 결실을 강조하여 주제 의식을 한층 더 효과적으로 나타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❸ '눈'을 의인화하여 시련을 이기고 도전하며 마음을 다 퍼부어 주는 존재로 표현하고 있다.
❹ 1연에서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라는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어려움 속에서도 눈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 기울인 많은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알아 두기 이 시의 운율 형성 요소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	'싸그락 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와 '난분분 난분분 춤추었겠지'에 대구의 방법이 사용됨
동일(유사)한 시어의 반복	• '싸그락'(의성어), '난분분'(의태어)이라는 음성 상징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됨 • '-겠지'라는 어미가 반복적으로 사용됨 •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에서 유사한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됨

2 시어(구) **시어의 의미**

눈이 시련을 이기고 수많은 도전 끝에 마침내 눈꽃을 피워 낸 것을 '황홀'이라고 표현하였다. 따라서 '황홀'은 눈꽃의 보조 관념이자, 눈꽃을 피워 낸 기쁨을 함축한 표현에 해당한다.

오답노트 ❷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이긴 하지만 '황홀'은 눈이 눈꽃이라는 결실을 맺은 기쁜 순간을 표현한 것으로, 눈꽃이 필연적으로 사라지는 슬픔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은 아니다.
❸ '황홀'은 눈이 수많은 시련을 견딘 끝에 눈꽃을 피워 낸 순간에 대한 감탄을 담은 말이다. 따라서 눈 내리는 풍경보다는 눈꽃에 대한 정서를 표현한 것으로, 이로 인해 시적 분위기가 전환되고 있지는 않다.
❹ 눈이 시련을 이기고 피워 낸 눈꽃을 가리키는 것으로, 눈꽃이 바람에 날리는 풍경을 나타낸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러한 풍경에 대한 예찬적 태도라고 볼 수 없다.
❺ 나뭇가지가 눈을 이겨 내고 꽃을 피운 것이 아니라, 눈이 시련 속에서도 나뭇가지에 눈꽃을 피워 낸 것이다.

3 시어(구) 시구의 의미 + 주제 작품의 주제

2연에서 '싸그락 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난분분 난분분 춤추었겠지'는 눈이 사랑(눈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오답노트 ❶ 1연에서 '많은 도전'은 사랑을 이루기 위해 눈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❸ 2연에서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수백 번'은 눈이 눈꽃을 피우기 위한 노력과 시련을 의미하는 것이다.

❹ 4연에서 '한 번 덴 자리'는 눈꽃을 피웠던 자리이자, 눈꽃이 녹은 자리로, 첫사랑의 아픔(이별)을 의미하는 것이다.

❺ 4연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는 시련과 헌신 끝에 얻은 사랑의 아름다움, 사랑의 결실로 볼 수 있다.

알아 두기 시어(구)의 의미

싸그락 싸그락	눈이 내리는 소리
난분분 난분분	눈이 하늘에서 어지럽게 흩날리며 내리는 모습
황홀	• 눈의 헌신과 노력으로 피워 낸 눈꽃 • 첫사랑이 이루어진 기쁨
아름다운 상처	• 봄에 꽃이 핀 모습 • 첫사랑의 아픔을 겪은 후 이루어 낸 성숙한 사랑

독해 체크 본문 036쪽

❶ 황홀 ❷ 상처 ❸ 덴 자리 ❹ 의인법 ❺ 햇솜

어휘 체크 본문 037쪽

1 난분분 **2** ② **3** (1) ㉠ (2) ㉡ **4** ③

1 2연의 '난분분 난분분 춤추었겠지'에 쓰인 '난분분'은 눈이 어지럽게 흩날리는 모양을 나타낸 음성 상징어로, 눈꽃을 피우기 위해 애쓰는 눈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드러낸다.

2 '햇솜'은 '당해에 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햇-'과 '솜'이 결합한 말로, 당해에 새로 난 깨끗한 솜을 뜻한다. 3연의 '햇솜 같은 마음'은 햇솜의 속성에 빗대어 눈의 순수한 마음을 형상화한 표현이다.

3 (1)은 뜨거운 국으로 인해 상처를 입었다는 내용이므로 '불이나 뜨거운 기운으로 말미암아 살이 상하다.'를 뜻하는 '데다'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2)는 오랜 시간 준비해 온 무대의 마지막 연습에 모든 열정을 다하는 상황이므로 '찬사, 애정, 열의나 열정 등을 아낌없이 보내거나 바치다.'라는 뜻의 '퍼붓다'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4 〈보기〉의 '피워'는 꽃봉오리 등을 벌어지게 한다는 뜻으로, 눈이 나뭇가지에 눈꽃을 맺히게 한 것을 가리킨다. ③은 국화가 꽃을 벌어지게 한다는 뜻이므로 〈보기〉와 같은 의미로 쓰였다. ①은 연탄이나 숯 등에 불을 일으켜 스스로 타게 한다는 뜻, ②와 ④는 어떤 행동이나 태도를 나타낸다는 뜻, ⑤는 담배에 불을 붙여 연기를 빨아들이었다가 내보낸다는 뜻으로 쓰였다.

실전 06

광야 | 이육사

일제 강점기와 같은 암울한 시대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답답하고 부조리한 현실이지만 폭압적인 일제의 탄압이 두려워 숨조차 제대로 쉬기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일제 강점기에 끝까지 일제에 항거한 시인이었던 이육사가 이 작품을 통해 드러내고자 한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며 감상해 봅시다.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의지적, 저항적, 미래 지향적

주제 고통스러운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신념

특징 •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함
• 역동적·남성적인 어조로 강인한 의지를 드러냄
• 각 연의 시행(3행)을 규칙적으로 배열하여 형태적 안정감을 얻음

까마득한 날에
태초, 과거
㉠ 하늘이 처음 열리고
천지개벽의 광경을 시각적으로 표현함. 광야의 탄생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생명의 기척 – 대유법 설의법
: '-랴/-라'의 종결 어미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함
▶ 1연: 광야의 원시성(시간성)

『모든 산맥(山脈)들이
『 』: 산맥의 형성 과정, 의인법
바다를 연모(戀慕)해 휘달릴 때도,
역동적 이미지, 활유법
차마 이 곳을 범(犯)하던 못하였으리라.
광야의 순수성, 신성성
▶ 2연: 광야의 신성성(공간성)

㉡ 끊임없는 광음(光陰)을
부지런한 계절(季節)이 피어선 지고
'계절'을 꽃에 비유해 시각적으로 표현함 – 세월의 흐름
㉢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인류의 역사와 문명 역사의 태동
▶ 3연: 광야의 역사성(문명의 태동)

[A] 지금 ㉣ 눈 내리고
암울한 현실 상황
매화 향기(梅花香氣) 홀로 아득하니
민족정신, 조국의 광복 고고하고 고독한 모습
㉤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자기희생적 의지(속죄양 모티프), 조국 광복의 선구자적 이미지
▶ 4연: 광야의 현실적 상황과 현실 극복 의지

다시 천고(千古)의 뒤에
미래
백마(白馬) 타고 오는 초인(超人)이 있어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조국의 광복
이 ㉥ 광야(曠野)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역사의 현장, 민족의 터전 초인에게 광복의 노래를 목놓아 부르게 하겠다는 의지적 태도가 드러남
▶ 5연: 미래 지향적 확고한 역사의식

광야 본문 038~039쪽

감상 스킬로 확인하기

화자·대상

• 화자는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나요?

› 화자가 있는 광야에 눈이 내리고 있어요.

• 화자는 현재의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체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나요? (○, ⊗)

화자는 광야에 '눈'이 내리는 암담하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민족의 구원이 실현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믿음을 안고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리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명령하고 있다. 따라서 화자가 체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 4연에서 화자의 자기희생적 의지가 담긴 행위가 드러난 시행은 무엇인가요?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시어(구)

• '매화 향기'는 무엇을 상징하나요?
> 시대의 억압에 굴하지 않는 현실 극복의 의지를 상징해요.

• 화자가 기다리는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 조국의 광복을 실현할 민족의 지도자를 의미해요.

표현

• 2연에서 산맥이 형성되는 과정을 역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활용한 비유법 두 가지는 무엇인가요? 의인법, 활유법

문제

1 ② 2 ④ 3 ④ 4 ⑤

학습 노트

- **활유법:** 생명이 없는 것을 생명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
- **속죄양 모티프:** 인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형으로 희생했던 예수의 삶에서 비롯된 모티프로, 속죄양 모티프에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인류나 민족을 구원하려는 행위나 의식이 드러남
- **유구한:** 아득하게 오래된.

1 표현 표현상의 특징

이 시는 상징적이고 함축적인 시어를 통해 투철한 역사의식을 형상화하고 있을 뿐, 토속적인 시어를 통해 향토적인 정서를 불러일으키고 있지는 않다.

오답노트 ❶ '-랴/-라'와 같이 유사한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끝맺음으로써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❸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대상인 '계절'을 피고 지는 꽃에 비유하여, 세월의 흐름을 시각적 이미지로 구체화하여 형상화하고 있다.

❹ 이 시는 각 연을 3행씩 균등하게 배열하고 있고, 각 연의 1행에서 3행으로 갈수록 시행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는 시행의 규칙적 배열 방식을 통해 형태적 안정감을 주고 있다.

❺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도'와 같이 산맥의 형성 과정을 활유법을 사용하여 역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2 화자·대상 화자의 정서와 태도

4연에서 화자는 암울한 현실에서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후손을 위한 터전을 닦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가난한 노래의 씨'는 조국 광복을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자 하는 화자의 생각을 담은 것으로, 암울한 현실을 살아가는 민중들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노트 ❶ '지금 눈 내리고'에서 '눈'은 일제의 탄압으로 볼 수 있고, '지금' '내리고' 있다는 것은 일제 강점기의 암담한 현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❷, ❸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에서는 명령형 어미를 통해 절망적인 현실을 이겨 내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며, 민족의 미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는 속죄양 모티프가 드러난다.

❺ 자신이 뿌린 씨를 통해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믿음에서 화자의 미래 지향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다.

3 시어(구) 시어의 함축적 의미

이 시에서 ㉡ '눈'은 맑고 깨끗한 생명의 순수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제의 탄압에 의한 시련과 고난을 의미한다.

오답노트 ❶ '하늘이 처음 열리고'는 우리 민족의 역사가 시작된 터전인 광야의 탄생을 의미한다.

❷ '광음'은 햇빛과 그늘, 즉 낮과 밤이라는 뜻으로, 시간이나 세월을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끊임없는 광음'은 '끝없이 이어지는 세월'이라는 의미임을 알 수 있다.

❸ '강물'은 주로 인류의 역사, 문명을 의미하는데, 이 시에서는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의 흐름을 '큰 강물'로 표현하고 있다.

❺ '광야'는 우리 민족의 삶이 이어져 온 공간적 배경이자, 역사의 현장이며 조국의 광복이 실현될 미래의 공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4 종합 시의 구조에 따른 작품 감상

초인은 화자가 기다리는 존재로, 조국에 광복을 가져올 구원자를 의미한다. 화자가 초인과의 대결을 준비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노트 ❶ 광야의 과거, 현재, 미래를 순차적으로 제시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하고 있다.

❷ '까마득한 날',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를 통해 태초에 광야가 열리고 오랜 세월이 흘렀음을 알 수 있다.

❸ '차마 이 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를 통해 화자가 과거 광야의 신성한 분위기를 떠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❹ 조국 광복의 기운을 의미하는 '매화 향기'라는 상징적 시어를 통해 미래에 대한 긍정적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독해 체크 본문 040쪽

❶ 눈 ❷ 초인 ❸ 생명 ❹ 매화 향기 ❺ 광복 ❻ 천고 ❼ 종결 ❽ 운율

어휘 체크 본문 041쪽

1 천고 2 ⑤ 3 (1) ㉡ (2) ㉢ 4 ①

1 '천고'는 '아주 먼 옛적.' 또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을 뜻하는 말이다. 5연의 '다시 천고의 뒤에'에서는 초인이 오게 될 아득히 먼 미래의 시간을 나타낸다.

2 '비로소'는 어느 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사건이나 상태가 이루어지거나 변화하기 시작함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 시의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에서는 마침내 인류의 역사와 문명이 시작되었다는 의미로 쓰였다.

3 (1)은 어릴 적 이웃에 살던 소녀를 오래도록 마음에 품어 왔다는 내용이므로,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사랑하여 간절히 그리워하다.'를 뜻하는 '연모하다'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2)는 고향에서 뛰놀던 때가 지금과는 아주 동떨어지게 여겨지는 상황이므로, '시간이 아주 오래되어 기억이 흐릿하다.'라는 뜻의 '까마득하다'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4 '광야'는 '텅 비고 아득히 넓은 들.'을 의미한다. '큰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깊은 숲.'을 의미하는 단어는 '밀림'이다.

실전 07

봄 길 | 정호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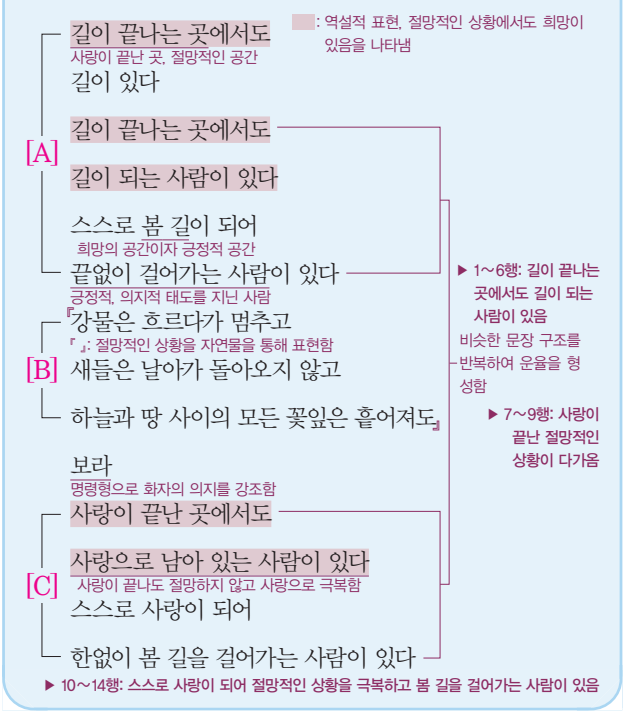
더는 갈 곳이 없다고 느껴 본 적이 있나요? 애를 써도 앞이 보이지 않아 주저앉고 싶었던 순간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작품의 화자는 길이 사라진 자리에서도 걸음을 멈추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면서 작품을 감상해 봅시다.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역설적, 의지적, 단정적

주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과 사랑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삶의 태도

특징
- 역설을 활용하여 참신한 느낌을 주고, 주제를 강조함
- 비슷한 시구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함
- 의지적이고 단정적인 어조를 사용하여 화자의 태도를 드러냄



봄 길

본문 042~043쪽

감상 스킬로 확인하기

화자·대상
- '스스로 사랑이 되어 / 한없이 봄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 사랑이 끝나도 절망하지 않고 사랑으로 극복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시어(구)
-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라는 시구는 어떤 상황을 나타내나요?
  > 자연물을 활용하여, 사랑이 끝나 절망적인 상황을 형상화하고 있어요.
- 이 시에서 절망적인 상황을 딛고 나아가는 희망의 길을 상징하는 시어는 무엇인가요? 봄 길

표현
-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 길이 있다'에 나타난 표현 방법은 무엇인가요?
  > 역설 표현으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이 있다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문제

1 ① 2 ④ 3 ②

학습 노트

- **변용:** 대상이 원래 지니고 있는 형태나 특성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않고 새롭게 바꾸어 표현하는 것
- **주체적:** 어떤 일을 실천하는 데 자유롭고 자주적인 성질이 있는 것.

1 표현 표현상의 특징

[A]의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 길이 있다'는 논리적으로 모순되지만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이 있음을 드러내는 역설적 표현이다. 이 시에서 반어적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 노트 ❷ [A]에서는 '~이 끝나는 곳에서도 ~ 있다'라는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면서 운율을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❸ [B]에서는 '강물', '새', '꽃잎'의 자연물을 통해 화자가 처한 절망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❹ [C]에서는 [A]의 3~6행과 유사한 문장 구조를 변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❺ [A]와 [C]에서는 '~있다'라는 동일한 종결형 어미를 사용하여 절망적 상황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시의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2 주제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는 자연물을 통해 사랑이 끝난 절망적인 상황을 드러내는 시구이다. 따라서 이는 사랑과 희망이 사라진 절망적 상황을 나타낼 뿐, 상처를 견뎌 낸 사람이 도달한 자리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노트 ❶ '길이 끝나는 곳'은 더 나아갈 길이 없는 절망적인 공간으로, 〈보기〉에서 시인이 인간을 아름다워지게 한다고 말한 고통과 시련을 겪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❷ '길이 되는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❸ '스스로 봄 길'이 되는 것은 남에게 기대지 않고 자기 힘으로 길을 내는 모습이므로, 상처의 힘을 알고 주체적으로 상처를 극복하려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❺ '봄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상처가 오히려 힘이 되어, 그 힘으로 다시 시의 길을 가려는 시인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3 종합 다른 작품과의 비교 감상

이 시에는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노래한다는 점에서, '길'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잃지 않는 삶의 희망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보기〉에서 '길'은 화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에서 화자가 걸어가야 할 삶의 운명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노트 ❶ 이 시와 〈보기〉의 화자는 모두 자신의 다짐을 홀로 진술하고 있을 뿐, 다른 인물과 말을 주고받는 대화 형식은 나타나 있지 않다.

❸ 이 시와 〈보기〉의 화자는 모두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의 길을 걷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현실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보기 어렵다.

❹ 〈보기〉의 화자는 현실적 고뇌와 갈등으로 괴로워하면서도, 자신의 양심을 지키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로 볼 때 비관적인 어조로 말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❺ 〈보기〉의 시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지만, 이 시에서는 '봄 길'이라는 공간만 나타날 뿐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 있지 않다.

배경지식 윤동주의 「서시」 작품 개관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의지적, 성찰적
주제	부끄러움 없는 삶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의지		
특징	• '과거–미래–현재'의 시간의 변화에 따라 시상이 전개됨 • 이미지의 대립(별 ↔ 바람)을 통해 시적 상황을 제시함		

독해 체크 본문 044쪽

❶ 사랑 ❷ 길 ❸ 강물 ❹ 봄 길 ❺ 역설 ❻ 운율

어휘 체크 본문 045쪽

1 ① **2** ⑤ **3** ③

1 〈보기〉의 '흐르다'는 '액체 등이 낮은 곳으로 내려가거나 넘쳐서 떨어지다.'라는 뜻이다. 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은 ①이다. ②는 기운이나 분위기 등이 겉으로 드러난다는 뜻, ③은 땀이 몸 밖으로 넘쳐서 떨어진다는 뜻, ④는 소리가 부드럽게 퍼진다는 뜻, ⑤는 시간이나 세월이 지나간다는 뜻으로 쓰였다.

2 〈보기〉의 '남아 있는'은 사랑이 끝난 뒤에도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어떤 상황의 결과로 생긴 상태가 그대로 있다는 의미로 쓰였다.

3 '한없이'는 끝이 없다는 뜻이므로 '끝없이'와 바꾸어 쓸 수 있다. ①은 보람이나 쓸모가 없어 헛되고 허전하다는 뜻, ②는 헤아릴 수 없이 그 수가 많다는 뜻, ④는 시름에 싸여 멍하니 이렇다 할 만한 아무 생각이 없다는 뜻, ⑤는 단념할 수밖에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뜻이다.

실전 08

청산별곡 | 작자 미상

친구와 다툰 후 외톨이가 되거나 원하는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아 속상할 때,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나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곳으로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 있나요? 이 작품에도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 삶의 안식처를 찾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이 잘 드러나 있어요. 중심 소재인 '청산'과 '바다'의 의미에 주목하면서 작품을 감상해 봅시다.

갈래 고려 가요
성격 현실 도피적, 애상적
주제 삶의 고통과 슬픔
특징 • 시구의 반복을 통해 의미를 강조함
• 'ㄹ', 'ㅇ' 음을 반복하는 후렴구를 통해 경쾌한 리듬감을 형성함

3음보, 3·3·2조의 율격, 'a–a–b–a'의 문장 구조 → 운율 형성
3 V 3 V 2 / 3 V 3 V 2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靑山)에 살어리랏다
이상향, 현실 도피처
멀위랑 다래랑 먹고 청산(靑山)에 살어리랏다
소박한 음식
㉠ 얄리 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 1연: 청산을 동경함
후렴구 → 노래의 흥을 돋우고 'ㄹ', 'ㅇ' 음의 반복으로 경쾌한 리듬감을 형성함

우러라 우러라 ⓐ 새여 자고 니러 우러라 새여
감정 이입의 대상
널라와 시름 한 나도 자고 니러 우니노라
보다(비교격 조사) 화자의 비애와 슬픔
얄리 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 2연: 새와 함께 탄식함

① 날아가던 새(화자의 상실감) ② 갈던 밭고랑(유랑민의 슬픔)
속세, 의미적으로 '청산', '바다'와 대비되는 공간
가던 새 가던 새 본다 믈 아래 가던 새 본다
속세에 대한 미련을 떠올리게 하는 대상
잉무든 장글란 가지고 믈 아래 가던 새 본다
속세에 대한 미련
얄리 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 3연: 속세에 대한 미련으로 괴로워함
① 유랑민의 쟁기 ② 좌절한 지식인의 병기(무기) ③ 실연한 여인의 은장도

이링공 뎌링공 하야 나즈란 디내와손뎌
낮과 밤의 상황
대비를 통한 고독감 부각
오리도 가리도 업슨 ⓑ 바므란 또 엇디 호리라
절망적 외로움을 드러냄
얄리 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 4연: 고독한 처지를 한탄함

어듸라 더디던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 화자의 비애를 일으키는 매개체
믜리도 괴리도 업시 마자셔 우니노라
체념적 태도가 드러남
얄리 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 5연: 자신의 처지를 운명으로 여김

살어리 살어리랏다 바다애 살어리랏다
이상향, 현실 도피처
나마자기 구조개랑 먹고 바다애 살어리랏다
소박한 음식
얄리 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 6연: 바다를 동경함

가다가 가다가 드로라 ⓒ 에졍지 가다가 드로라
ⓓ 사슴이 장대에 올아셔 해금을 혀거를 드로라
→ 불가능한 현실을 꿈꿈
얄리 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 7연: 절박한 심정으로 기적을 바람

가다니 배브른 도긔 ⓔ 설진 강수를 비조라
고뇌 해소의 수단
조롱곳 누로기 매와 잡사와니 내 엇디 하리잇고
체념적 정서
얄리 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 8연: 술로 번민을 해소하고자 함

청산별곡 본문 046~047쪽

감상 스킬로 확인하기

화자·대상
• 이 작품의 화자는 자연에서 유유자적한 삶을 만끽하고 있나요? (○, ⊗)
이 작품의 화자는 현실에서 삶의 고통과 비애를 느끼는 상황이므로 자연에서 유유자적한 삶을 만끽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시어(구)
• 화자가 현재의 처지에서 벗어나 살고자 하는 공간 두 곳은 어디인가요?
› (청산)을 아래, (바다)로,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향이자 현실 도피처를 의미해요.

표현

• 후렴구 '얄리 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에서 반복되어 경쾌한 리듬감을 형성하는 두 음운은 무엇인가요? ㄹ, ㅇ

문제

1 ② **2** ③ **3** ① **4** ④

학습노트

• **낙천성:** 세상과 인생을 즐겁고 좋은 것으로 여기는 성향.

1 화자·대상 **시어의 해석에 따른 화자의 처지**

이 작품은 시구의 해석에 따라 화자와 주제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 '가던 새'를 '갈던 사래(밭고랑)'로, '잉무든 장글'을 '이끼 묻은 쟁기(농기구)'로 해석한다면 화자는 삶의 터전인 농토를 잃고 청산에 들어가 머루, 다래 등을 먹고 살아야 하는 유랑민(농민)으로 파악할 수 있다.

오답노트 ❶ 이 작품의 화자를 '사랑에 실패한 여인'으로 볼 경우, '잉무든 장글'은 '이끼 묻은 은장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❸ 이 작품의 화자를 '술로써 고뇌를 잊으려는 지식인'으로 볼 경우, '가던 새'는 '갈던 밭고랑'이 아닌 '날아가던 새(뜻을 같이했던 벗)'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❹ 이 작품의 화자를 '국경의 주변 지역을 지키는 군인'으로 볼 경우, '잉무든 장글'은 '날이 무딘 병기(무기)'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❺ 이 작품의 화자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현실에서 겪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청산'이나 '바다'와 같은 현실과 대조되는 공간에서 살아가는 것을 지향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자연물의 덕성을 본받으려는 사대부는 이 작품의 화자로 보기 어렵다.

알아 두기 **시구와 화자에 대한 다양한 견해**

'가던 새'	• '날아가던 새'의 의미로 해석하는 견해 • '믈 아래'와 '장글란(연장을)'을 근거로 '갈던 사래(밭고랑)'로 해석하는 견해
'잉무든 장글'	• '이끼 묻은 쟁기'로 해석하는 견해 → 화자는 삶의 터전을 잃은 유랑민으로 해석됨 • '이끼 묻은 은장도'로 해석하는 견해 → 화자는 사랑에 실패한 여인으로 해석됨 • '날이 무딘 병기'로 해석하는 견해 → 화자는 지식인 또는 변방에서 국경을 지키는 군인으로 해석됨

2 표현 **후렴구의 기능과 효과**

㉠은 의미 없는 후렴구로, 이 작품에 나타나는 고독이나 슬픔의 정서와 상반되게 경쾌하고 명랑한 느낌을 주고 있다. 따라서 ㉠이 화자의 주된 정서를 집약적으로 나타낸다고 볼 수 없다.

오답노트 ❶ 특별한 의미 없이 노래의 악률을 맞추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매 연마다 반복되면서 노래의 흥을 돋우어 준다.

❷ 경쾌하고 명랑한 느낌을 주어 시의 내용과는 어울리지 않지만, 삶의 괴로움을 잊으려는 당시 사람들의 낙천성을 드러낸다.

❹ 'ㄹ', 'ㅇ'의 울림소리를 연속적으로 사용하여 경쾌한 음악적 효과를 얻고 있다.

❺ 1연부터 8연까지 마지막 행에 후렴구가 규칙적으로 반복되면서 작품 전체에 안정감과 통일감을 부여한다.

3 시어(구) **시어의 기능** + 표현 **표현상의 특징과 효과**

2연의 '새'는 화자가 동병상련을 느끼는 감정 이입의 대상으로 화자의 분신에 해당한다.

오답노트 ❷ ⓑ '바므란'은 고독과 절망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병상련과는 관련이 없다.

❸ ⓒ '에졍지'는 외딴 부엌을 의미하는 것으로 화자의 감정 이입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❹ ⓓ '사슴이'는 사슴으로 분장한 광대 또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절박한 심정을 드러내는 소재로, 화자의 감정 이입의 대상이 아니다.

❺ ⓔ '설진 강수'는 고뇌 해소의 수단을 뜻하는 것으로 화자가 감정을 이입하고 있는 대상과는 관련이 없다.

4 표현 **시상 전개의 구조**

이 작품은 5연과 6연의 위치를 바꿀 경우, 1연('청산')과 6연('바다'), 2연('우러라')과 5연('우니노라'), 3연('본다')과 7연('드로라'), 4연('엇디 호리라')과 8연('엇디 하리잇고')이 표현과 내용 면에서 서로 짝을 이루는 대칭적 구조가 된다.

오답노트 ❶ 이 작품은 5연과 6연의 순서를 바꿀 경우, 전반부인 1~4연은 '청산 노래', 후반부인 5~8연은 '바다 노래'로 나눌 수 있다.

❷ 2연의 '자고 니러 우니노라'와 5연의 '마자셔 우니노라'가 표현과 내용 면에서 서로 짝을 이룬다.

❸ 4연과 8연은 각각 '엇디 호리라', '엇디 하리잇고'와 같이 물음의 형식으로 끝나면서 해당 연의 시상을 마무리하는 기능을 한다.

❺ 1연은 '청산', 6연은 '바다'로 공간이 다르지만, 두 공간 모두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화자가 찾아가서 살려고 하는, 현실 도피의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독해 체크 본문 048쪽

❶ 유랑민 ❷ 바다 ❸ 새 ❹ 밤 ❺ 돌 ❻ 경쾌

어휘 체크 본문 049쪽

1 나마자기, 구조개 **2** ④ **3** ④

1 6연의 '나마자기 구조개랑 먹고'에서 '나마자기'는 나문재를, '구조개'는 굴과 조개를 뜻한다. 이는 바다에서 얻을 수 있는 소박한 먹을거리를 가리킨다.

2 '바므란'은 '밤은'이라는 뜻으로, 4연에서 낮은 이럭저럭 보냈으나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밤을 어찌 지낼 것인지 탄식하는 부분에 쓰였다.

3 '믜리'는 미워할 사람, '괴리'는 사랑할 사람을 뜻한다. 5연에서 화자는 자신을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는 처지에 까닭 없이 돌에 맞아 운다고 하여 운명적인 고독과 비애를 드러내고 있다.

실전 09

(가) 님이 오마 하거늘 | 작자 미상
(나) 동짓달 기나긴 밤을 | 황진이

사랑하는 누군가와 헤어져 있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아마도 그 사람을 그리워하며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겠죠? 두 작품은 헤어진 임을 기다리며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러한 화자의 정서가 작품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는지 감상해 봅시다.

가

갈래 사설시조
성격 해학적, 과장적
주제 임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
특징 • 의성어, 의태어를 사용해 화자의 행동을 과장해서 표현함
• 자연물을 임으로 착각하는 화자의 모습을 해학적으로 표현함

나

갈래 평시조
성격 서정적, 낭만적
주제 임을 기다리는 애절한 마음
특징 • 의태어를 사용하여 우리말의 묘미를 살림
• 추상적인 시간을 구체적인 사물로 형상화함

가

님이 오마 하거늘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 중문 나서 대문 나가 지방 위에 치달아 앉아 이수(以手)로 가액(加額)하고 (잘 보기 위해)
오는가 가는가 건넛산 바라보니 거머흿들 서 있거늘 저야 ㉡님 (검은 갓에 흰 두루마기를 입은 임으로 착각함)
이로다 ▶ 초장: 임을 애타게 기다림
「♪: 화자의 과장된 행동 묘사 – 임에 대한 그리움과 기다림을 표현함
『버선 벗어 품에 품고 신 벗어 손에 쥐고 곰븨님븨 님븨곰븨 (엎치락뒤치락 급하게 허둥지둥거리면서 – 의태어의 나열)
천방지방 지방천방 진 데 마른 데 가리지 말고 위렁충창 (의성어) 건너
가서』 정(情)엣말 하려 하고 곁눈을 흘깃 보니 상년(上年) 칠월 (살뜰히도(반어법))
사흗날 갉아 벗긴 ㉢주추리 삼대 살뜰이도 날 속였고나 (화자가 착각을 일으킨 대상)
▶ 중장: 임인 줄 알고 뛰어갔다 주추리 삼대임을 깨달음
모처라 밤일세망정 행여 낮이런들 남 웃길 뻔하괘라
▶ 종장: 자신의 착각을 쑥스럽게 여김

나

: 추상적인 시간을 구체적인 사물로 형상화함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 내어 (임이 없는 부정적인 시간)
▶ 초장: 동짓달 긴 밤의 한가운데를 베어 냄
춘풍(春風)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혹독한 겨울밤과 대비됨)
▶ 중장: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어 둠
㉤정든 임 오신 날 밤이어든 굽이굽이 펴리라 (임과 함께하는 긍정적인 시간)
△: 의태어 – 우리말의 묘미를 살린 표현
▶ 종장: 임이 오시는 밤에 굽이굽이 펴고자 함

(가) 님이 오마 하거늘 (나) 동짓달 기나긴 밤을

본문 050~051쪽

감상 스킬로 확인하기

가

화자·대상
• (가)의 화자는 임과 헤어져 지내는 상황에서 어떤 정서를 드러내고 있나요?
> 임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과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어요.

시어(구)
• (가)에서 화자가 임으로 착각한 대상은 무엇인가요? 주추리 삼대

표현
• (가)는 착각으로 인한 화자의 행동을 과장되게 묘사하여 웃음을 유발하고 있나요? (◯ ×)
(가)는 '주추리 삼대'를 임으로 착각한 화자가 조금이라도 임을 빨리 만나기 위해 허둥대는 행동을 과장되게 묘사하여 독자의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나

화자·대상
• (나)에는 임과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은 화자의 마음이 드러나 있나요? (◯ ×)
(나)의 화자는 동짓달의 긴 밤의 한가운데를 베어 내 임이 오시는 날 밤에 굽이굽이 폄으로써 임과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시어(구)
• (나)에서 초장의 '밤'과 종장의 '밤'은 각각 어떤 시간을 의미하나요?
> 초장의 '밤'은 임이 부재한 현실의 시간을, 종장의 '밤'은 화자가 소망하는 미래의 시간을 의미해요.

문제

1 ② 2 ③ 3 ② 4 ③

학습 노트

• **벽사창**: 짙푸른 빛깔의 비단을 바른 창.
• **해학성**: 익살스러운 태도로 힘들고 슬픈 상황을 웃음으로 표현하는 특성
• **석로**: 돌길.

1 화자·대상 **화자의 정서와 태도**

(가)와 (나)의 화자는 모두 임과 헤어져 있는 상황에서 임과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며, 임에 대한 절실한 기다림과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노트 ❶ (가), (나) 모두 임의 부재 상황은 맞지만, 임에 대한 화자의 원망은 나타나 있지 않다.
❸ (가), (나)의 화자는 모두 임과 헤어져 외롭게 지내는 상황이지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❹ (가), (나)의 화자가 임과 헤어진 상황은 맞지만, 절망적 슬픔에 빠져 있지는 않다.
❺ (가), (나)에서 이별의 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후회하는 화자의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2 시어(구) **소재의 기능**

〈보기〉의 화자는 창밖에 어른거리는 그림자를 임으로 착각해 뛰어나갔다가 자신의 착각임을 깨닫고 멋쩍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이 화자의 착각을 불러일으키면서 임에 대한 화자의 절실한 기다림과 그리움을 보여 주는 소재는 ㉢이다.

오답 노트 ❶ ㉠ '저녁밥'은 시간적 배경을 나타내는 소재이다.
❷ ㉡ '님'은 화자가 애타게 그리워하며 기다리는 대상으로, 화자는 이러한 그리움 때문에 주추리 삼대를 '님'으로 착각한 것이다. 즉 '님'은 착각의 대상일 뿐, 착각을 불러일으킨 소재는 아니다.
❹ ㉣ '동짓달 기나긴 밤'은 임이 없어 임과 함께하지 못하는 부정적 시간을 의미한다.
❺ ㉤ '정든 임 오신 날 밤'은 기다리고 그리던 임과 함께하는 긍정적인 시간을 의미한다.

알아 두기 (나)의 초장과 종장의 '밤'의 의미

동짓달 기나긴 '밤'(초장)	• 임이 부재한 부정적 시간 • 화자가 처한 현실
정든 임 오신 날 '밤'(종장)	• 임과 함께하는 긍정적 시간 • 화자가 소망하는 미래

3 표현 **해학적 표현의 효과**

화자가 임을 기다리다가 무언가 서 있는 것을 보고 임이라고 생각하여 우당탕 갔는데 주추리 삼대였다. 임인 줄 알고 허둥지둥 달려간 행동과, 자신의 착각을 깨닫고 겸연쩍어하는 모습이 독자에게 웃음을 준다.

오답 노트 ❶ 화자는 자신이 착각해서 한 우스꽝스러운 행동이 밤이라서 남에게 보이지 않은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밤'을 탓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❸ 기다리던 임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화자는 이른 저녁을 먹고 임을 기다리기 시작하는 것으로, 해학성과는 관련이 없다. 또한 진솔함에서 해학성을 찾기는 어렵다.

❹ 화자는 임을 기다리는 간절함에 마당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대문에 나가 기다리고 있다.

❺ 임이라고 생각하여 가는 모습을 과장되게 '진 데 마른 데 가리지 말고 위렁충창' 건너간다고 표현한 것은 위험해 보인다기보다는 웃음을 유발한다고 볼 수 있다.

알아 두기 (가)에 나타나는 표현의 해학성

해학적 요소
- 의성어, 의태어를 활용하여 화자의 행동을 과장되게 묘사함
- 주추리 삼대를 의인화하여 자신을 속였다고 말하며 실망감보다 멋쩍음을 드러냄

↓

웃음을 유발함

4 시어(구) **시어의 의미** + 화자·대상 **화자의 정서와 태도**

〈보기〉에서 '그를 슬퍼하노라'는 흔적이 남지 않아 화자 자신의 마음을 임이 모를 것이라는 아쉬움에서 나온 표현이므로 임을 원망하는 태도라고 볼 수 없다.

오답 노트 ❶ (나)의 화자는 1년 중 밤이 가장 긴 시기인 동짓달의 밤의 시간을 잘라서 임이 오는 날에 붙여서 임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려고 한다. 따라서 (나)의 '한 허리를 베어 내'는 것에는 임과 함께하게 될 밤의 시간을 늘리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이 담겨 있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❷ 〈보기〉의 '석로'는 화자가 꿈속에서 임을 보기 위해 임의 집으로 다니던 길이다. 이 길이 닳을 만큼 다녔다는 것은 그만큼 화자가 임을 보기 위해 많이 다녔다는 의미이므로, 임을 보고 싶어 하는 화자의 바람이 매우 큼을 드러낸 표현으로 볼 수 있다.

❹ (나)에서는 '정든 임 오신 날 밤'이라는 상황을 가정하여 임을 그리워하며 기다리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고, 〈보기〉에서는 '꿈에 다니는 길이 자취가 남는다면'이라는 상황을 가정하여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매우 큼을 나타내고 있다.

❺ (나)에서는 '밤'이라는 시간을 '베어 내'고 '서리서리 넣었다가' '굽이굽이' 펼 수 있는 구체적 사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보기〉에서는 이와 같이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 사물로 표현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독해 체크 본문 052쪽

❶ 그리움 ❷ 착각 ❸ 부정 ❹ 과장 ❺ 웃음 ❻ 밤 ❼ 서리서리

어휘 체크 본문 053쪽

1 ① **2** ④ **3** 굽이굽이 **4** ②

1 '상년(上年)'은 '이해의 바로 앞의 해.', 즉 지난해를 뜻하는 말이다. (가)의 '상년(上年) 칠월 사흗날'은 화자가 주추리 삼대의 껍질을 벗긴 때가 지난해 칠월임을 나타낸다.

2 '흘깃'은 '가볍게 한 번 흘겨보는 모양.'을 뜻한다. (가)에서는 화자가 정든 임인 줄 알고 가볍게 흘겨보는 모습에 쓰였다.

3 '굽이굽이'는 '여러 굽이로 구부러지는 모양.'을 뜻한다. 종장의 '굽이굽이 펴리라'는 베어 두었던 밤을 임과 함께하는 날에 펼쳐 놓겠다는 뜻이다.

4 〈보기〉의 '베어'는 '날이 있는 연장 등으로 무엇을 끊거나 자르거나 가르다.'라는 뜻이다. 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은 ②이다. ①과 ④는 누울 때 베개 등을 머리 아래에 받친다는 뜻, ③과 ⑤는 날이 있는 물건으로 상처를 낸다는 뜻으로 쓰였다.

실전 10 **훈민가** | 정철

다른 사람을 설득할 때는 어떤 표현을 사용해야 할까요? 이 작품은 백성들을 계몽하고 교화할 목적으로 지은 16수의 연시조로, 유교 윤리의 실천을 권장하는 노래랍니다. 작가는 백성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상어와 순우리말을 사용하고 청유형, 명령형 표현을 활용하고 있어요. 그럼 작가의 창작 의도가 작품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생각하며 작품을 감상해 봅시다.

갈래 평시조, 연시조(전 16수), 정형시
성격 계몽적, 교훈적, 설득적
주제 유교 윤리의 실천을 권장함
특징
- 백성들을 교화하려는 목적으로 창작됨
- 청유형, 명령형 표현을 통해 설득력을 높임
- 백성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순우리말과 일상어를 사용함

△: 명령형 표현 ┐ 실천을 권유하고 설득력을 높임
○: 청유형 표현 ┘

형아 아우야 네 살을 맡겨 보아라.

㉠ 누구에게서 태어났기에 모습조차 같은 것인가? □: 설의법

같은 젖 먹고 자라났으니 딴 마음을 먹지 마라. ▶ 제3수: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기를 권장함
동기간인 형제 사이의 우애를 권장함
〈제3수〉

어버이 살아 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 제4수: 부모님께 효도하기를 권장함
돌아가신 / 부모님께 효도할 것을 권장함
㉡ 디나간 후면 애달프다 어이하리.
관련 한자 성어: 풍수지탄(風樹之歎)
평생에 다시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효도
〈제4수〉

마을 사람들아 옳은 일 하자꾸나.
옳은 일을 할 것을 권장함
사람이 되어 나서 옳지를 못하면

㉢ 마소를 갓 고깔 씌워 밥 먹이나 다르겠는가? ▶ 제8수: 옳은 일을 할 것을 권장함
옳은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마소'와 같음
〈제8수〉

(어른이 움직이실 때 나의)
팔목 쥐시거든 두 손으로 받치리라.

㉣ 나갈 데 계시거든 막대 들고 좇으리라.

향음주 다 파한 후에 모셔 가려 하노라. ▶ 제9수: 어른을 공경할 것을 권장함
어른을 공손히 받들어 모심
〈제9수〉

㉤ 오늘도 다 새었다, 호미 메고 가자꾸나.
열심히 일할 것을 권장함
내 논 다 매거든 네 논도 매어 주마.
협동, 상부상조의 정신을 강조함
오는 길에 뽕 따다가 누에 먹여 보자꾸나. ▶ 제13수: 근면과 상부상조를 권장함
〈제13수〉

훈민가

본문 054~055쪽

감상 스킬로 확인하기

화자·대상

- 화자가 말을 건네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 각 수마다 형제, 이웃 등으로 달라지지만, 모두 백성에 해당해요.
- 화자는 계몽적, 설득적 태도를 보이고 있나요? (○×)
  이 작품은 명령형, 청유형 표현을 사용하여 백성에게 유교 윤리를 권장한다는 점에서 계몽적, 설득적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시어(구)

- 〈제4수〉에서 '평생에 다시 못할 일'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요? 효도
- 〈제13수〉의 '내 논 다 매거든 네 논도 매어 주마'에는 어떤 정신이 담겨 있나요?
  > 이웃 간에 서로 돕는 상부상조의 정신이 담겨 있어요.

표현

- 이 작품은 백성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나요? (○,×)
  이 작품에서는 백성들을 효과적으로 설득하기 위해 백성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순우리말을 사용하고 있다.

- 〈제3수〉와 〈제8수〉에 공통으로 활용된 표현 방법은 무엇인가요?
  > 설의법을 활용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고 있어요.

문제

1 ④ 2 ② 3 ⑤ 4 ⑤

학습 노트

- **지향하는:** 어떤 목표로 뜻이 쏠리어 향하는.
- **풍수지탄(風樹之歎):** 효도를 다하지 못한 채 어버이를 여읜 자식의 슬픔을 이르는 말.

1 화자·대상 화자의 특징

화자는 시적 대상인 백성들에게 유교 윤리를 강조하며, 이를 실천할 것을 권장함으로써 자신이 지향하는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노트 ❶ 〈제13수〉의 '내 논 다 매거든'을 통해 화자가 논을 매는 농민임을 알 수 있다.

❷, ❸ 화자는 명령형, 청유형 표현을 사용하여 유교 윤리를 가르치고 있으므로 강압적 어조가 아니라 계몽적, 설득적 어조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백성들에게 유교 윤리를 권장한다는 점에서 화자는 비판적 태도가 아니라 계몽적, 교훈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❺ 〈제3수〉, 〈제4수〉, 〈제8수〉, 〈제9수〉, 〈제13수〉에서 화자가 과거를 회상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알아 두기 「훈민가」의 창작 목적

	중심 내용	유교 덕목
<제3수>	형제간의 우애	오륜
<제4수>	부모에 대한 효도	오륜
<제8수>	올바른 행동	자치 질서
<제9수>	어른에 대한 공경	오륜
<제13수>	근면과 상부상조	자치 질서

↓

유교 사상이 밑바탕이 되어, 유교적 교화를 목적으로 창작됨

2 표현 표현상의 특징

이 작품에서는 청유형 표현 '하자꾸나', '가자꾸나', '보자꾸나'를 통해 대상을 예찬하는 것이 아니라, 유교 윤리를 실천할 것을 제안함으로써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오답 노트 ❶ 이 작품에서는 작가가 양반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효과적으로 설득하기 위해, 백성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순우리말을 사용하고 있다.

❸ 이 작품에서는 형제, 부모, 이웃과 같이 백성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인간관계를 설정하고, 평이하고 정감이 느껴지는 어휘로 그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도리를 그려 내고 있다.

❹ 이 작품에서는 화자가 청자인 백성들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

❺ 이 작품에서는 유교 윤리의 가르침과 관련된 내용을 명령형 표현을 통해 백성들에게 직설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유교 윤리의 실천을 강조하고 전달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알아 두기 작가 '정철'의 창작 의도

조선 선조 때 정철이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했을 때 지은 시조로, 관찰사로서 백성들이 바람직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자 함

↓

표현 방법

- 일상어와 순우리말을 사용함
- 일상적인 소재를 사용함
- 바람직한 삶을 권장하는 명령형, 청유형 표현을 효과적으로 사용함

배경지식 우리말의 종결 표현

종결 표현이란 문장을 끝내는 데 쓰이는 표현을 말한다. 국어의 문장은 종결 어미의 형태에 따라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의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평서문	말하는 이가 하고 싶은 말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진술하는 문장 예 집에 간다.
의문문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질문하여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 예 집에 가니?
명령문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무엇을 시키거나 행동을 요구하는 문장 예 집에 가.
청유문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함께 행동할 것을 요청하거나 제안하는 문장 예 집에 가자.
감탄문	말하는 이가 듣는 이를 거의 의식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의 느낌을 표현하는 문장 예 집에 가는구나!

3 시어(구) 시어(구)의 의미 + 표현 표현상의 특징

㉤에서 '새었다'는 '(날이) 밝았다.'의 의미로, 날이 밝았으니 호미를 메고 일하러 갈 것을 권장하는 것은 농민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의 바람직한 태도와 관련이 있다.

오답 노트 ❶ ㉠의 '모습조차 같은 것인가?'는 화자가 말을 건네는 대상인 형과 아우의 외모가 닮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❷ ㉡은 부모가 살아 계실 때 섬기지 못하면 돌아가신 후에는 소용이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효도를 다하지 못한 채 어버이를 여읜 자식의 슬픔을 의미하는 한자 성어인 '풍수지탄(風樹之歎)'과 관련이 있다.

❸ ㉢은 '마소와 같은 가축에게 갓 고깔을 씌워서 밥을 먹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라는 의미를 지닌 설의적 표현으로, 사람답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마소'에 빗대어 나무라고 있는 것이다.

❹ ㉣은 '나갈 데 계시거든'이라는 상황을 가정하여, 지팡이를 들고 어른의 뒤를 따르겠다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어른을 공경하는 태도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4 주제 각 수에 담긴 작품의 주제

〈제13수〉에서 화자는 농사일에 부지런히 힘쓰고 서로 도울 것을 권하고 있다. 이는 백성들이 일상생활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에 해당하며, 이웃과 어울려 친분을 쌓자는 것과는 다르다.

오답 노트 ❶ 〈제3수〉에서는 형과 아우에게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낼 것을 권장한다.

❷ 〈제4수〉에서는 나중에 후회하며 슬퍼하지 말고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효도할 것을 권장한다.

❸ 〈제8수〉에서는 마을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행동하며 살아갈 것을 권장한다.

❹ 〈제9수〉에서는 어른을 공경할 것을 권장한다.

알아 두기 작품이 창작된 시기의 사회·문화적 상황

유교 사상이 생활의 바탕이 됨

↓

- 부모에 대한 효를 중요하게 생각함
- 장유유서(長幼有序: 어른과 어린이 사이의 도리는 엄격한 차례가 있고 복종해야 할 질서가 있음을 이르는 말)와 노인 공경을 중요하게 생각함
- 농업을 근간으로 하고 있었으며, 농사일을 할 때 상부상조(相扶相助: 서로서로 도움)의 정신으로 협동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함

독해 체크 본문 056쪽

❶ 형 ❷ 마을 ❸ 계몽 ❹ 효도 ❺ 근면 ❻ 순우리말 ❼ 이해

어휘 체크 본문 057쪽

1 ② **2** ⑤ **3** (1) ㉣ (2) ㉢ **4** ⑤

1 '어버이'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므로 '부모'와 바꾸어 쓸 수 있다. 〈제4수〉에서는 부모가 살아 계실 때 정성을 다해 섬기라는 뜻을 전하고 있다.

2 '파하다'는 '어떤 일을 마치거나 그만두다.'라는 뜻이다. 〈제9수〉의 '향음주 다 파한 후에'는 마을에서 함께 술을 마시는 자리가 끝난 뒤라는 의미이다.

3 (1)은 객지의 아들을 걱정하는 내용이므로, '마음이 안타깝거나 쓰라리다.'라는 뜻의 '애달프다'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2)는 이웃 어른을 부모처럼 여기며 해마다 찾아뵙는다는 내용이므로 '신(神)이나 윗사람을 잘 모시어 받들다.'라는 뜻의 '섬기다'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4 〈보기〉의 '매다'는 '논밭에 난 잡풀을 뽑다.'라는 뜻이다. 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은 ⑤이다. ①과 ②는 끈이나 줄의 두 끝을 엇걸어 잡아당기어 풀어지지 않게 마디를 만든다는 뜻, ③은 달아나지 못하도록 고정된 것에 잇대어 묶는다는 뜻, ④는 끈이나 줄 등을 어떤 물체에 단단히 묶어서 건다는 뜻으로 쓰였다.

2 소설

예제 01 달밤 | 이태준

착하고 순수하지만 어리숙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소외당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볼 수 있어요. 이 작품의 황수건 역시 그런 사람이지요. 황수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이 인물에 대해 작가는 어떤 태도를 보여 주고 있는지 살펴보며 글을 감상해 봅시다.

갈래 단편 소설
성격 서정적, 애상적
주제 각박한 세상에 적응하지 못한 황수건의 삶에 대한 연민
특징
- 세밀하고 감각적인 묘사를 통해 인물과 사건을 선명하게 제시함
- 주인공의 성격을 보여 주는 여러 가지 일화를 나열하는 구성을 취함
- '달밤'이라는 서정적인 배경을 통해 비극성을 심화시키지 않고 독자에게 여운을 남김

달밤 ①

본문 064~065쪽

감상 스킬로 확인하기

인물·사건
- (가)에서 황수건이 들떠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 원 배 달 이 되어 배달복을 입고 방울을 찰 생각 때문에 들떠 있어요.
- 황수건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평가가 반영된 2음절의 말은 무엇인가요? 반편

서술
- 이 글의 서술자와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 서술자는 (나 황수건)이고, 주인공은 ('나', 황수건)이에요.
- 새로 온 신문 배달부를 통해 황수건의 소식을 들은 후 '나'의 심리가 직접 제시된 부분이 있나요?
> '못 만나는 섭섭분이 아니라 마음이 아프기도 하였다.', ' 야박함이 원망스럽기도 하였다. '라는 부분에서 자신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문제

1 ③ **2** ③ **3** ③

1 인물·사건 **인물의 심리와 태도**

㉡은 방울 소리를 듣고 황수건이 왔을 것이라 생각한 '나'의 반가움이 드러난 것이다. 배달원이 다른 사람으로 바뀐 것을 안 것은 ㉢ 이후의 일이므로, 황수건 대신 온 배달원에 대한 괘씸한 마음이 드러난 것이라 볼 수 없다.

오답노트 ❶ 내일부터 원배달이 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고 신이 나서 돌아가는 황수건의 모습에서 기대감과 자랑스러움을 확인할 수 있다.

❷ 원배달이 되어 오겠다고 한 날 그가 오지 않은 것은, 원배달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 어긋나는 상황이 전개될 것임을 암시한다.

❹ 황수건을 '반편'이라고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 새로 온 배달부가 황수건을 모자란 사람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❺ '그 당자와 함께'라는 표현에서 '나'가 황수건의 처지에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세상의 야박함이 원망스럽기도 하였다'에서 황수건을 좌절하게 한 각박한 현실에 대한 원망이 드러난다.

알아 두기 글에 반영된 시대상

이 글이 창작된 1930년대는 일제 강점기로, 경제 불황 속에 실업자와 빈민이 늘어 많은 조선인이 어려운 삶을 살았다. 작품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황수건처럼 어리숙하고 현실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인물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소외되는 모습을 보여 준다.

2 서술 **서술상 특징**

이 글은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이야기 안에 등장하는 인물인 '나'가 황수건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여 전달하고 있다.

오답노트 ❶ 이 글은 이야기 안의 서술자인 '나'가 자신이 아니라 황수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❷ 이 글의 서술자인 '나'는 이야기 밖이 아니라 이야기 안에 있으며, 다른 인물의 내면 심리를 직접 알려 주지는 못한다.

❹ 이 글에는 황수건에 대한 '나'의 주관적인 정서가 드러나 있지만, 이를 통해 인물들의 성격이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 주지는 않는다.

❺ '나'는 황수건에게 호의와 연민을 드러내므로, 인물과 거리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알아 두기 1인칭 관찰자 시점과 그 효과

이야기 안에 등장하는 '나'가 황수건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여 전달함

↓

- 서술자인 '나'의 태도를 통해 주제 의식을 드러냄
- 인물의 내면을 직접 알 수 없어 독자가 그 심리를 짐작하며 읽게 됨

3 인물·사건 **인물의 심리와 태도**

'나'는 황수건이 보조 배달부 자리마저 잃은 데 대한 안타까움을 '친구가 큰 사업에나 실패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이라고 비유했을 뿐, 황수건이 실제로 사업에 실패한 것은 아니다.

▶ 정답의 근거

다 나는 가까운 친구를 먼 곳에 보낸 것처럼, 아니 친구가 큰 사업에나 실패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못 만나는 섭섭분이 아니라 마음이 아프기도 하였다. 그 당자와 함께 세상의 야박함이 원망스럽기도 하였다.

(황수건이 실제로 사업에 실패한 것은 아님 / 황수건의 처지에 공감하며 현실의 야박함을 원망하는 '나')

오답노트 ❶ 원배달이 된다는 소식을 '나'에게 알리며 신이 난 황수건의 모습에서 그의 소박하고 순수한 성품이 드러난다.

❷ 황수건은 원배달이 되기는커녕 보조 배달부 자리마저 잃게 되는데, 이는 〈보기〉에서 말한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 삶의 일부를 보여 주는 것이다.

❹ 황수건이 보조 배달부 자리마저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섭섭해하고 마음 아파하는데, 이는 황수건에 대한 '나'의 애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❺ 황수건의 소식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나'의 태도에서 작가의 따뜻한 시선이 드러난다.

달밤 ②

본문 066~067쪽

감상 스킬로 확인하기

인물·사건

- (마)에서 알 수 있는 황수건이 '나'를 찾아온 까닭은 무엇인가요?
  > 우 두 를 넣지 말라는 말을 '나'에게 해 주기 위해 찾아왔어요.
- '나'는 황수건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나요?
  > 황수건의 엉뚱한 말에도 호 의 적 인 태도로 대꾸해 주고 있어요.

배경·소재

- 황수건은 새 급사의 힘을 시험해 보기 위해 삼산학교 대문 앞에 무엇을 가져다 놓았나요? 큰 돌멩이

서술

- 이 글에서 황수건과 '나'의 대화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 황수건의 성격과 그를 대하는 '나'의 태도를 간 접 적 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문제

4 ② **5** ① **6** ④

4 서술 서술 방식

'나'와 황수건의 대화를 통해 황수건이 삼산학교의 급사로 다시 들어가려 한다는 것과 엉뚱하고 어리석지만 순수하고 따뜻한 황수건의 성격을 제시하고 있다.

▶ 정답의 근거

라 "제가 거길 또 들어가 볼랴굽쇼, 운동을 합죠." / 한다.
(삼산학교 급사로 다시 들어가려는 황수건)
"어떻게 운동을 하오?"
"그까짓 거 날마다 사무실로 갑죠. 다시 써 달라고 졸라 댑죠.
(다시 급사가 되기 위해 계속 부탁하려는 황수건)
아, 그랬더니 새 급사란 녀석이 저보다 크기도 무척 큰뎁쇼,
(새 급사를 경쟁 상대로 의식하는 황수건)
이 녀석이 막 불근댑니다그려. 『그래 한번 쌈을 해야 할 턴뎁쇼, 그 녀석이 근력이 얼마나 센지 알아야 뎀벼들 턴뎁쇼……, 허.』
(『 』: 문제의 해결 방법을 싸움에서 찾는 황수건의 엉뚱한 생각)

오답 노트 ❶ 황수건과 새 급사 사이의 갈등이 언급되기는 하지만, 인물 간의 대립이 점차 심화되는 과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❸ '나'가 황수건에게 질문을 하고 황수건이 이에 대답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황수건의 처지와 생각, 성격 등이 드러날 뿐 사건의 숨겨진 의미가 밝혀지지는 않는다.

❹ 황수건이 과거 삼산학교에서 급사로 일했던 사실은 대화를 통해 드러날 뿐, 서술자의 논평을 통해 현재 사건의 원인이 된 과거 사건을 밝히지는 않는다.

❺ 두 사람의 대화는 '나'의 집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병렬적 구성을 통해 서로 다른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보여 준다고 볼 수 없다.

5 배경·소재 소재의 의미와 기능

황수건은 삼산학교의 급사로 다시 들어가려 하면서 새 급사와 싸울 생각을 하고, 그에게 덤빌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 대문에 돌멩이를 가져다 놓는다. 이는 다시 채용되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는 관계없는 행동으로, 사건의 해결책을 엉뚱한 곳에서 찾는 황수건의 어리석음을 보여 준다.

오답 노트 ❷ 황수건이 돌멩이를 가져다 놓은 것은 새로 온 급사의 근력을 확인해 보기 위한 것이지 그를 도우려는 것이 아니다. 또한 새로 온 급사가 황수건보다 힘이 약한 사람도 아니다.

❸ 황수건이 돌멩이를 가져다 놓은 것은 새 급사에게 덤벼들 수 있을지 가늠해 보려는 것이지, 상대를 이길 방법을 준비한 것이 아니다. 또한 돌멩이 하나로 남의 근력을 알아보려는 발상은 치밀함이 아니라 엉뚱함을 보여 준다.

❹ 황수건이 삼산학교에 다시 들어가려 애쓰는 것은 사실이나, 돌멩이를 가져다 놓은 일은 그가 자리를 잃은 근본적인 원인과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려는 행동으로 볼 수 없다.

❺ 돌멩이를 삼산학교 대문에 가져다 놓은 것은 황수건으로, 새 급사가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가져다 놓은 것이 아니다. 또한 새 급사가 교만과 허세를 지녔는지는 이 글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6 인물·사건 인물의 처지와 상황

삼산학교 학생들이 자신을 선생들보다 낫게 여긴다는 것은 황수건 자신의 생각일 뿐, 실제로 그가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처지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볼 근거는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노트 ❶ 고맙다는 '나'의 말에 좋아서 벙긋거리며 머리를 긁는 모습에서 황수건의 순박하고 천진난만한 성격을 알 수 있다.

❷ 삼산학교 급사였다가 밀려난 것으로 보아, 냉정한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실패하여 사회의 중심에서 밀려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❸ 우두를 넣으면 사람의 근력이 없어진다는 근거 없는 생각을 사실로 믿는 모습에서 황수건의 무지하고 어리숙한 면모를 엿볼 수 있으며, 이를 〈보기〉의 '배움이 부족한 사람'과 연결할 수 있다.

❺ 근거가 없는 생각이기는 하지만 '나'에게 우두를 넣지 말라고 일러 주려고 일부러 찾아온 것을 보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임을 알 수 있다.

달밤 ③

본문 068~069쪽

감상 스킬로 확인하기

인물·사건

- (자)에서 '나'는 오랜만에 황수건을 보고 어떤 행동을 했나요?
  > 아는 체하려다 황수건이 '나'를 보면 무안해할 일이 있는 것을 떠올리며 일부러 나무 그늘에 몸을 감추었어요.

배경·소재

- '돈 삼 원'은 어떤 역할을 하는 소재인가요?
  > 황수건에 대한 '나'의 애정과 연 민 이 드러나는 소재예요.
- 황수건이 '나'에게 참외 세 개와 포도 대여섯 송이를 준 까닭은 무엇인가요?
  > '나'에 대한 고 마 움 을 표현한 것으로, 황수건의 순박한 정을 보여 주고 있어요.

서술

- (사)에서 서술자는 황수건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전달하고 있나요?
  > 황수건에게 닥친 연속된 불행을 요 약 적 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문제

7 ⑤ **8** ③ **9** ④

7 인물·사건 인물의 상황 및 인물의 태도

'나'는 황수건이 주고 간 대여섯 송이의 포도를 '그의 은근한 순정의 열매'라고 생각하며 오래 바라보고 아껴 먹는다. 즉 '나'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 황수건이 훔쳐 온 포도를 맛보며 그의 순박하고 진실한 마음씨를 느끼는 것이다.

오답 노트 ❶ '나'는 참외 장사라도 해 보라고 황수건에게 '돈 삼 원'을 주지만, 이내 장마가 들어 황수건은 밑천만 까먹게 된다.
❷ 황수건의 아내가 집을 나간 것은 동서가 못 견디게 굴었기 때문이다.
❸ 황수건은 뒤따라온 사람에게 끌려 나갔고 이후 어느 틈에 사라졌을 뿐, 포도원 주인을 피해 재빠르게 몸을 감추었다고 볼 수 없다.
❹ 새하얗게 질린 것은 '나'가 아니라 황수건이다. '나'는 황수건이 끌려 나가는 것을 보고 쫓아 나가 매를 말리고 포도값을 물어 준다.

8 배경·소재 **소재의 의미**
참외 세 개(㉡)와 포도(㉢)는 모두 황수건이 '나'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가져온 것들이다.
오답 노트 ㉠ '돈 삼 원'은 황수건에 대한 '나'의 호의와 도움을 보여 준다.
㉣ '노래'는 삶에 지친 황수건의 모습과 심리를 반영한다.
㉤ '담배'는 황수건의 답답한 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소재이다.

알아 두기 **황수건이 겪은 주요 사건들**

- 삼산학교 급사 자리에서 밀려남
- 똑똑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신문 원배달이 되지 못하고, 보조 배달부 자리마저 잃음
- '나'가 준 돈으로 참외 장사를 시작하나, 장마가 들어 밑천만 까먹음
- 동서의 구박을 견디지 못해 아내가 달아남
- '나'에게 주려고 포도를 훔쳤다가 들킴

↓

황수건에게 닥친 연이은 좌절과 불행

↓

냉정한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회에서 소외된 인물임을 부각함

9 배경·소재 **배경의 기능**
(자)에서 '나'는 황수건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볼 뿐, 인물 사이의 갈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보기〉의 '달밤'이 허 생원으로 하여금 과거의 일을 떠올리게 하는 것은 맞지만, (자)의 '달밤'이 갈등을 심화시킨다고 볼 수는 없다.
오답 노트 ❶, ❸ (자)와 〈보기〉는 모두 '달빛'이 비치는 밤을 배경으로 하여 서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❷ (자)에서는 '불빛 없는 성북동 길 위에는 달빛이 깁을 깐 듯하였다.', 〈보기〉에서는 '이지러는 졌으나 보름을 가제 지난 달은 부드러운 빛을 흐붓이 흘리고 있다.'라고 하여 달빛이 비치는 배경을 묘사하고 있다.
❺ (자)에는 삶에 지친 황수건의 슬픈 모습이 나타나는데, 달밤은 애상적인 분위기를 형성하여 이러한 황수건의 슬픈 처지를 부각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보기〉에서는 인물들이 이동하는 공간에 서정성을 부여하고 있을 뿐, 인물의 슬픈 처지를 드러내지는 않고 있다.

알아 두기 **'달밤'의 기능**

서정적이고 애상적인 분위기 조성	황수건의 좌절과 상처를 부각함	황수건에 대한 '나'의 연민이 투영됨

↓

슬픔과 비애가 느껴지지만, 서정적 분위기가 이를 감싸 비극성이 완화되어 드러남

예제 02

꺼삐딴 리 | 전광용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신의 신념을 우직하게 지키며 살아가기도 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자신에게 이로운 쪽으로 행동하며 살아가기도 하지요. 이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이인국'은 격변하는 시대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며 살고 있는지, 오늘날의 관점에서 그의 삶은 어떻게 평가되어야 할지 작품을 감상해 봅시다.

갈래 단편 소설, 풍자 소설
성격 냉소적, 풍자적, 비판적, 고발적
주제 시대와 상황에 따라 빠르게 변신하는 기회주의자의 삶에 대한 비판
특징
- 일제 강점기, 소련군 주둔 시기, 6·25 전쟁 이후 1950년대를 배경으로 함
- 급변하는 시대에 재빠르게 대응하는 인물의 모습을 그림으로써 기회주의자의 삶을 풍자함
- 현재 시점에서 과거와 현재의 사건을 서로 교차적으로 서술함

꺼삐딴 리 ①

➔ 본문 070~071쪽

감상 스킬로 확인하기

인물·사건
- (가)와 (나)에서 이인국이 불안과 초조를 느끼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 친일파를 타도하자는 내용의 벽보를 보고, 자신이 한 친일 행위로 처벌받거나 보복당할까 봐 불안했기 때문이에요.

배경·소재
- (다)의 '국어(國語) 상용(常用)의 가(家)'란 문구에서 '국어'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일본어

문제

1 ② **2** ⑤ **3** ④ **4** ④

1 인물·사건 **인물의 상황**
(라)에서 사람들은 소련군의 탱크 부대를 향해 만세를 부르며 기쁘게 맞이하지만, 이인국은 박수도 환성도 보내지 못한 채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 오히려 자신의 거동을 누군가 주시하는지 걱정하며 불안해하고 있으므로 ②는 적절하지 않다.

▶ 정답의 근거

라 이인국 박사는 자기와는 아무 관련도 없는 이방 부대라는 환각을 느끼면서 박수도 환성도 안 나가는 멋쩍은 속에서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다. 『그는 자기의 거동을 주시하지나 않나 해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그러나 아무도 그에게는 관심을 두는 일 없이 탱크를 향하여 목청이 터지도록 거듭 만세만 부르고 있지 않은가.』/ '어떻게 되겠지…….'

(자기와는 아무 관련도 없는 이방 부대라는 환각을 느끼면서: 소련군을 자신과 무관한 존재로 느끼는 이인국)
(박수도 환성도 안 나가는 멋쩍은 속에서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다: 소련군을 기쁘게 맞이하지 못하는 이인국)
(『그는 자기의 거동을 주시하지나 않나 해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는지 걱정함)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는 관심을 두는 일 없이 탱크를 향하여 목청이 터지도록 거듭 만세만 부르고 있지 않은가.』: 소련군을 환영하는 사람들과 이인국의 태도가 대조됨)
('어떻게 되겠지…….': 불안한 상황에서 막연히 자기 위안을 함)

오답 노트 ❶, ❺ (가)에서 이인국은 해방 이후 자신이 저지른 친일 행위 때문에 처벌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과 초조'에 휩싸여 자신에게 닥쳐올 사태를 걱정하고 있다. 또한 (라)에서 소련군의 탱크 부대를 '자기와는 아무 관련도 없는 이방 부대'로 느끼고 박수나 환성도 보내지 않는 모습에서 광복을 달가워하지 않는 태도가 드러난다.

❸ (라)의 '그는 자기의 거동을 주시하지나 않나 해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를 통해,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지 걱정하는 이인국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❹ (나)의 '어제 저물녘에 그것(친일파를 타도하자는 벽보)을 처음 보았을 때의 전율이 되살아왔다.'를 통해 친일파를 처벌하려는 분위기에 두려움을 느끼는 이인국의 모습을 알 수 있다.

2 인물·사건 인물의 심리와 태도

㉠에서 이인국이 불안과 초조를 느끼는 이유는 일제 강점기에 친일했던 민족 반역자들을 찾아 벌주고자 하는 내용의 벽보를 보고, 자신 또한 친일 행위로 인해 죗값을 치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오답 노트 ❶ 친일 행위를 했던 이인국은 해방의 감격을 만끽할 수 없는 입장이다.

❷, ❹ 춘석과 눈이 마주친 일과 북쪽에 소련군이 들어온다는 사실은 이인국에게 꺼림칙하고 혼란스러운 일이기는 했지만, 잠을 못 잘 정도의 불안감과 초조함을 느끼게 한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

❸ 일본군이 아직 다 떠나지 않았다는 내용은 이 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이것이 이인국의 불안과 초조의 원인이라고 볼 근거도 없다.

배경지식 광복 직후의 친일파 청산 분위기

광복 직후에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에 협력한 친일파와 민족 반역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친일 행적이 있던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 때문에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하기도 했다. 이인국이 '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타도하자.'라는 벽보를 보고 불안과 초조를 느끼는 것도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관련이 있다.

3 종합 작품의 구성 및 표현상 특징

이 글은 현재와 과거를 오가는 역순행적 구성을 보이지만, 과거의 사건은 이인국의 회상으로 제시될 뿐 이야기 속에 독립된 또 다른 이야기가 들어 있는 액자 소설은 아니다.

오답 노트 ❶ 이 글은 일제 강점기 말부터 8·15 광복, 1950년대 6·25 전쟁 전후를 배경으로 한다.

❷ 이 글은 6·25 전쟁 이후의 현재에서 광복 직후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역순행적 구성을 보인다.

❸, ❺ '꺼삐딴'은 영어의 '캡틴(captain)'에 해당하는 러시아어 '꺼삐딴'으로, 해방 후 북한에서 '우두머리, 최고'의 뜻으로 쓰였다. 이는 시대의 변화 속에서 기회주의적 행동으로 살아남은 이인국의 태도를 암시하고 풍자한 것이다.

알아 두기 「꺼삐딴 리」의 역순행적 구성

현재	미국행을 위해 브라운 씨를 만나러 가며 회중시계를 봄
과거	일제 강점기에 일본에 붙어 처세함
현재	미국 대사관으로 가는 자동차 안에서 신문을 봄
과거	해방 직후 소련에 붙어 처세함
현재	브라운 씨에게 선물을 주고 미국행을 위한 협조를 얻음

4 배경·소재 소재의 의미

액자 틀에 담겨 있던 종잇장에 적힌 '국어 상용의 가'라는 문구는 '국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집'이란 뜻으로, 여기서 말하는 '국어'란 일제 강점기에 사용을 강요하던 일본어를 말한다.

오답 노트 ❶, ❷ 이인국은 벽장문을 열고 안쪽에 손을 뻗쳐 액자 틀을 끄집어낸 후, 액자 틀 뒤를 열어 '국어(國語) 상용(常用)의 가(家)'라고 적힌 두터운 모조지를 꺼내어 꼼꼼히 찢었다.

❸ '이 종잇장 하나만 해도 일본인과의 교제에 있어서 얼마나 떳떳한 구실을 할 수 있었던 것인가.'를 통해 알 수 있다.

❺ '국어 상용의 가'라는 종잇장은 이인국의 친일 행위를 보여 주는 것이므로, 이인국은 자신의 친일 행적을 지우기 위해 이를 꼼꼼히 찢은 것이다.

꺼삐딴 리 ②

본문 072~073쪽

감상 스킬로 확인하기

인물·사건

- 이인국 박사가 아들에게 '노어'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소련의 영향력이 커진 상황에 적응하여 출세하고 살아남기 위함이에요.

서술

- 이 글은 어떤 시점에서 전개되고 있나요?
  > 3인칭 전지적 시점으로, 서술자가 작품 밖에서 인물의 내면까지 전달하고 있어요.
- 이 글은 어떠한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나요?
  > 이 글은 현재와 과거를 넘나드는 역순행적 구성이에요.

문제

5 ⑤ 6 ⑤ 7 ④

5 인물·사건 인물의 성격 + 주제 작가의 의도

[A]는 일제 강점기에 친일 행적으로 부와 사회적 지위를 누렸던 이인국이 이번에는 소련군 주둔이라는 상황에 편승하여, 아내의 반대에도 아들의 소련 유학을 밀어붙인 부분이다. 이를 통해 이인국의 자기중심적이고 출세 지향적인 모습을 알 수 있다.

정답의 근거

사 『이인국 박사는 끝내 스텐코프 소좌의 배경으로 요직에 있는 당 간부의 추천을 받아 아들의 소련 유학을 결정짓고야 말았다.』
「」: 권력자의 도움을 이용해 아들의 출세를 꾀하는 이인국

『"여보, 보통으로 삽시다. 거저 표 나지 않게 사는 것이 이런 세상에선 가장 편안할 것 같아요. 이제 겨우 죽을 고비를 면했는데 또 재까지 그 '높이 드는' 복판에 휘몰아 넣으면 어쩔라구……."』
「」: 아들의 출세보다 안전을 걱정하며 유학을 반대하는 아내

"가만있어요, 호랑이두 굴에 가야 잡는 법이오. 무슨 세상이 되든 할 대로 해 봅시다." 〈중략〉 / 아들의 출발을 앞두고, 걱정하는 마누라를 우격다짐으로 무마하고 그는 아들 유학을 관철하였다.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출세의 기회를 잡으려는 태도
시대 변화에 적극적으로 편승하려는 기회주의적 태도
아내의 반대에도 자신의 뜻을 밀어붙이는 자기중심적 태도

오답 노트 ❶ 이인국은 아들의 소련 유학에 대해 불안정하고 예민한 정서를 내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신에 차 있다.

❷ 이인국의 말투는 단호하지만 폭력적이지는 않다.
❸ 이인국은 시대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으므로, 운명에 순응하는 체념적인 태도와는 반대되는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❹ '무슨 세상이 되든 할 대로 해 보자'는 이인국의 말에서 과거에 집착하기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삶의 방향을 빠르게 바꾸는 이인국의 기회주의적 면모를 엿볼 수 있다.

6 서술 **서술 시점**

이 글은 서술자가 전지적인 위치에서 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전달하는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고 있다. 또한 풍자와 비판의 대상인 이인국에 대해 비판적인 거리를 유지하며 그의 부정적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노트 ❶ 1인칭 주인공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❷, ❸ 모두 작품 속 인물이 서술자로 설정된 경우에 해당하지만, 이 글의 서술자는 작품 밖에서 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전달한다.
❹ 3인칭 관찰자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7 인물·사건 **사건의 전개 과정** + 서술 **구성 방식**

이 글은 역순행적 구성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시간의 순서에 따라 재배열하면, (차)~(카)는 광복 직후 소련군 진주 무렵, (바)~(아)는 소련군 주둔 시기부터 6·25 전쟁 중, (마)와 (자)는 6·25 전쟁 이후의 현재 시점에 해당한다.

꺼삐딴 리 ③

본문 074~075쪽

감상 스킬로 확인하기

인물·사건

- 이인국 박사가 감방에서 벗어날 기회로 삼은 것은 무엇인가요?
  > '스텐코프의 오리알만 한 혹'을 수술해 주는 것을 감방에서 벗어날 기회로 삼았어요.
- 감방에 갇힌 이인국 박사는 스텐코프에게 접근하기 위해 어떻게 했나요?
  > 생명의 열쇠와도 같은 노어를 열심히 공부했어요.

주제

- 이 글에서 이인국의 기회주의적 행태를 풍자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가 담겨 있는 말은 2어절로 무엇인가요? 꺼삐딴 리

문제

8 ② **9** ④ **10** ③

8 인물·사건 **인물의 의도**

친일 행위 등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있던 이인국은 소련군 장교인 스텐코프의 혹 제거 수술에 성공하고 그의 신임을 얻은 것이 감방에서 풀려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오답노트 ❶, ❺ 노어를 익혀 스텐코프와 인사말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스텐코프에게 접근하여 혹 제거 수술을 제안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감방에서 풀려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아니다.
❸ 이인국이 감방 속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은 것은 주변 상황의 변화를 민감하게 살피기 위해서이다.
❹ 이인국이 복막염 환자의 실을 뽑던 중 스텐코프에게 혹 제거 수술을 제안한 것은 맞지만, 이는 수술을 제안할 기회가 되었을 뿐 감방에서 풀려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아니다.

9 인물·사건 **인물의 태도** + 주제 **작가의 의도**

'꺼삐딴'은 '우두머리, 최고'라는 뜻이다. '꺼삐딴 리'는 이인국 박사가 자신의 혹을 성공적으로 제거해 준 뒤 스텐코프가 그를 부르는 호칭으로, 이인국 박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음을 보여 준다.

오답노트 ❶ '리(李)'는 이인국의 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꺼삐딴 리'는 이인국 박사를 부르는 호칭이다.
❷ '꺼삐딴'은 '우두머리, 최고'를 뜻하는 말이므로, 스텐코프가 이인국 박사를 치켜세우며 고마움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❸, ❺ 이 글의 제목이기도 한 '꺼삐딴 리'에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권력에 편승하며 살아가는 이인국의 기회주의적 삶의 태도를 비판하고 풍자하려는 작가의 의도가 담겨 있다.

10 주제 **외재적 관점에 따른 창작 의도**

〈보기〉는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하여 창작된 작품들의 다양한 창작 의도(주제)에 대한 설명이다. 이 글은 일제 강점기 말부터 1950년대를 배경으로, 우리 민족의 수난기에 시류에 편승하여 기회주의적 삶을 살았던 이인국이라는 인물의 삶을 비판하고 풍자하는 작품이므로, ⓒ의 창작 의도와 같은 맥락에서 창작된 작품이다.

알아 두기 기회주의적 인물

시대나 권력의 변화에 따라 자신의 이익과 출세를 위해 태도와 행동을 바꾸는 인물을 기회주의적 인물이라고 한다. 이러한 인물은 일정한 신념이나 가치관을 지키기보다 그때그때 자신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한다. 이인국은 일제 강점기에는 일제의 권력에 편승하고, 광복 후 소련군이 주둔하자 아들에게 노어 공부를 시키고 소련 유학을 추진한다. 이처럼 이인국은 시대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권력에 기대어 자신의 지위와 이익을 지키려는 기회주의적 인물이다.

꺼삐딴 리 ④

본문 076~077쪽

감상 스킬로 확인하기

인물·사건

- 스텐코프의 혹을 제거한 이인국 박사가 그에게 부탁하려 한 것은 무엇일까요?
  >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인 시계를 되찾을 수 있게 해 달라고 했어요.
- (버)에서 이인국 박사는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 시대가 어떻게 바뀌든 자신은 그 상황에 적응하여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기회주의적인 자신의 삶에 대해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어요.

배경·소재

- 이 글에서 '고려청자 화병'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 우리나라의 문화재가 유출되던 당시 상황을 나타내며, 이인국의 이기적이고 반민족적인 태도를 드러내요.

서술

- (더)에서 (러)로 넘어가며 시간의 구조가 어떻게 변하였나요?
  > (더)의 (소련 미국)이 주둔하던 과거에서 (러)의 6·25 전쟁 이후 (소련, 미국)의 영향력이 커진 현재로 이동했어요.

문제

11 ③ **12** ④ **13** ③

11 배경·소재 **배경의 기능**

미국에만 갔다 오면 별이라도 딴 듯이 날치는 꼴이 눈꼴사나웠다는 이인국의 말을 통해 남한에서 사회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이 커졌음(ㄴ)을 알 수 있다. 또한 브라운의 관사에 진열된 여러 문화재와 고려청자 화병을 선물하는 이인국을 통해 우리 문화재가 국외로 유출되던 당시 상황(ㄷ)이 드러난다.

오답노트 ㄱ. 이 글에는 이인국과 브라운이 '생큐'와 같은 영어 표현을 사용하는 모습이 나타나지만, 당시 영어로만 의사소통할 수 있었다고 볼 근거는 없다.

ㄹ. 이인국은 일제 강점기부터 권력에 편승하며 살아온 인물이며, "나보다 얼마든지 날뛰던 놈들도 있는데"라는 말에서도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이전에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이 이 시기에 비로소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없다.

배경지식 **광복 이후의 문화재 유출**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며 우리 문화재는 많은 수가 국외로 흘러나갔다. 광복 이후에도 사회적 혼란과 문화재 거래에 대한 제도의 미비로 문화재의 해외 반출이 이어졌으며, 외국인에게 문화재를 선물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작품에서 브라운의 관사에 우리 문화재가 진열되어 있고, 이인국이 고려청자 화병을 선물하는 장면은 이러한 당시의 세태를 보여 준다.

12 배경·소재 **소재의 의미**

시계는 일제 강점기, 소련군 주둔 시기, 6·25 전쟁 등 시대의 변화 속에서 이인국과 생사고락을 함께한 것으로, 이인국의 분신과도 같은 물건임을 〈보기〉를 통해 알 수 있다.

알아 두기 **시계의 의미와 역할**

의미	• 이인국의 분신. 그가 걸어온 인생의 역정을 보여 줌 • 일제 강점기에 제국 대학을 졸업할 때 상으로 받은 물건으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살아온 이인국의 과거를 환기함
역할	현재에서 과거의 회상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됨

13 인물·사건 **인물의 태도와 관련된 속담**

이인국은 권력의 변화에 따라 재빠르게 변신하는 기회주의자의 모습을 보인다. 이는 자신의 이익에 따라 지조 없이 이편에 붙었다가 저편에 붙었다 하는 약삭빠른 사람을 비꼬아 이를 때 쓰는 ③의 속담과 관련이 있다.

오답노트 ❶ '맑은 물에 고기 안 논다'는 사람이 지나치게 결백하면 남이 따르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권력에 따라 처세하는 이인국의 모습과는 관련이 없다.

❷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는 애써 하던 일이 실패로 돌아가거나 남보다 뒤떨어져 어찌할 도리가 없이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A]에서 이인국은 실패했다고 여기기보다 앞으로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❹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자기는 더 큰 흉이 있으면서 남의 작은 흉을 본다는 말로, [A]에는 이인국이 자신의 큰 허물은 덮어 두고 남의 작은 허물을 탓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❺ '호랑이를 잡으려다가 토끼를 잡는다'는 시작할 때는 크게 마음먹고 훌륭한 것을 만들려고 하였으나 생각과는 다르게 초라하고 엉뚱한 것을 만들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A]에는 이인국이 크게 마음먹은 일이 초라하거나 엉뚱한 결과로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실전 01 **노새 두 마리** | 최일남

급격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자신이 서 있던 자리를 잃고 마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마주하게 돼요. 이 글의 아버지 역시 그런 사람이지요. 자신의 분신과도 같았던 노새를 잃은 아버지가 어떤 모습을 보이며, 이러한 아버지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은 어떠한지 살펴보며 작품을 감상해 봅시다.

갈래 중편 소설
성격 사실적, 비극적
주제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하층민의 고통스러운 삶
특징 • 노새의 모습을 통해 아버지의 삶을 상징적으로 드러냄
• 어린아이인 '나'의 시선을 통해 아버지의 고된 삶을 객관화하여 보여 줌

노새 두 마리 ①

본문 078~079쪽

*감상 스킬*로 확인하기

인물·사건

• 연탄 배달을 하는 아버지에 대한 '나'의 심정이 드러난 부분은 어디인가요?

> '한 가지 자랑스러운 일은'이라는 부분에 아무리 찾기 힘든 집이라도 척척 알아내는 아버지에 대한 '나'의 심정이 직접 드러나요.

• 연탄 마차가 오름길 중턱에 걸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 오름길 위에 살얼음이 깔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배경·소재

• 자신의 옷이 더러워질까 봐 연탄 마차가 미끄러진 것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 어떤 사회·문화적 상황이 드러나나요?

> 현대인들의 냉담하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드러나요.

서술

• 이 글의 서술자는 누구인가요?

> 이야기 속 인물인 어린아이인 '나'가 주인공 아버지의 삶을 관찰하여 서술하고 있어요.

문제

1 ④ **2** ③ **3** ③

학습 노트

• **의아해하고**: 의심스럽고 이상해하고.

1 서술 **서술상의 특징**

(나)에서는 곤경에 처한 아버지와 '나'를 보고도 선뜻 돕지 않는 행인들의 모습을 순수한 어린아이인 '나'의 시선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자기중심적인 현대인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노트 ❶ 이마에 힘줄이 돋고 얼굴이 빨개졌다는 외양 묘사가 나타나지만, 이는 위기 상황에서의 순간적인 신체 반응을 보여 줄 뿐 인물의 지속적인 성격을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장치로 기능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❷ '나'가 이야기 속 인물로서 자신이 겪은 일을 서술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웃음을 자아내는 표현이나 상황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❸ 아버지와 '나', 행인들의 모습이 제시되지만 서로 대립하는 인물들의 내면을 묘사하고 있지 않으며, 인물 간의 갈등이 중심적으로 나타나지도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❺ '나'는 이야기 안에 있는 서술자이며 사건을 주관적 시선(순수한 어린아이의 눈)으로 전달하므로, '이야기 밖 서술자'와 '객관적인 시선'이라는 진술 모두 본문과 어긋난다.

알아 두기 「노새 두 마리」의 서술상 특징 및 효과

이 글은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어린아이인 '나'의 눈에 비친 아버지의 삶과 주변 사회의 모습을 그려 내고 있다. '나'가 보고 겪은 일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달함으로써 독자가 인물의 처지와 사건의 의미를 생각하게 한다. 이를 통해 아버지의 힘겨운 처지를 부각하는 한편, 주변 사람들의 냉담하고 자기중심적인 모습도 자연스럽게 드러낸다.

2 인물·사건 인물의 태도

'나'는 탄을 싣거나 부릴 때 거들려고 나설 만큼 아버지를 돕고 싶어 하지만(ㄴ), 아버지가 한사코 말리자 오히려 홀가분함을 느끼며 뒤따르기만 한다. 또한 아버지가 '나'에게 따라다니지 말고 공부나 하라고 하고, 탄을 싣거나 부리는 일을 거들지 못하게 하는 모습에서 '나'가 자신처럼 고된 노동을 하며 살아가기보다 공부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짐작할 수 있다(ㄷ).

오답 노트 ㄱ. '나'가 노새에게 연민이나 동정심을 느끼는 장면은 확인할 수 없다.

ㄹ. 아버지는 오히려 '나'에게 따라다니지 말고 집에 가서 공부하라고 하므로, 자신의 능력을 보여 주려고 '나'를 연탄 배달에 데리고 다닌다고 볼 수 없다.

알아 두기 「노새 두 마리」에 나타난 인물의 심리

아버지를 따라다니는 '나'	탄을 싣거나 부릴 때 거들려고 나서는 모습에서 아버지를 돕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드러남. 하지만 아버지가 일을 못 하게 하자 홀가분하게 여기기도 함
'나'에게 일을 시키지 않는 아버지	'나'에게 집에 가서 공부하라고 하고 힘든 일을 거들지 못하게 하는 모습에서 아들이 자신보다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엿볼 수 있음
오름길에서 마차가 밀려 내려가는 상황의 아버지	마차가 자꾸 밀려 내려오자 평소와 달리 노새에게 사정없이 매질하는 모습에서 위기 상황을 벗어나려는 다급한 심정이 드러남

3 인물·사건 인물의 심리

아버지는 마차가 자꾸 뒤로 밀려 내려가는 위기 상황에서 노새가 더욱 힘을 내도록 평소와 달리 사정없이 매질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아버지의 다급한 심정을 알 수 있다.

노새 두 마리 ②

본문 080~081쪽

감상 스킬로 확인하기

인물·사건

- (다)의 중심 사건은 무엇인가요?

> 연탄 마차가 밀려 내려가 넘어지고, 그 과정에서 몸이 자유로워진 노새가 아버지와 '나'를 쳐다본 뒤 냅다 도망쳐 버렸어요.

- 골목에 모여든 사람들은 노새를 뒤쫓는 아버지에게 어떤 태도를 보였나요?

> 사람들은 모여서 웅성거렸을 뿐 노새를 뒤쫓고 있는 아버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 노새를 잃은 아버지의 심정이 직접적으로 드러난 단어 두 개는 무엇인가요? 실망, 낭패

서술

- (라)에서 달아난 노새 때문에 발생한 소동을 어떤 서술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나요?

> (서술, 대화, 묘사)의 방식을 사용해서 전달하고 있어요.

문제

4 ① **5** ⑤ **6** ④ **7** ②

학습 노트

- **호시탐탐(虎視眈眈)**: 범이 눈을 부릅뜨고 먹이를 노려본다는 뜻으로,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하여 형세를 살피며 가만히 기회를 엿봄. 또는 그런 모양.
- **대경실색(大驚失色)**: 몹시 놀라 얼굴빛이 하얗게 질림.
- **전광석화(電光石火)**: 번갯불이나 부싯돌의 불이 번쩍거리는 것과 같이 매우 짧은 시간이나 매우 재빠른 움직임 등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설상가상(雪上加霜)**: 눈 위에 서리가 덮인다는 뜻으로,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남을 이르는 말.
- **임시변통(臨時變通)**: 갑자기 터진 일을 우선 간단하게 둘러맞추어 처리함.

4 인물·사건 사건에 대한 감상의 적절성

'호시탐탐(虎視眈眈)'은 범이 눈을 부릅뜨고 먹이를 노려본다는 뜻으로,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 형세를 살피며 가만히 기회를 엿보는 상황을 이르는 말이다. (다)에서 노새는 마차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무엇인가 부러져 몸이 자유로워진 뒤 달아난다. 이전부터 도망갈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는 근거는 없다.

오답 노트 ❷ 노새가 달아나자 아버지의 얼굴이 새하얘졌다고 하였으므로, 몹시 놀라 얼굴빛이 변했다는 뜻의 '대경실색(大驚失色)'과 상황이 잘 맞는다.

❸ '전광석화(電光石火)'는 번갯불이나 부싯돌의 불이 번쩍거리는 것과 같이 매우 짧은 시간이나 매우 재빠른 움직임 등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노새가 몸이 자유로워지자 냅다 뛰기 시작하고 아버지와 '나'보다 훨씬 빠르게 달아났으므로 상황과 잘 맞는다.

❹ '설상가상(雪上加霜)'은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남을 이르는 말이다. 마차가 넘어지는 사고가 난 데 이어 노새까지 달아났으므로 아버지가 처한 상황과 잘 맞는다.

❺ '임시변통(臨時變通)'은 갑자기 생긴 일을 우선 임시로 둘러맞추어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노새가 잠깐 힘을 빼자 마차가 갑자기 아래쪽으로 와르르 밀려 내려가 아버지와 '나'가 미처 대처할 틈이 없었으므로 상황과 잘 맞는다.

5 인물·사건 인물의 심리

'나'는 도망가는 노새를 놓치고 주저앉은 아버지를 보며 슬픔이 복받치고 아버지를 일으키려 한다. 이를 통해 아버지를 안쓰럽게 여기는 마음을 알 수 있다.

6 배경·소재 사회·문화적 배경

㉠에서 사람들은 말 마차가 아직도 존재한다는 사실에 놀라워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말이나 노새가 끄는 마차가 당시에는 이미 낯설고 시대에 뒤떨어진 운송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노트 ❶ ㉠은 마차, 노새라는 소재에 대한 반응일 뿐, 사람들 간 소통 단절을 보여 주는 근거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❷ 사람들은 오히려 옛 이동 수단(말 마차)의 존재에 놀라고 있을 뿐, 새로운 이동 수단에 대한 관심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❸ ㉠에는 빈부나 계층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❺ 사람들이 노새를 '말'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의 초점은 말과 노새를 구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말 마차가 아직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낯설게 여기는 데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7 인물·사건 인물이 처한 상황 + 배경·소재 소재의 기능

〈보기〉는 우마차가 용달차에 밀려 사라지고 있으며, 운송의 주역이었던 마부는 "이젠 사전에서나 찾게 될" 존재가 될 것이라 밝히고 있다. 이는 노새를 되찾더라도 아버지가 계속 운송의 주역으로 불릴 수 없음을 뜻하므로, ②는 〈보기〉의 내용과 상반된다.

오답 노트 ❶ 〈보기〉는 우마차가 용달차에 밀려 시골로 쫓겨나고 있다고 밝히므로, 노새 역시 도시에서 사라질 운명이라는 예측은 적절하다.
❸ 〈보기〉의 '노새나 조랑말 몇 마리가 변두리에서 연탄이나 모래를 나르고 있는 실정'은 연탄을 배달하는 아버지의 노새와 겹쳐지는 처지이므로 적절한 연결이다.
❹ 〈보기〉에서 불과 5, 6년 사이에 우마차가 용달차로 빠르게 대체된 것은 산업화에 따라 운송 수단이 급속히 현대화됨을 보여 주므로 적절하다.
❺ 마차라는 운송 수단 자체가 시대적으로 소멸해 가는 추세이므로, 노새를 되찾는다 해도 가족의 생계가 나아지기는 어렵다는 감상은 적절하다.

배경지식 1970년대 사회 풍경

1970년대에는 화물 운송 수단이 우마차에서 용달차로 빠르게 바뀌고 있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서울 시내에 150대, 서울역 주변에 50~60대의 우마차가 있었지만, 점차 용달차에 밀려 도시에서 자취를 감추어 갔다. 일부 변두리에서는 노새나 조랑말 등으로 연탄이나 모래 등을 나르기도 하였지만, 이 역시 점차 용달차로 대체되었다.

노새 두 마리 ③

본문 082~083쪽

감상 스킬로 확인하기

인물·사건

- '나'가 느끼는 아버지의 오기는 무엇일까요?

> 자신이 평생 해 온 마부 일에 대한 자부심이자, 자신의 일이 점차 사라질 것이라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아버지의 태도를 나타낸 것이에요.

- '나'와 아버지는 노새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도 잊고 모처럼의 동물원 구경을 즐겼나요? (○, ⊗)

(사)에서 '나'와 아버지는 정처 없이 걷다가 우연히 동물원에 이르렀을 뿐이며, 아버지는 동물들을 별로 눈여겨보지 않고 눈에 초점 없이 건성건성 보고 지나갈 뿐이어서, 노새를 잃은 생각을 잊고 동물원 구경을 즐겼다고 보기는 어렵다.

배경·소재

- 이 글에서 '자동차'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 도시화·산업화로 일어나는 변화를 상징해요.

- '나'는 동물원에서 무엇을 보며 아버지와 노새가 닮았다고 생각하나요? 얼룩말

문제

8 ② 9 ⑤ 10 ④ 11 ⑤

학습 노트

- **삽화 형식:** 전체 이야기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내용적으로 연관된 짤막한 이야기를 중간에 삽입하는 구성
- **나열:** 죽 벌여 놓음. 또는 죽 벌여 있음.
- **대세:** 일이 진행되어 가는 결정적인 형세.

8 서술 서술상의 특징

이 글은 '노새'라는 상징적인 소재를 통해 고된 노동을 감당하며 살아온 아버지의 힘겹고 고달픈 삶과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드러내고, 새로운 운송 수단의 등장으로 기존의 생업이 위협받는 시대적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정답의 근거

사 『그러다가 아버지의 얼굴이 어쩌면 그렇게 말이나 노새와 닮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꼭 그랬다. 『길게 째진, 감정이 없는 눈이며 노상 벌름벌름한 코, 하마 같은 입, 그리고 덜렁하니 큰 귀가 그랬다.』 『아버지가 너무 오래 말이나 노새를 다뤄 와서 그런 건지, 애당초 말이나 노새 같은 사람이어서 그런 짐승과 평생을 같이해 온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막상 얼룩말 앞에 세워 놓은 아버지는 영락없는 말의 형상이었다.

『 』: 아버지와 말·노새가 닮았다고 생각하는 '나'
아버지와 말·노새의 유사성을 확신하는 '나'
『 』: 아버지의 외양에서 말·노새와 닮은 점을 구체적으로 발견함
『 』: 오랫동안 말·노새와 함께 살아온 아버지의 삶과 그들의 모습을 겹쳐 봄
아버지와 말·노새를 서로 닮은 존재로 인식함 → '노새'의 상징성 부각

오답 노트 ❶ 이 글은 노새를 잃어버린 사건을 중심으로 사건들이 시간 순서에 따라 인과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서로 독립된 삽화들을 나열한 구성으로 보기 어렵다.
❸ 이 글에서 사건을 이끌어 가는 중심 갈등이 인물과 인물 사이의 대립으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❹ 서술자는 '나' 한 사람이며, 아버지의 내면은 '나'의 관찰과 추측을 통해서 전달될 뿐 아버지 자신의 관점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❺ 이 글은 대체로 서술자의 내면을 풀어내는 긴 문장 위주로 서술되어 있어, 짧고 감각적인 문장을 통한 생동감 있는 표현이 크게 두드러진다고 보기 어렵다.

9 인물·사건 인물의 심리

'나'는 아버지가 오랫동안 말이나 노새와 같은 짐승을 다뤄 와서인지 아버지와 말·노새가 닮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아버지가 노새와 함께 오랫동안 일을 해 온 것이 두 존재를 닮았다고 느끼게 된 이유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10 인물·사건 인물의 태도

㉠에는 자신이 평생 해 온 마부 일에 대한 자부심과, 삼륜차와 자동차 때문에 마부로서 자신의 입지가 줄어드는 현실을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는 아버지의 오기가 드러난다. '나' 역시 이를 애국심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오기 같은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④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노트 ❶ 아버지가 "휘발유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자동차만 많으면 뭘 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자동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❷ 삼륜차와 자동차로 대표되는 새로운 운송 수단이 확산되는 현실에도 말 마차를 고수하려 하므로, 시대의 흐름을 거부하는 태도로 볼 수 있다.
❸ 삼륜차 때문에 일감이 줄고 빼앗기고 있음에도 자동차를 부정적으로 말하는 모습에서, 마부로서의 자신이 시대 변화에 밀려 점차 설 자리를 잃어 가는 현실을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❺ 자동차와 삼륜차 때문에 일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마부 일에 대한 자존심을 굽히지 않는 태도로 볼 수 있다.

11 배경·소재 **배경의 기능**

'나'는 동물원에서 얼룩말을 보다가 노새와 아버지가 닮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은 아버지와 노새의 동질성에 대한 인식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동물원은 '나'가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공간이다.

오답 노트 ❶ 이 글에는 '나'와 아버지 사이의 갈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화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❷ 아버지는 얼룩말 앞에서도 "멍하니 서 있기만 하지 이렇다 할 감정의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서술되어 있어, 동물원이 슬픈 감정을 표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❸ 동물원 장면에서 아버지가 노새에 대한 마음을 접었다고 볼 근거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❹ '나'는 동물원에서 구경을 즐기기보다 아버지와 얼룩말을 번갈아 바라보며 아버지와 말·노새의 닮은 점을 생각하고 있으므로,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2 주제 **제목에 담긴 작가의 의도**

'노새'는 무거운 짐을 나르며 고된 일을 하는 존재이자 새로운 운송 수단의 등장으로 점차 설 자리를 잃어 가는 존재이다. 작품에서는 이러한 노새의 처지를 힘겨운 노동을 하며 살아가는 아버지의 처지와 겹쳐 보여 준다. 특히 '나'가 집을 나가는 아버지를 '또 한 마리의 노새'라고 생각하므로 제목의 '노새 두 마리'는 아버지와 실제 노새를 의미한다.

오답 노트 ❶ 구동네와 새 동네의 대비는 작품의 사회적 배경과 관련되지만, 제목의 '노새 두 마리'가 직접 가리키는 두 존재는 아니다.
❷ 1970년대라는 시대상은 작품의 배경일 뿐, 제목이 사회·문화 자체를 상징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적절하지 않다.
❹ 아버지와 '나'가 중심인물인 것은 맞지만, 제목이 강조하는 것은 두 인물이 중심인물이라는 점이 아니라 '노새'라는 상징으로 겹쳐지는 두 존재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❺ '노새 가족'이라는 표현이 앞서 등장하기는 하나, 이는 '나'의 상상 속 비유일 뿐이며, 제목이 명시하는 '두 마리'라는 수는 온 가족이 아니라 아버지와 잃어버린 노새, 두 존재로 한정되므로 적절하지 않다.

알아 두기 '노새 두 마리'의 의미

노새		아버지
연탄 배달에 사용되는 운송 수단	=	평생 말·노새를 부려 온 아버지

↓

산업화와 도시화 정책으로 급변하는 사회에서 점차 설 자리를 잃어 가는 존재

13 배경·소재 **소재의 상징적 의미**

㉠은 아버지를, ㉡은 '나'의 가족처럼 산업화된 도시 사회에서 설 자리를 잃어 가는 사람들을, ㉢은 실제 노새를 가리킨다. ㉠의 아버지와 ㉢의 노새는 모두 시대 변화 속에서 밀려나는 존재라는 유사성을 지닌다.

오답 노트 ❶ ㉠은 아버지를, ㉡은 '나'의 가족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은 실제 노새를 가리키므로 모두 같은 대상을 의미하지 않는다.
❷ ㉠은 잃어버린 노새가 아니라, 노새처럼 어두운 골목길로 걸어 나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가리키므로 적절하지 않다.
❸ ㉡은 그 자체가 산업화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존재(우리 같은 노새)를 가리키는 표현이지, 다른 대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주체로 서술된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❺ 노새가 '나'의 가족(㉡)의 생계 수단이라는 점은 맞으나, 노새가 "산업화된 사회에서 주된 운송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것은 본문과 반대된다. 노새는 오히려 자동차, 삼륜차 등에 밀려나는 옛 운송 수단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알아 두기 「노새 두 마리」에서 '노새'의 의미

실제 노새	연탄 마차를 끌다가 달아난 노새
아버지를 가리키는 노새	힘든 노동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시대 변화 속에서 점차 설 자리를 잃어 가는 아버지
우리 같은 노새	아버지와 '나'의 가족처럼 급변하는 사회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

같은 '노새'라는 표현이라도 문맥에 따라 실제 동물을 가리키기도 하고, 인물이나 특정한 처지의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기도 함

노새 두 마리 ④

본문 084~085쪽

감상 스킬로 확인하기

인물·사건
- 아버지가 "이제부터 내가 노새다."라고 말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 노새를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 '나'는 자신이 노새라고 하는 아버지의 말에 우리 가족 모두를 무엇이라고 생각했나요?
> 고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족이 노새 가족 같다고 생각했어요.

배경·소재
- '비행기, 헬리콥터, 자동차, 자전거'는 어떤 기능을 하나요?
> '노새'와 (유사한, 대립되는) 교통수단으로, 급속한 산업화가 이루어지던 1970년대 사회의 모습을 나타내요.

서술
- (자)의 칠수 어머니의 말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가요?
> 현실에 맞지 않게 여전히 노새를 부리는 아버지를 비꼬고 있어요.

문제

12 ③ 13 ④ 14 ⑤

학습 노트
- **유사성**: 서로 비슷한 성질.
- **차용**: 돈이나 물건 등을 빌려서 씀.
- **변두리**: 어떤 지역의 가장자리가 되는 곳.

14 주제 **작가의 창작 의도**

이 글의 결말에서는 아버지가 노새가 일으킨 사고로 경찰서에 불려 갈 처지에 놓이고, '나' 역시 자신들과 같은 존재가 급변하는 도시에서 발붙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소외된 사람들의 고단하고 막막한 현실을 드러낼 뿐, 그들에게 희망을 전달하려는 의도가 나타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노트 ❶ 아버지가 배달하는 연탄이 사백 장씩에 달하는 등, 노새가 무거운 짐을 나르는 존재로 그려지는 것은 본문에 부합하는 창작 의도이다.

❷ 삼륜차의 등장으로 노새나 말이 끄는 마차를 이용한 아버지의 일감이 줄고 뺏기는 모습은, 노새가 새로운 운송 수단에 밀려나는 존재임을 보여 준다.

❸ 아버지가 "이제부터 내가 노새다"라고 말하며 노새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장면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고된 삶을 짊어진 그 시대 아버지들의 모습과 노새를 겹쳐 보이게 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어 적절하다.

❹ 노새를 통해 도시화·산업화 속에서 소외된 이들의 고단한 삶을 그려낸 것은 작품 전반의 정서와 일치하므로 적절하다.

알아 두기 결말 부분의 상징성

'나'는 자신과 가족 같은 '노새'가 산업화·도시화된 세상에서는 발붙이기 어렵다고 느낌 → 1970년대 산업화·도시화로 급변하는 사회에서 점차 설 자리를 잃어 가는 소외 계층의 힘겨운 삶을 드러냄

독해 체크 본문 086쪽

❶ 노새 ❷ 연탄 ❸ 마차 ❹ 도시화 ❺ 어린아이 ❻ 아버지 ❼ 가족

어휘 체크 본문 087쪽

1 ③ **2** ② **3** ④

1 빈칸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단어는 문맥적 의미를 고려할 때 뜻하지 않은 일로 계획이 어그러져 곤란해진 상황이어야 하므로, '계획한 일이 실패로 돌아가거나 기대에 어긋나 매우 딱하게 됨.'을 뜻하는 '낭패'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2 '혼비백산'은 '혼백이 어지러이 흩어진다는 뜻으로, 몹시 놀라 넋을 잃음을 이르는 말.'이므로, 고삐 풀린 노새 때문에 놀라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는 상황에 적절하다.

3 '삼륜차'는 '바퀴가 셋 달린 차.'를 뜻한다. 산업화·기계화의 산물인 삼륜차는 노새 마차로 연탄을 배달하는 아버지의 일감을 빼앗는 소재로, 시대의 변화 속에서 기존의 생업을 위협받고 점차 설 자리를 잃어 가는 아버지의 처지를 부각한다.

실전 **02** **운수 좋은 날** | 현진건

이상할 정도로 모든 일이 잘 풀리고 공부도 잘 된다고 생각했던 날이 있었나요? 뜻한 바대로 다 진행되는 운수가 좋은 날 말이죠. 그런데 오후가 되면서 생각 밖의 방향으로 갑자기 일이 흘러가 버린다면 ……. 이 작품 속의 김 첨지에겐 '운수 좋은 날'이 어떤 날이었을지, 작품을 감상해 봅시다.

갈래 단편 소설, 사실주의 소설
성격 사실적, 비극적, 반어적, 현실 고발적
주제 일제 강점기 도시 하층민의 궁핍하고 비참한 삶
특징
- 일제 강점기 도시 하층민의 비참한 삶을 사실적으로 드러냄
- 극적인 반전(상황적 반어)을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작품의 비극성을 극대화함
- '비 오는 날'의 날씨 배경을 통해 작품 전체의 분위기와 비극적 결말을 효과적으로 드러냄

운수 좋은 날 ① 본문 088~089쪽

감상 스킬로 확인하기

인물·사건
- 김 첨지는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가나요?
> 동소문 안에서 인력거꾼 노릇을 하고 있어요.

배경·소재
- (가)의 날씨 배경을 통해 어떤 분위기가 드러나나요?
> 을씨년스럽게 내리는 (눈, (비))는 ((어두운) 포근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어요.

서술
- (다)에서 김 첨지가 사용하는 비속어는 어떤 기능을 하나요?
> 도시 하층민의 가난한 삶을 생생하고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문제

1 ④ **2** ⑤ **3** ④ **4** ③

학습 노트
- **을씨년스러운**: 보기에 날씨나 분위기 등이 몹시 스산하고 쓸쓸한 데가 있는.

1 서술 **서술 시점**

이 글은 작품 밖의 서술자(작가)가 인물의 행동뿐만 아니라 내면 심리까지 직접 전달하는 전지적 시점을 취하고 있다.

오답 노트 ❶ 1인칭 주인공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❷ 1인칭 관찰자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❸, ❺ 3인칭 관찰자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알아 두기 「운수 좋은 날」의 서술상 특징

이 글은 전지적 시점으로,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과 내면 심리를 모두 전달한다. 이를 통해 김 첨지가 행운에 기뻐하면서도 병든 아내를 걱정하는 복잡한 심리를 효과적으로 보여 주고, 비극적 결말에 대한 긴장감을 높인다.

2 인물·사건 인물이 처한 상황

(나)에서 김 첨지는 아내의 병이 위중함에도 약 한 첩 써 본 일이 없다고 하였다. 김 첨지는 병에 약을 쓰면 병이 그 맛을 들여 자꾸 찾아온다는 미신적인 신조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답노트 ❶ (가)의 '근 열흘 동안 돈 구경도 못한 김 첨지는 ~ 눈물을 흘릴 만큼 기뻤었다.'를 통해 김 첨지가 근 열흘 만에 돈을 벌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❷ (나)의 '조밥도 굶기를 먹다시피 하는 형편이니'를 통해 김 첨지의 형편이 매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❸ (라)의 '이상하게도 꼬리를 맞물고 덤비는 이 행운 앞에 조금 겁이 났음이다.'를 통해 김 첨지가 이어지는 행운에 내심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❹ (나)의 '그의 아내가 기침으로 쿨룩거리기는 벌써 달포가 넘었다.'를 통해 김 첨지의 아내가 한 달 넘게 기침을 하며 병을 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배경·소재 배경의 기능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라는 날씨 배경이 작품의 음산하고 어두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앞으로 비극적 사건이 일어날 것임을 암시하는 역할을 하지만, 인물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지는 않다.

오답노트 ❶, ❸ 이 글은 겨울비가 내리는 배경을 묘사하며 시작된다. 이는 음산하고 을씨년스러운 날씨 배경이 글의 전반적 분위기나 내용 전개 방향과 관련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❷ '눈이 올 듯'하고 비가 얼다가 만 듯 내린다는 묘사에서 계절적 배경이 겨울임을 알 수 있다.

❺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날씨 배경은 사건의 비극적 결말을 암시하는 역할을 한다.

알아 두기 '겨울비'가 내리는 날씨의 역할

'겨울비'가 내리는 날씨
• '새침하게 흐린 품이 눈이 올 듯하더니 눈은 아니 오고 얼다가 만 비가 추적추적 내리었다.' • '흐리고 비 오는 하늘은 어둠침침한 게 벌써 황혼에 가까운 듯하다.' • '궂은비는 의연히 추적추적 내린다.'
↓
날씨 배경의 역할
• 작품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어둡고 음산하게 이끌어 감 • 앞으로 다가올 불행과 비극적 결말을 암시함

4 서술 서술상의 특징 및 효과

㉡의 다음 내용으로 보아, 김 첨지는 겉으로는 야단을 쳤지만 속마음으로는 아내를 안타까워하고 있으므로 ㉡은 아내에 대한 김 첨지의 생각을 단적으로 제시한 부분이라 볼 수 없다.

오답노트 ❶ '조밥도 못 먹는 년', '처먹고 지랄을 하게.'를 통해 비속어를 실감 나게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❷, ❹ 비속어를 사용하여 김 첨지의 거칠고 투박한 모습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당시 하층민들의 생활상을 사실적이고 현장감 있게 전달하고 있다.

❺ ㉡에서 김 첨지는 겉으로는 설렁탕을 사 달라는 아내를 거칠게 야단치지만, 속으로는 아내가 원하는 것을 사 주지 못해 마음이 편치 않다. 이는 아내에게 미안함과 안타까움을 느끼면서도 이를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김 첨지의 성격을 보여 준다. 이를 통해 무뚝뚝하고 거친 태도 이면에 아내를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배경지식 소설의 인물 제시 방법

직접적 제시	• 서술자가 직접 인물의 특성을 요약해서 설명하는 방법을 말함 • 인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수 있고, 독자가 인물의 특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음
간접적 제시	• 인물의 행동이나 대화 등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는 방법을 말함 • 인물을 생동감 있게 그려 낼 수 있고, 독자로 하여금 상상력을 발휘하게 함

운수 좋은 날 ②

본문 090~091쪽

감상 스킬로 확인하기

인물·사건

• 김 첨지는 아내에 대한 근심과 걱정을 모두 잊고 큰돈을 번 기쁨에 들떠 있나요?

(○, ⊗)

(사)에서 김 첨지는 근심과 걱정을 잊으려 다리를 재게 놀리지만, 집이 가까워지자 새삼스러운 염려가 다시 가슴을 누르고 아내의 원망하는 듯한 눈빛과 개똥이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들려오는 듯하므로, 근심과 걱정을 모두 잊고 큰돈을 번 기쁨에 들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배경·소재

• 김 첨지가 '일 원 오십 전'을 벌게 된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 큰돈을 벌게 된 것으로 보아, 김 첨지의 행운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서술

• (마)에서 아내가 일 나가는 김 첨지에게 나가지 말라고 부탁하는 모습은 작품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 비극적인 결말을 암시하는 복선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문제

5 ⑤ 6 ④ 7 ④ 8 ③

학습 노트

• **포악한**: 사납고 악한.

5 인물·사건 인물이 처한 상황

(사)에서 김 첨지의 다리가 갑자기 무거워진 것은, 자신의 집에 가까이 다다르자 병든 아내와 어린 자식에 대한 염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오답노트 ❶ (마)에서 '집을 나올 제 아내의 부탁이 마음에 켕기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❷ (바)에서 '그 학생을 태우고 나선 김 첨지의 다리는 이상하게 거뿐하였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❸ (바)에서 '빙글빙글 웃는 차부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기쁨이 넘쳐흘렀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❹ (사)에서 김 첨지는 아내와 개똥이에 대한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인력거채를 쥔 채 길 한복판에 멈춰 서며, 이때 '엉엉하고 우는 개똥이의 곡성'을 들은 듯싶어 한다.

6 서술 **서술상 특징**

(마)에서 김 첨지에게 나가지 말라고 말하거나, 일찍 들어오라고 말하는 병든 아내의 부탁은 이후 아내에게 닥칠 비극을 예고한다. 따라서 ㉠은 글의 비극적 결말인 아내의 죽음을 암시하는 복선에 해당한다.

7 인물·사건 **인물의 성격과 태도**

㉡에는 아내의 병세에 대한 불안감을 애써 외면하는 김 첨지의 모습이 드러난다. 또한 이를 통해 병든 아내를 두고도 일을 나가야 하는 김 첨지의 매우 가난한 처지를 알 수 있다.

오답 노트 ❶ 김 첨지의 무뚝뚝하고 거친 성격이 나타나긴 하지만, 앞뒤 내용으로 볼 때 김 첨지의 성격이 포악하다고 볼 수는 없다.

❷, ❺ 김 첨지는 퉁명스럽고 무뚝뚝하게 말할 뿐, 아내를 원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김 첨지는 남대문 정거장까지 가자는 말을 들은 순간, 집에 있는 병든 아내를 걱정하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❸ 김 첨지는 집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일을 해야 먹고살 수 있기 때문에 병든 아내의 부탁에도 일을 나가려는 것이다.

8 인물·사건 **인물의 심리**

(사)에서 김 첨지는 집에 가까이 다다를수록 병든 아내의 모습이 떠올라 걸음이 느려지고, 집에서 차차 멀어질수록 근심과 걱정을 잊기 위해 다시 빨리 걸으며 일에 몰두한다. 즉 아내에 대한 걱정이 모두 사라졌기 때문에 걸음이 빨라진 것은 아니다.

알아 두기 **'발단~전개' 부분에 나타난 김 첨지의 심리**

정류장에서 양복쟁이를 동광학교까지 태워 줌	이른 아침부터 돈을 벌게 된 김 첨지는 모주 한 잔을 마실 수 있고, 아픈 아내에게 설렁탕을, 아이에게는 죽을 사다 줄 수 있게 되어 마음이 넉넉해짐
기숙사 학생을 남대문 정거장까지 태워 줌	손님을 태운 인력거가 집에 가까워질수록 아내에 대한 걱정으로 불안해져 걸음이 느려지고, 집에서 멀어질수록 근심과 걱정을 잊으려 일에 몰두하여 걸음이 빨라짐
큰 가방을 들고 있던 손님을 인사동까지 태워 줌	돈을 더 벌게 되어 기뻤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끼며 귀가를 늦추려 함

운수 좋은 날 ③ 본문 092~093쪽

감상 스킬로 확인하기

인물·사건

- 김 첨지가 친구인 치삼과 취하도록 술을 마시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 집에 들어가기가 불안하고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 (아)에서 김 첨지가 고생해서 번 돈을 팔매질 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병세가 깊은 아내를 뿌리치고 나올 수밖에 없는 지독한 가난 때문에 돈이 원수처럼 보였기 때문이에요.

배경·소재

- (차)에서 '궂은비'는 김 첨지의 어둡고 우울한 마음이 머지않아 기쁨으로 바뀔 것임을 암시하나요? (○, ⊗)

(차)에서 '궂은비'가 계속 내리는 것은 김 첨지의 불안한 심리와 앞으로 닥칠 비극을 암시하므로, 그의 마음이 기쁨으로 바뀔 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 없다.

문제

9 ③ **10** ② **11** ⑤ **12** ④

학습 노트

- **동조하는**: 남의 주장에 자기의 의견을 일치시키거나 보조를 맞추는.
- **몰인정함**: 인정이 전혀 없음.

9 서술 **서술상의 특징**

이 글의 비속어는 인물 간의 갈등을 부각하기보다는, 술에 취한 김 첨지의 고조된 감정과 궁핍한 삶에 대한 원망을 사실적으로 드러낸다. 또한 거칠고 투박한 말투를 통해 김 첨지의 성격과 당시 하층민의 고단한 생활상을 생생하게 보여 준다.

10 인물·사건 **인물의 행동**

이 글에서 김 첨지가 친구 치삼과 술을 마시고, 과장된 말과 행동을 하는 주된 이유는 아내에 대한 불길한 예감으로 집에 돌아가기가 두려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 첨지의 행동을 열심히 일한 자신에게 주는 보상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노트 ❶, ❹ 김 첨지는 굶다시피 하는 형편에 병든 아내를 두고 나가 일을 해서 번 돈을 술을 마시는 데 쓰고 있다. 이러한 김 첨지의 모습을 통해 당대 고달픈 하층민의 생활상을 사실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

❸ (자)에는 술에 취해서 술을 급하게 마시고 "또 부어, 또 부어."라고 외치며, 치삼의 어깨를 치며 큰 소리로 웃는 등 과장된 말과 행동을 하는 김 첨지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❺ 김 첨지가 치삼의 어깨를 치며 큰 소리로 웃는 것은 술에 취해서이기도 하지만, 아내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11 인물·사건 **인물의 의도** + 배경·소재 **소재의 기능**

김 첨지가 돈에 화풀이를 하는 이유는 병세가 깊은 아내의 부탁을 뿌리치고 나올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 즉 지독한 가난으로 인해 돈이 원수처럼 느껴지고 원망스러웠기 때문이다.

12 종합 **표현의 의미와 기능**

김 첨지가 치삼에게 "우리 마누라가 죽었다네."라고 말한 것은 집에서 맞닥뜨리게 될 불길한 상황을 예감하고 있기 때문이지만, 이런 말을 함으로써 내심 아내에게 별일이 없기를 바라는 김 첨지의 마음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오답 노트 ❶ ⓐ에서 김 첨지가 취중에도 돈의 행방을 살피는 모습을 통해 그의 속마음이 돈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❷ ⓑ에서 김 첨지가 돈을 향해 "더러운 놈들", "다리 뼉다구를 꺾어 놓을 놈들"이라고 소리치는 데에는 궁핍한 삶에 대한 분노가 담겨 있다.

❸ 김 첨지가 던진 돈이 양푼에 떨어지며 쨍하고 울린 것을 '정당한 매를 맞는다는 듯이 쨍하고 울었다.'라고 표현한 것에는 돈에 화풀이하는 김 첨지의 행동에 대해 은연중에 동조하는 서술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❺ ⓔ에서 "궂은 비는 의연히 추적추적 내린다"는 표현은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김 첨지의 어두운 심정을 대변하며, 글의 불행한 결말을 암시한다.

운수 좋은 날 ④

본문 094~095쪽

감상 스킬로 확인하기

인물·사건

- 김 첨지는 왜 대문을 들어서면서부터 비속어를 사용하거나 고함을 치고 있을까요?

> 아내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떨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배경·소재

- 아내에 대한 김 첨지의 사랑을 드러내는 소재이자 결말의 비극성을 고조시키는 소재는 무엇인가요? 설렁탕

서술

- (카)에서는 어떤 서술 방식이 드러나나요?

> 서술자가 개입하여 집 안의 불길한 침묵을 부각하고, 이를 통해 아내의 죽음이라는 비극적인 결말을 암시하고 있어요.

- 김 첨지에게 '운수 좋은 날'은 어떤 날을 의미하나요?

> 예기치 않은 행운에 큰돈을 벌게 된 날이지만 병든 아내가 죽은 날로, 반어적 표현이에요.

문제

13 ② **14** ④ **15** ⑤ **16** ⑤

학습 노트

- **아이러니:** 표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실제와 반대되는 뜻의 말을 하는 것 = 반어

13 배경·소재 **소재의 의미와 기능**

술에 취했음에도 아내를 위해 설렁탕을 사 오는 김 첨지의 모습에서 소박한 인간미와 아내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다. 평소 설렁탕 한 그릇도 마음대로 사 주지 못하던 형편에서, 이날만큼은 큰돈을 벌어 설렁탕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은 김 첨지의 가난한 처지를 오히려 드러낸다. 반면 결말에서 결국 아내는 설렁탕을 먹지 못하고 죽게 되므로, 설렁탕은 작품의 비극성을 더욱 고조시키는 역할도 한다. 그러나 김 첨지의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

알아 두기 설렁탕의 역할

- '사흘 전부터 설렁탕 국물이 마시고 싶다고 남편을 졸랐다. ~ 인제 설렁탕을 사 줄 수도 있다.'
- '김 첨지는 취중에도 설렁탕을 사 가지고 집에 다다랐다.'
- "설렁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왜 먹지를 못하니……?"

↓

- 하층민의 가난한 현실을 드러냄
- 아내에 대한 김 첨지의 사랑을 확인시켜 줌
- 아내가 설렁탕을 먹지 못한 채 죽음으로써 결말의 비극성을 강조함

14 주제 **제목에 담긴 작가의 의도**

절정과 결말 부분에서 김 첨지가 허장성세를 부리는 것은 아내를 구박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애써 외면하려는 과장된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정답의 근거

카 혹은, 김 첨지도 이 불길한 침묵을 짐작했는지도 모른다.
(집 안의 불길한 분위기를 감지하며 불안감을 느끼는 김 첨지)
『그렇지 않으면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전에 없이,
「」: 평소와 달리 고함을 치는 행동에서 김 첨지의 불안한 심리가 드러남
"남편이 들어오는데 나와 보지도 않아, 이년." / 이라고 고함을 친 게 수상하다.』 이 고함이야말로 제 몸을 엄습해 오는 무시
(아내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애써 떨치려는 김 첨지의 허장성세)
무시한 증을 좇아 버리려는 허장성세(虛張聲勢)인 까닭이다.

오답 노트 ❶, ❷ '운수 좋은 날'이라는 이 글의 제목은 아내의 죽음이라는 결말의 비극성을 강조하는 반어적 표현이다.

❸, ❺ 설렁탕도 먹지 못한 아내의 죽음은 결말의 비극성을 더욱 고조시킨다. 이와 같은 결말은 결국 일제 강점기 도시 하층민의 궁핍하고 비참한 삶을 효과적으로 보여 준다.

15 서술 **서술 방식**

㉡의 '꿀떡꿀떡하고 젖 넘어가는 소리'는 김 첨지의 아내가 살아 있을 때에 들릴 수 있는 소리로,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하였다.

16 인물·사건 **인물의 심리**

이 글의 발단과 전개 부분에서는 손님이 계속 이어지고 큰돈을 벌게 되면서 김 첨지의 기쁨이 커진다. 하지만 집에 가까워질 때마다 병든 아내가 떠올라 불안감을 느끼고, 집에서 멀어지면 근심과 걱정을 잊으려 다시 일에 몰두하는 등 기쁨과 불안이 함께 나타난다. 이후 위기 부분에서는 아내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커져 귀가를 늦추고 친구 치삼과 술을 마시며 불안감을 떨치려 한다. 마침내 집에 돌아간 절정과 결말 부분에서는 아내의 죽음을 확인하고 깊은 슬픔에 빠진다. 따라서 김 첨지의 전체적인 심리 변화 과정을 ⑤와 같은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

독해 체크

본문 096쪽

❶ 인력거꾼 ❷ 분위기 ❸ 애정 ❹ 비극성 ❺ 복선 ❻ 아내 ❼ 반어적

어휘 체크

본문 097쪽

1 ④ **2** ③ **3** ②

1 빈칸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단어는 문맥적 의미를 고려할 때 하루가 시작되는 매우 이른 때여야 하므로, '아주 이른 시간.'을 뜻하는 '댓바람'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2 '달포'는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을 뜻하는 말이다.

3 〈보기〉는 아내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지도 모른다는 강하고 불길한 예감을 떨치기 위해 짐짓 큰소리를 치는 모습이므로 '실속은 없으면서 큰소리치거나 허세를 부림.'이라는 뜻의 '허장성세'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실전 03

눈길 | 이청준

누군가와 함께 걸었던 길을 다시 혼자 걷게 될 때, 그 길이 유독 낯설고 서럽게 느껴진 적이 있나요? 이 작품 속 어머니에게는 오래전 아들을 떠나보내고 돌아오던 눈 덮인 길이 바로 그런 길이었어요. 어머니에게 빚진 것이 없다고 애써 다짐하며 살아온 '나'는 그날의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깨닫게 될지, 눈길 위에 남겨진 어머니의 마음을 함께 따라가며 작품을 감상해 봅시다.

갈래 순수 소설, 귀향 소설
성격 회상적, 서정적, 상징적
주제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과 인간적 화해
특징 • 주로 대화를 통해 사건이 전개됨
•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소재를 활용함

눈길 ①

본문 098~099쪽

감상 스킬로 확인하기

인물·사건

• 어머니를 가리켜 '노인'이라고 하는 것에 '나'의 어떤 심리가 반영되어 있을까요?
> 어머니를 남처럼 부른 것으로, 이를 통해 어머니와의 심리적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어요.
• 내일 아침에 올라가겠다는 '나'의 말에 어머니는 어떻게 했나요?
> 아들에게 서운함을 느끼지만 만류하지 못하고 결국 체념했어요.

배경·소재

• 불편하고 답답한 '나'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소재는 무엇인가요? 치자나무

서술

• 어머니의 아들에 대한 마음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나요?
> 장죽 끝에 풍년초를 꾹꾹 눌러 담는 모습에서 아들에 대한 서운함이 (직접적, 간접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문제

1 ④ 2 ③ 3 ④

학습 노트

• **귀향형 소설**: 모처럼 고향을 찾아온 인물이 어떤 사건으로 인해 인간적 화해나 갈등을 겪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구조로 된 소설
• **부수적인 인물**: 중심 인물 이외의 주변 인물로, 중심 인물의 주변에서 사건의 진행을 돕는 인물

1 인물·사건 **인물의 심리**

아내는 '나'의 참을성 없는 심경 변화와 어머니 곁을 떠나려는 매정한 결단을 원망하고 있다. 따라서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행동에 답답함을 느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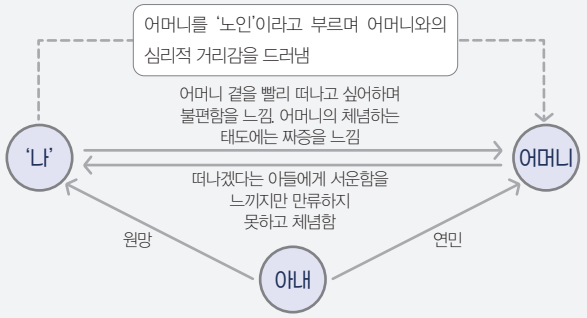
2 배경·소재 **소재의 기능**

㉠은 한낮의 땡볕을 견디고 서 있는 치자나무를 어머니와의 불편한 관계로 인해 곤혹스러워하는 '나'의 처지에 대응시켜, 그 심리를 간접적으로 형상화한 객관적 상관물이다. 따라서 이를 어린 시절의 추억을 상기하는 계기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 서술 **작가의 의도와 서술 방식**

이 글의 '나'는 어머니 곁을 떠나려는 자신의 태도를 합리화하며,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과 아쉬움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오히려 어머니의 체념에 짜증을 느끼는 등 불편한 심리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나'가 어머니에게 미안함과 아쉬움을 느끼고 이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겠다는 계획은 글의 내용과 어긋난다.

알아 두기 인물 간의 심리 상태



배경지식 농어촌 지붕 개량 사업

1970년대 초 만성적인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한 통일벼가 보급되었는데, 통일벼는 줄기가 짧아 지붕의 이엉을 엮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 무렵 정부는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농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초가지붕을 슬레이트 등으로 바꾸는 지붕 개량 사업을 실시하였다.

눈길 ②

본문 100~101쪽

감상 스킬로 확인하기

인물·사건

• 어머니가 집을 개축하고 싶어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 자신이 죽은 후 문상객들을 접대할 공간과 자식들이 쉴 곳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였어요.
• 아내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 집 개축에 대한 어머니의 소망을 자연스럽게 끌어내고, 지나간 넓은 집의 기억을 상기시켜 어머니를 위로하며 자존심을 지켜 드리려 하고 있어요.

서술

• 이 글에서 내용을 전개하는 주요 서술 방식은 무엇인가요?
>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내용을 전개하며, 인물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어요.

문제

4 ② 5 ③ 6 ③

학습 노트

• **요약적 제시**: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과 심리, 사건의 흐름 등을 직접 독자에게 간결하게 서술하는 것
• **반포보은(反哺報恩)**: 까마귀 새끼가 자라서 늙은 어미 까마귀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어 보답한다는 뜻으로, 자식이 자라서 어버이의 은혜에 보답함으로써 효를 행함을 이르는 말.

4 서술 서술상의 특징

이 글은 주로 어머니와 아내의 대화를 통해 사건의 내용과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며 이를 '나'의 시점에서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오답노트 ❶ 어머니가 살아온 내력과 소망을 담담히 풀어내는 대화와 회상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어, 사건이 빠르고 박진감 있게 전개된다고 보기 어렵다.

❸ 이 부분은 인물의 대사와 '나'의 내면 서술이 중심이며, 감각적 묘사를 통해 생동감을 부여하는 부분은 두드러지지 않는다.

❹ 공간의 이동에 따른 사건 전개나 요약적 제시가 아니라, 인물 간의 대화와 내면 서술을 통해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❺ 이 글은 시종일관 '나'의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서술되고 있으며 시점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알아 두기 「눈길」의 서술상 특징

이 글은 인물 간의 대화와 '나'의 내면 서술을 함께 활용하여 사건을 전개한다. 이를 통해 어머니의 처지와 소망을 드러내고, 이를 받아들이는 '나'의 복잡한 심리를 효과적으로 보여 준다.

5 인물·사건 인물의 심리

어머니의 소망이 자신의 사후에 자식과 이웃이 겪을 불편을 덜어 주려는 데서 비롯되었음을 들은 '나'는, 그 사연을 계속 듣고 있기 힘들어할 만큼 마음이 불편해져 자리를 피하고 싶어 한다.

▶ 정답의 근거

바 『노인의 소망은 바로 그 당신의 죽음에 대한 대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알 만한 노릇이었다. 살림이 망하고 옛 살던 동네를 나와 떠돌기 시작하면서부터 언제나 당신의 죽음에 대한 대비를 게을리해 오지 않던 노인이었다. 〈중략〉 노인은 이제 당신의 죽음에 마지막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더 노인의 이야기를 엿듣고 있을 수가 없었다. 발길을 움직여 소리 없이 자리를 피해 버리고 싶었다.』

(『』: 집 개축에 대한 어머니의 소망이 자신의 죽음을 대비하려는 데서 비롯됨 / 어머니의 소망이 자신의 죽음을 대비하기 위한 것임을 깨달은 '나' / 『』: 어머니의 사연을 알고 마음이 불편해져 자리를 피하고 싶어 하는 '나')

오답노트 ❶ '나'가 어머니의 말이 진심이 아닐 것이라고 의심하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❷ 노인은 이제 당신의 죽음에 마지막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서술되어 있어, 어머니가 그 소망을 완전히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

❹ '나'가 어머니의 태도에 답답함을 느끼는 모습이 아니라, 그 사연을 더 듣고 있을 수 없어 자리를 피하고 싶어 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❺ '나'가 어머니의 이웃에 대한 기대를 걱정하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6 주제 외적 자료를 활용한 인물의 의도

어머니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며 '나'에게 효심을 일깨우고자 하는 아내가 들려줄 노래로는 부모에 대한 효를 주제로 한 작품이 적절하다. ③은 어버이에 대한 그리움을 언급하고 있지만, 임금에 대한 충성을 효의 논리와 연결하여 강조하는 데 중심이 있으므로, 부모에 대한 효를 일깨우려는 의도와는 거리가 있다.

오답노트 ❶ 부모님 살아 계실 때는 그 소중함을 모르다가 여읜 뒤에야 깨닫는 후회를 담고 있어, 효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경계로 적절하다.

❷ 부모님 살아 계실 때 섬기는 일을 다하라는 훈계를 담고 있어, 효를 일깨우는 노래이다.

❹ 반포보은하는 까마귀를 예로 들어 인간이 마땅히 갖춰야 할 효심을 일깨우고 있다.

❺ 고운 홍시를 보고도 부모가 계시지 않아 가져다드릴 수 없는 슬픔과 그리움을 담고 있어 효심을 일깨우는 노래로 적절하다.

배경지식 효를 주제로 한 시조

전통 시가에서는 부모가 살아 계실 때 정성을 다해 봉양해야 한다는 교훈이나, 부모를 여읜 뒤 느끼는 그리움과 후회를 통해 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작품이 많이 창작되었다. 이러한 작품들은 부모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 계실 때 효를 다해야 한다는 가치관을 드러내며, 일부 작품에서는 자연물이나 일상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부모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눈길 ③

본문 102~103쪽

감상 스킬로 확인하기

인물·사건

- 옛집에서 하룻밤만이라도 '나'가 편안히 쉬어 가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남겨 둔 것은 무엇인가요?

> 안방 한쪽에다 이불 한 채와 옷 궤를 남겨 두었어요.

- 어머니가 골목에서 서성이고 있는 '나'를 나무란 이유는 무엇일까요?

> 어엿한 집이 있는 사람이 왜 엉뚱한 곳에서 서성대냐는 의미로, (집을 산, (집이 팔린)) 사실을 감추려는 의도가 담겨 있어요.

배경·소재

- '나'에게 있어 어머니에게 갚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의미하며, 어머니의 무한한 사랑을 비유하는 표현은 무엇인가요? 액면가 없는 빚 문서

서술

- (아)에서 바깥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는 액자식 구성을 취하고 있나요? (○, (×))

(아)는 '나'가 17, 8년 전 옛집을 찾아갔던 일을 떠올려 서술하는 부분으로, 현재의 이야기 속에 과거의 사건이 삽입되어 있다는 점에서 언뜻 액자식 구성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별도의 화자나 독립된 안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서술자인 '나'가 현재의 사건을 서술하다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여 삽입하고 있다. 따라서 액자식 구성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문제

7 ③ **8** ① **9** ⑤

학습 노트

- **중재자:** 분쟁에 끼어들어 쌍방을 화해시키는 사람.
- **내레이터:** 영화, 방송극, 연극 등에서, 직접 등장하지 아니하고 줄거리나 장면의 내용 등을 해설하는 사람.
- **부채감:** 어떤 대상에게 빚을 지고 있는 느낌.

7 인물·사건 **인물의 역할**

아내는 어머니와 '나'의 소원한 관계를 풀어 주기 위해서 '옷궤'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이끌어 내고 있다. 이를 통해 '나'가 미처 깨닫지 못한 어머니의 마음과 사랑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즉, 아내는 모자 간의 갈등을 해소시키려는 중재자 역할을 한다.

▶ 정답의 근거

카 아내도 물론 그 옷궤에 관한 내력을 내게서 들을 만큼 듣고 있었다. 『아내가 옷궤의 내력을 알고 있는 여자라면, 그 옷궤에 관한 내 기분도 짐작을 못 할 그녀가 아니었다.』 아내는 일부러 그 옷궤 이야기를 꺼냈음이 분명했다. 『더욱이 내가 바깥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엿듣고 있는 걸 알고서 그랬을 수도 있었다.』

(옷궤에 얽힌 과거의 사정을 알고 있는 아내 / 『 』: 옷궤에 대한 '나'의 불편한 심정까지 알고 있는 아내 / 어머니의 마음을 이끌어 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옷궤 이야기를 꺼낸 아내 / 『 』: '나'가 어머니의 마음을 듣고 깨닫게 하려는 아내의 의도)

오답노트 ❶ '나'는 이 글의 서술자로서 사건과 인물을 관찰해 독자에게 전달하는 주체이며, 아내가 이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❷ 아내는 '나'의 태도를 원망하기도 하지만, 어머니가 둘 사이를 중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머니의 속마음을 이끌어 내어 '나'와 어머니 사이를 중재하려 하고 있다.

❹ 아내가 어머니와 갈등을 겪고 있다는 근거는 나타나 있지 않으며, 아내는 오히려 어머니를 다독이고 배려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❺ 아내가 어머니의 삶을 독자에게 설명하는 서술자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며, 서술은 시종일관 '나'의 시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8 인물·사건 **인물의 심리**

㉠은 마치 '나'에게 여전히 집이 있는 것처럼 말함으로써, 집이 팔린 사실을 감추려는 어머니의 의도가 담긴 말이다.

오답노트 ❷ ㉠은 집을 잃은 것에 대한 속상함을 토로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실을 내색하지 않은 채 평소처럼 아들을 맞이하려는 의도가 담긴 질책의 말이다.

❸ '나'가 집에 소식을 전하지 않은 데 대한 언급은 나타나 있지 않다.

❹ 어머니가 혼자 일을 처리한 것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❺ '나'가 학업을 중단했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으며, 이 장면은 겨울 방학 중에 벌어진 일이다.

9 배경·소재 **소재의 의미와 기능**

아내가 '옷궤'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는 것은 옷궤가 '나'와 어머니를 화해시킬 수 있는 실마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통해 아내 자신과 어머니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노트 ❶ [A]는 그날 밤 어머니가 '나'를 위해 마련해 준 배려를 옷궤가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일깨우는 매개체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❷ [A]는 '나'가 옷궤를 볼 때마다 "액면가 없는 빚 문서"를 만난 듯 꺼림칙함을 느낀다고 하였으므로, 어머니에 대한 심적 부채감을 느끼게 하는 소재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❸ [B]는 '나'가 하룻밤이라도 편히 쉬어 가게 하려는 어머니의 배려와 사랑이 담긴 소재이므로 적절하다.

❹ [B]는 집이 팔린 뒤에도 어머니가 옛집의 흔적으로 남겨 두고 오랫동안 간직한 물건으로, 아들에게 옛집의 모습과 분위기를 지켜 보이고자 한 어머니의 자존심이 담긴 소재로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알아 두기 '옷궤'의 상징적 의미

'나'	• 떠올리기 싫은 과거를 회상하게 하는 물건 • 액면가 없는 빚 문서처럼 어머니에 대한 심적 부채감을 느끼게 하는 물건 • 어머니의 사랑을 일깨워 주는 매개체
어머니	• 과거의 살림과 옛집의 흔적을 간직한 물건 • 아들이 옛집에서 편히 쉬어 가기를 바라는 배려와 사랑이 담긴 물건
아내	'나'가 어머니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모자 사이의 소원한 관계를 풀어 줄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는 물건

눈길 ④

본문 104~105쪽

감상 스킬로 확인하기

인물·사건

- 혼자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나'의 앞날을 축복하는 장면에서 어머니의 어떤 마음이 드러나나요?

> 자식이 잘되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이 드러나요.

- (너)~(더)에서 '나'가 불빛 아래에서 눈을 뜨지 못하고 자는 척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고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배경·소재

- 자식을 제대로 뒷바라지하지 못한 어머니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2음절의 소재는 무엇인가요? 햇살

서술

- '나'를 보내고 눈길을 혼자 걸어 돌아오는 어머니의 심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 '나'에 대한 그리움과 간절한 사랑을 (비유적,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문제

10 ⑤ **11** ⑤ **12** ⑤

학습 노트

- **열린 결말:** 작가가 작품의 마지막 부분을 명확하게 끝맺지 않고 독자들이 작품의 결말을 상상하도록 하는 마무리 형식으로, 독자에게 여운을 주는 효과가 있음

10 서술 **결말 구성의 특징과 효과**

결말에서 '나'는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고 눈물을 감추며 심리적 변화를 보이지만, 어머니와 화해하는 모습을 선명하게 제시하지는 않는다. 이 글은 어머니의 이야기로 끝을 맺어 이후의 상황을 독자가 상상하게 하며 여운과 감동을 주고 있다.

오답노트 ❶ 어머니의 말이 말줄임표로 끝나며 이후 상황이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으므로, 열린 결말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❷ 결말 이후 '나'와 어머니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않아, 독자가 그 이후를 상상하도록 여지를 남기고 있다.
❸ 사건을 직접 설명하기보다 어머니의 회상과 말줄임표를 통해 정서를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❹ 어머니의 대사에서 말줄임표를 활용하여 미처 다 표현하지 않은 정서를 압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알아 두기 열린 결말의 특징과 효과

열린 결말은 사건의 결과나 인물의 관계를 완전히 확정하지 않은 채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방식이다. 사건이 해결된 이후의 모습이나 인물들의 관계 변화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독자는 작품 속 단서를 바탕으로 이후의 상황을 스스로 상상하고 해석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작품의 의미를 다양하게 생각하게 하며, 결말 이후에도 정서적인 여운과 감동이 지속되는 효과가 있다.

11 배경·소재 **소재의 의미**

'발자국들, 산비둘기, 새, 나무들'은 모두 어머니가 '나'를 떠올리며 그리움과 사랑을 드러내는 데 활용된 소재이다. 반면 '산길'은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공간적 배경이다.

알아 두기 어머니의 그리움을 드러내는 소재

'발자국들'	아들이 남기고 간 흔적으로 어머니에게 아들의 목소리와 온기를 떠올리게 함
'산비둘기', '새', '나무들'	아들의 모습을 겹쳐 보는 데서, 아들을 떠나보낸 뒤에도 쉽게 떨쳐 내지 못하는 그리움과 깊은 모정이 드러남

12 인물·사건 **인물의 심리** + 주제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은 어머니의 사랑을 뒤늦게 깨달은 '나'의 부끄러움으로, 어머니와의 관계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심리이다. 반면 ㉡은 자식에게 제대로 해 주지 못한 자신의 처지에 대한 어머니의 부끄러움과 자책을 나타낸다. 따라서 두 소재를 모두 모자 간 화해를 위한 과정상의 시련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정답의 근거

너 나는 아직도 눈을 뜰 수가 없었다. 불빛 아래 눈을 뜨고 일어날 수가 없었다. 『사지가 마비된 듯 가라앉아 있는 때문만이 아니었다.』 졸음기가 아직 아쉬워서도 아니었다. 『눈꺼풀 밑으로 뜨겁게 차오르는 것을 아내와 노인 앞에 보일 수가 없었다.』 그것이 너무도 부끄러웠기 때문이었다. 아내는 이번에도 그러는 나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았다.

(자신의 감정이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나' /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고 심리적으로 동요하는 '나' / 『』: 눈을 뜨지 못하는 것이 육체적인 이유가 아님을 강조함 / 자는 척하는 행동의 원인이 졸음이 아님을 강조함 / 『』: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고 북받치는 눈물을 감추려는 '나' / 어머니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며 부끄러움을 느낌 → '나'의 원죄 의식)

오답 노트 ❶ ㉠은 그동안 어머니와 거리를 두어 온 '나'의 태도에 대한 부끄러움과 관련되므로 적절하다.
❷ ㉠은 어머니의 사랑을 늦게 깨달은 '나'가 느끼는 원죄 의식을 나타낸다.
❸ ㉡은 자식에게 제대로 해 주지 못한 자신의 처지를 부끄러워하는 어머니의 마음과 관련되어 있다.
❹ ㉡은 가난한 형편 때문에 자식에게 충분히 해 주지 못했다고 여기는 어머니의 부끄러움과 자책, 즉 원죄 의식을 나타낸다.

알아 두기 '빛'의 상징적 의미

문학 작품에서 '빛'은 흔히 진실이나 깨달음, 내면을 드러내는 계기로 활용된다. 이 글에서도 '불빛'과 '햇살'은 인물들이 감추고 싶어 하는 감정과 부끄러움을 드러내게 하는 소재로 사용된다. 이를 통해 인물이 자신의 삶과 행동을 돌아보는 내면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보여 준다.

독해 체크 본문 106쪽

❶ 아내 ❷ 노인 ❸ 죄책감 ❹ 빚 문서 ❺ 눈길 ❻ 치자나무

어휘 체크 본문 107쪽

1 ⑤ **2** ⑤ **3** ②

1 〈보기〉에서 어머니는 귀경하겠다는 아들의 말을 듣고 체념하여 허탈하고 멍한 표정을 짓고 있다. '무연스럽다'는 '크게 낙심하여 허탈해하거나 멍한 데가 있다.'라는 뜻이다. ①은 분노, ②는 긴장, ③은 기쁨, ④는 조급함을 나타내는 문장이므로 '무연스럽다'가 들어가기에 적절하지 않다.

2 '뗏장'은 '흙이 붙어 있는 상태로 뿌리째 떠낸 잔디의 조각.'을 뜻하는 말이다.

3 문맥적 의미를 고려할 때 빈칸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단어는 '내력'이다. '내력'은 '지금까지 지내 온 경로나 경력.'을 뜻하며, 여기서는 반지·나무·옷궤가 지금까지 지녀 온 사연을 가리킨다.

실전

04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 윤흥길

살아가면서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던 적이 있나요? 누구나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가고 싶을 텐데요. 이 작품의 주인공 권 씨 역시 자존심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이에요. 작품을 읽으며 권 씨에게 구두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그가 집을 나간 후 돌아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지 생각하며 감상해 봅시다.

갈래 중편 소설, 세태 소설
성격 사실적, 현실 비판적
주제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의 고달픈 삶
특징 • 상징적 소재를 통해 인물의 심리와 성격을 드러냄
•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는 소시민의 삶에 대해 연민 어린 시각을 드러냄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①

본문 108~109쪽

감상 스킬로 확인하기

인물·사건

• 권 씨가 학교에 있는 '나'를 학교로 찾아온 까닭은 무엇인가요?

> 아내의 수 술 비 십만 원 가까이를 빌리기 위해서예요.

• (나)에는 어떤 갈등이 나타나 있나요?

> 돈을 빌려 달라는 권 씨의 부탁을 받은 '나'의 내 적 갈등이 나타나 있어요.

서술

• 이 글의 주인공과 서술자는 누구인가요?

> 이 글의 주인공은 (권 씨, '나')이고, 작품의 서술자는 주인공을 관찰하는 (권 씨, (나))예요.

문제

1 ① **2** ⑤ **3** ②

학습 노트

• **윤택한**: 살림이 풍부한.

1 인물·사건 **인물이 처한 상황**

'나'는 초등학교 교사이지만, 셋방살이를 하다가 어렵게 집을 장만하였고 아직 집을 살 때 학교에다 진 빚을 절반도 못 갚을 만큼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상황이다.

▶ 정답의 근거

나 '십만 원 가까이'는 내게 너무나 큰 부담이었다. 집을 살 때 학교에다 진 빚을 아직 절반도 못 가린 처지였다. 정상 분만비일, 이만 원 정도라면 또 모르지만 단순히 권 씨를 도울 작정으로 나로서는 거금에 해당하는 십만 원 가까이를 또 빚진다는 건 무리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뿐만 아니라 집안에서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는 아내의 양해도 없이 멋대로 그런 큰 일을 저질러도 괜찮을 만큼 나는 자유롭지도 못했다.

'나'의 내적 갈등의 원인

「」: '나'가 권 씨의 부탁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까닭

오답 노트 ② 앞부분 줄거리 중, '경찰의 감시 대상이 된 권 씨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막일을 하며 궁핍하게 산다.'를 통해 권 씨가 막일을 하며 어렵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가)의 '뒤늦게나마 오 선생 말씀대로 했기 망정이지 끝까지 집에서 버텼다간 큰일 날 뻔했습니다.'를 통해 출산을 앞둔 아내를 병원에 데려가라는 '나'의 권유에 따라 권 씨가 아내를 병원에 데려갔음을 알 수 있다.
④ (나)에서 '나'는 '십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빌려 달라는 권 씨의 부탁을 받고 갈등하며 심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
⑤ (가)의 '수술을 해야 된답니다. ~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산모나 태아나 모두 위험하대요.'를 통해 출산 직전인 권 씨의 아내가 태아의 탯줄 문제로 이십사 시간이 넘도록 분만하지 못해 수술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2 인물·사건 **인물의 심리와 태도**

㉤은 '나'가 아내의 양해 없이는 큰돈을 빌려줄 수 없는 처지임을 드러낸다. '나'의 아내가 집안에서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나'가 그런 아내의 눈치를 보는 상황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노트 ① ㉠은 '나'를 찾아와 아내의 수술비를 빌리는 상황에서도 구두를 반짝이게 유지하는 권 씨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이는 반짝이는 구두로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는 권 씨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② 권 씨는 용건을 꺼내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에서 돈 이야기를 불쑥 던진다. 즉 ㉡에는 권 씨가 아내의 수술비로 쓸 '십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빌리러 '나'를 찾아왔음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③ ㉢은 비록 아내의 위급한 수술비를 빌려 달라고 하는 구차한 상황이지만, 비굴하게 보이고 싶지 않은 권 씨의 심리를 드러내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④ ㉣에서는 태아가 탯줄을 목에 감고 있어 빨리 수술을 하지 않으면 산모나 태아 모두 위험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내의 수술비까지 마련해야 하는 권 씨의 절박한 처지가 드러나 있다.

3 주제 **외적 준거에 따른 창작 의도 추론**

〈보기〉에서 제시한 '광주 대단지 사건'은 출판사를 다니던 권 씨가 전과자로 전락하게 되는 과정의 배경이 된다. 이 글에서는 〈보기〉의 사건 이후 궁핍하고 힘겨운 삶을 사는 권 씨의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도시화·산업화의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의 삶과 당시 현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오답 노트 ① 〈보기〉에서 이주민의 생업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도시화 정책으로 인해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생존권 투쟁에 참여하였다고 하였는데, 작품 속 권 씨 또한 정부의 무리한 도시화 정책과 그에 따른 생존권 투쟁 과정에서 전과자가 되고, 이후 안정된 일자리도 구하지 못한 채 현실에서 궁핍하게 살아가는 인물이다. 따라서 피해자들 간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③ 〈보기〉에서 정부는 이주민의 생업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자급자족 도시를 키우겠다는 계획을 진행시켜 권 씨와 같은 상황에 처한 주민들이 생긴 것이다. 그러나 이 글은 권 씨와 같이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소시민의 고달픈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정부의 무계획적인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비판하려는 의도는 적절하지 않다.
④ 〈보기〉에서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손해를 입은 주민들이 투쟁 위원회를 꾸리는 것은 부조리한 현실에 맞서는 사람들의 의지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 글에서는 권 씨와 같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궁핍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으므로 의지적인 삶의 모습을 알리기 위한 의도라고 볼 수 없다.

❺ 권 씨는 투쟁 위원회의 생존권 투쟁에 휘말려 전과자가 되어 경찰의 감시 대상이 된 후에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막일을 하며 궁핍한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권 씨가 처한 상황은 개인적인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개인의 노력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리려는 의도와는 관련이 없다.

알아 두기 이 글의 갈등 양상

내적 갈등	권 씨가 아내의 수술비 문제로 돈을 빌리러 왔을 때, 그에게 돈을 빌려줄 것인지 말 것인지 '나'가 겪은 갈등
인물과 사회의 갈등	권 씨가 투쟁 위원회의 생존권 투쟁에 휘말려 전과자가 되고, 이후 안정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서 겪는 사회와의 갈등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②

본문 110~111쪽

감상 스킬로 확인하기

인물·사건

- 강도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나'의 집에 침입했나요? (○, ⊗)

'나'의 집에 침입한 강도는 '나'가 무척 모자라다고 생각할 만큼 강도 행각에 어설픈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고 보기 어렵다.

- '나'는 무엇을 보고 강도가 권 씨라고 생각하나요?

> 강도의 어수룩한 행동과 구 두 를 벗고 들어온 발을 보고 알아차려요.

- (라)에서 동준이가 칭얼거리자 강도는 어떤 행동을 했나요?

> 질겁을 하고 엎드려 동준이의 어 깨 를 토닥거렸어요.

- '나'는 자신의 집에 침입한 강도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나요?

> '나'는 강도를 도와주려 하는 등 강도에게 호 의 적 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서술

- 강도 짓이 처음부터 실패였음을 어떤 방식으로 나타냈나요?

> '처음부터 미 역 국 이었다.'와 같이 관용 표현을 활용하여 나타냈어요.

문제

4 ① **5** ③ **6** ② **7** ④ **8** ⑤

학습 노트

- **첨예한**: 상황이나 사태 등이 날카롭고 격한.
- **간담상조(肝膽相照)**: 서로 속마음을 털어놓고 친하게 사귐.
- **설상가상(雪上加霜)**: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남을 이르는 말.
- **이전투구(泥田鬪狗)**: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비열하게 다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주객전도(主客顚倒)**: 주인과 손의 위치가 서로 뒤바뀐다는 뜻으로, 사물의 경중·선후·완급 등이 서로 뒤바뀜을 이르는 말.
- **풍전등화(風前燈火)**: 사물이 매우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4 인물·사건 **인물의 심리와 태도**

'나'는 강도를 보자마자 그가 권 씨임을 알아차린 것이 아니라, 강도의 어설픈 행동을 보면서 그가 권 씨임을 짐작하고 있다.

오답 노트 ❷ (다)의 강도에게서 '술 냄새가 확 풍겼'고 강도가 '딴에 진탕 마신 술로 한껏 용기를 돋웠을 텐데도' '나'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내용을 통해, 강도가 술의 힘을 빌려 용기를 내어 강도 짓을 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❸ (다)의 '멱을 겨눈 식칼이 덜덜덜 위아래로 춤을 추었다.'를 통해 강도가 자신의 행동에 겁을 먹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❹ (라)에서 '나'는 강도에게 돈이 있는 위치를 알려 주는 등 그가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편안히 이루고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다.

❺ '나'는 일어나라는 강도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면서도 강도에게 자신의 말을 들어야만 손쉽게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도리어 충고하고 있다.

5 서술 **서술상의 특징**

이 글은 이야기 속 등장인물인 '나'가 서술자가 되어 주인공인 권 씨를 관찰하여 이야기를 전달하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을 취하고 있다.

오답 노트 ❶ '나'의 집을 공간적 배경으로 사건이 일어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배경 묘사가 나타나지 않으며, 배경 묘사로 인물의 심리를 암시하고 있지도 않다.

❷ (다)와 (라)까지 '나'의 집에 침입한 강도가 어설픈 행각을 벌이는 모습이 서술자의 시각에 따라 서술되고 있을 뿐, 잦은 장면 전환은 나타나 있지 않다.

❹ (라)의 앞부분은 짧은 문장이 자주 사용되었으나, 이 글은 '-었다'의 과거형 시제가 주로 사용되었다.

❺ '나'와 강도의 소소한 신경전을 엿볼 수 있지만, 강도에 대한 '나'의 태도를 고려할 때, 중심인물 간의 첨예한 대립이 나타난다고 볼 수 없으며 극도의 긴장감 역시 느껴지지 않는다.

6 인물·사건 **인물의 심리와 태도**

'나'의 멱을 겨누고 있는 식칼의 서슬은 '나'에게 위협이 되는 요인이므로 '나'의 집에 침입한 강도가 강도 짓에 서툰 무척 모자란 강도라고 판단하는 근거로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노트 ❶, ❸, ❹, ❺ 돈을 뺏기 위해 타인의 집에 침입한 일반적인 강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어설픈 행동들로, '나'가 자신의 집에 침입한 강도를 초보 강도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7 인물·사건 **인물의 태도** + 어휘 **상황에 어울리는 한자 성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남의 집에 침입한 강도가 집주인을 윽박질러야 하는데, [A]에서는 집주인인 '나'가 도리어 강도에게 신경질을 부리며 충고를 하고 있다. 따라서 주인과 손의 위치가 서로 뒤바뀐다는 뜻의 '주객전도'가 적절하다.

오답 노트 ❶ 서로 속마음을 털어놓고 친하게 사귐을 뜻한다.

❷ 눈 위에 서리가 덮인다는 뜻으로,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남을 이르는 말이다.

❸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비열하게 다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❺ 바람 앞의 등불이라는 뜻으로, 사물이 매우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8 인물·사건 **인물의 처지와 상황** + 서술 **표현의 효과**

권 씨는 술의 기운을 빌려 강도 행각을 벌이고는 있지만 두려움에 떨고 있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권 씨의 지나친 떨림으로 인해 '나'가 상처를 입게 되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노트 ❶, ❷, ❸ 권 씨가 '나'의 집에 강도로 침입한 것임에도 신발을 벗고 들어오거나 아이의 칭얼거림에 놀라 엎드려 아이를 다독이거나 식칼을 이부자리에 떨어뜨리는 행동은 강도로서는 매우 어설프고 어수룩한 면모를 드러내는 것으로, 웃음을 유발하는 해학적인 행동에 해당한다.

❹ 강도가 될 수 없는 착한 천성을 지닌 권 씨가 아내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강도가 되어야 하는 상황을 통해 권 씨의 처지에 대한 연민을 유발한다.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③

본문 112~113쪽

감상 스킬로 확인하기

인물·사건

- (마)에서 떨어뜨린 칼을 '나'가 되돌려 주자 다시 '나'의 멱을 겨누는 권 씨를 보며 '나'는 칼을 되돌려 준 것을 후회하고 있나요? (○, ⊗)

  '나'가 권 씨가 떨어뜨린 칼을 되돌려 주자 권 씨가 다시 '나'의 멱을 겨누었지만, '나'는 그가 고의로 사람을 찌를 만한 위인이 못 되는 줄 간파하고 칼을 되돌려 준 것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다.

- '나'는 강도가 편안하게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현관의 전등을 켜고 싶어 했나요? (○, ⊗)

  '나'는 구두를 확인해 강도의 정체를 알아보려고 전등을 켜고 싶은 충동이 일었으나, 이를 참음으로써 강도를 배려하고 있다.

- 강도가 엉겁결에 문간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나'는 뭐라고 말하며 그의 실수를 지적했나요?

> "(대문은 저쪽입니다.)"라고 말했어요.

서술

- 강도의 눈이 의심의 빛으로 가득 찼다고 서술한 부분에서 인물의 심리는 어떻게 제시되고 있나요?

> 정체가 탄로 난 것을 눈치채고 당황한 심리를 [간][접] 제시하고 있어요.

문제

9 ④ **10** ① **11** ⑤

학습 노트

- **정당화하고:** 정당성이 없거나 정당성에 의문이 있는 것을 무엇으로 둘러대어 정당한 것으로 만들고.

9 인물·사건 **인물의 심리와 태도**

이 글에서 강도의 정체가 권 씨임을 확신한 '나'는 그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그의 자존심을 지켜 주려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정답의 근거

마 나는 강도를 안심시켜 편안한 맘으로 돌아가게 만들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다. ('나'는 강도(권 씨)에게 연민을 느껴 도와주려 함) 〈중략〉 그는 현관에 벗어 놓은 구두를 신고 있었다. 그 구두를 보기 위해 전등을 켜고 싶은 충동이 불현듯 일었으나 나는 꾹 눌러 참았다. 현관문을 열고 마당으로 내려선 다음 부주의하게도 그는 식칼을 들고 왔던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엉겁결에 문간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의 실수를 지적하는 일은 훗날을 위해 나로서는 부득이한 조처였다.

"대문은 저쪽입니다." (강도가 권 씨라는 사실을 모른 척하기 위한 배려)

오답 노트 ❶ '가령 식구 중에 누군가가 몹시 아프다든가'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나'는 강도의 정체가 권 씨라고 확신하며 그의 사정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❷ '개수작 마! 그 따위 이웃은 없다는 걸 난 똑똑히 봤어!'를 통해 권 씨는 '나'가 아내의 수술비를 대신 내준 사실을 모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❸ '그 순간 강도의 눈이 의심의 빛으로 가득 찼다. 분개한 나머지 이가 딱딱 마주칠 정도로 떨면서 그는 대청마루를 향해 나갔다.'에서 권 씨는 자신의 사정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나'를 보고 자신의 정체가 들통났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당황하고 있다.

❺ '도둑맞을 물건 하나 제대로 없는 주제에 이죽거리긴!'에서 알 수 있듯이, 권 씨는 '나'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나'의 살림살이를 지적하고 있다.

10 인물·사건 **인물의 심리와 태도** + 서술 **인물의 말하기 방식**

이 글에서 '나'는 어쩔 수 없이 강도 행각을 벌이는 권 씨를 안타깝게 여기며 그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므로, 권 씨의 행동을 조롱하거나 비꼬고 있지는 않다.

오답 노트 ❷ 권 씨는 피치 못할 사정(아내의 수술비 마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도 짓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다.

❸ '나'에게 아내의 수술비를 빌리기 위해 찾아갔다가 거절당한 일로 마음에 상처를 입은 권 씨는 '난 이제 아무도 안 믿어!'라고 말하며 사람에 대해 불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❹ '나'는 아내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강도 행각을 벌인 권 씨의 자존심을 지켜 주기 위해 강도에게 대문의 위치를 알려 주고 있다. 이는 강도가 권 씨라는 것을 모른 척하려는 '나'의 배려이지만 권 씨의 자존심을 자극하게 된다.

❺ '나'가 자신의 정체를 눈치챘음을 깨닫고는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권 씨는 상처 입은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의도로 '나'가 묻지도 않은 학력을 밝히고 있다.

11 종합 **작품의 종합적 감상**

권 씨는 '나'가 자신의 정체를 눈치챘다는 것에 자존심이 상하여 분개하고 있다. '나'는 권 씨를 안심시키기 위해 '나'가 수술비를 대신 내준 사실을 우회적으로 말하지만, 권 씨는 그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사람에 대한 불신과 좌절감만 드러내고 있다.

오답 노트 ❶ 이 글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의 소설로, 서술자인 '나'의 시선에서 관찰한 권 씨(주인공)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❷ (마)에는 '방 → 대청마루 → 현관 → 마당 → 대문'으로의 공간 이동에 따른 사건 전개 과정이 나타난다.

❸ (마)의 '보안등 하나 없는 칠흑의 어둠'이라는 표현을 통해 한밤중이라는 시간적 배경에서 공간적 배경인 '우리 집', 즉 '나'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❹ 권 씨는 아내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나'의 집에 강도로 침입했다가 '나'에게 정체가 탄로 나자 자존심이 상한 채 '나'의 집을 나가게 된다.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④

본문 114~115쪽

감상 스킬로 확인하기

인물·사건

- 강도 사건 이후 권 씨는 어떻게 되었나요?

> 귀가하지 않은 채 행 방 불 명이 되었어요.

배경·소재

- 구두는 무엇을 상징하나요?

> 권 씨의 마지막 남은 자 존 심을 상징해요.

서술

- '나'가 권 씨를 배려하려고 했던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 '본의는 그게 아니었다 해도 결과적으로 내 방법이 매우 졸 렬했음'이라고 직접 밝히며 자 책하고 있어요.

- 이 글의 결말 부분에서 드러나는 구성상 특징은 무엇인가요?

> 권 씨의 행방을 밝히지 않은 채 마무리하는 열 린 결 말이에요.

문제

12 ③ **13** ① **14** ④ **15** ④

학습 노트

- **여운:** 아직 가시지 않고 남아 있는 운치.
- **액자식 구성:** 소설, 희곡 등에서, 이야기 속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이야기가 들어 있는 구성

12 인물·사건 **인물의 처지와 상황**

권 씨는 아내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강도 행각을 벌였지만, '나'가 자신의 정체를 눈치챘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분개하며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를 통해 '나'에게 강도 행각이 들통난 권 씨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정답의 근거

사 그리고 본의는 그게 아니었다 해도 결과적으로 내 방법이 매우 졸렬했음도 이제 확연히 밝혀진 셈이었다. 복면 위로 드러난 두 눈을 보고 나는 그가 다름 아닌 권 씨임을 대뜸 알아차릴 수 있었다. 밝은 아침에 술이 깬 권 씨가 전처럼 나를 떳떳이 대할 수 있게 하자면 복면의 사내를 끝까지 강도로 대우하는 그 길뿐이라고 판단했었다.

'나'의 서툰 배려가 권 씨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것을 자책함

권 씨가 강도라는 것을 알고도 모른 척해 주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함

오답노트 ❶ '나'가 행방불명된 권 씨가 쉽게 돌아오지 않으리라 생각하고는 그의 행방불명을 경찰에 신고한 것이므로 권 씨가 연행되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❷ '나'는 아내에게조차 권 씨의 강도 행각에 대해 말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❹ 권 씨가 일자리를 찾아 떠났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❺ 행방불명의 직접적 계기는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 아니라 '나'에게 정체를 들켜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었던 자존심이 상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13 인물·사건 **인물의 심리**

'나'는 자신의 서툰 배려로 인해 권 씨가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그가 귀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다.

오답노트 ❷ 권 씨가 '나'를 떳떳하게 대할 수 있게 '나'는 그를 끝까지 강도로 대우하였다.

❸ '나'가 아내의 수술비를 빌려 달라는 권 씨의 부탁을 거절하고 자신의 소시민적 이기심을 후회하는 내용은 결말 부분이 아니라 권 씨가 강도로 변장해 '나'의 집을 침입하기 전인 '위기' 부분의 내용이다. ㉠에는 '나'의 의도와 달리 어설픈 배려로 권 씨의 자존심에 상처를 준 것에 대한 자책이 담겨 있다.

❹ '나'는 권 씨가 행방불명된 이후, 그가 강도로 침입한 날 현관에서 그의 구두를 확인해 보지 않은 것을 뒤늦게 후회하고 있다.

❺ '나'는 강도의 정체가 권 씨임을 알아차리고 그에게 연민을 느끼며 그를 도와주려 했다.

14 배경·소재 **소재의 의미와 기능**

권 씨의 문간방에 세간은 몇 점밖에 없고, 권 씨의 구두만 정갈하고 가지런히 놓여 있는 것으로 보아, ㉡의 구두는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암울한 삶을 살아가던 권 씨가 끝내 지키려 한 자존심을 상징한다. 구두를 가족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담긴 소재로 볼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노트 ❶ 서술자는 구두의 손질 정도에 따라 권 씨의 운명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

❷, ❸ 반짝반짝 닦아 놓은 구두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권 씨에게 마지막 자존심이지만, 그의 가난한 삶과는 대비된다.

❺ 권 씨는 '구두코가 유리알처럼 반짝반짝 닦여져 있을 때 자존심은 그 이상으로 광발이 올려져 있었을 것'이며, 이와 같이 권 씨는 현실에서 겪는 좌절을 반짝거리는 구두를 통해 심리적으로나마 보상받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알아 두기 '구두'의 의미

열 켤레의 구두	→	아홉 켤레의 구두
도시 빈민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자신은 지식인이라는 권 씨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상징함		권 씨의 행방불명을 상징하며, 마지막 자존심마저 잃게 된 권 씨의 처지를 드러냄

15 종합 **작품의 종합적 감상**

이 글은 외부 이야기와 내부 이야기로 이루어진 액자식 구성을 취하고 있지 않으므로 ④는 엮어 읽기를 위해 세운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노트 ❶ 이 글은 권 씨가 행방불명된 이후 그의 행적에 관한 이야기를 생략한 채 이야기를 끝맺는 열린 결말 처리로 독자의 궁금증을 유발하고 여운을 주고 있다.

❷ 이 글은 '구두'라는 상징적인 소재를 활용해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려는 인물의 내면 심리를 표현하고 있다.

❸ 이 글에서는 관찰자의 입장에 있는 서술자인 '나'가 주인공인 권 씨의 삶을 연민의 시선에서 바라보며 서술하고 있다.

❺ 이 글의 주인공인 권 씨는 도시화·산업화의 과정에서 소외된 도시 빈민 계층을 대변하는 인물로, 그의 삶의 이력을 통해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의 고달픈 삶'이라는 주제 의식을 형상화하면서 1970년대 우리 사회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알아 두기 **이 글의 시점**

권 씨	관찰	'나'
• 중심인물 • 서술의 대상	←	• 부수적 인물 • 서술의 주체

↓

1인칭 관찰자 시점

독해 체크 본문 116쪽

❶ 주인공 ❷ 서술자 ❸ 수술비 ❹ 구두 ❺ 소외

어휘 체크 본문 117쪽

1 터벌터벌 **2** 이죽거리다 **3** (1) ㉡ (2) ㉢ **4** ⑤

1 '터벌터벌'은 '천천히 힘없는 걸음으로 걷는 모양.'을 뜻하는 의태어이다. 이 글에서는 권 씨가 먼지 풀풀 이는 언덕길을 힘겹게 걸어 올라오는 모습을 표현하는 데 쓰였다.

2 '이죽거리다'는 '자꾸 밉살스럽게 지껄이며 짓궂게 빈정거리다.'라는 뜻이다. 이 글에서는 강도가 자신의 서툰 행각을 꼬집는 '나'의 말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못마땅하게 여기며 내뱉은 말에 쓰였다.

3 (1)은 현장 교육에서 안전모 착용을 반복 강조했다는 내용이므로, '여러 차례.'를 뜻하는 '누차'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2)는 그리움이 갑자기 밀려왔다는 내용이므로 '갑자기 어떠한 생각이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나는 모양.'을 뜻하는 '불현듯'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4 '망정'은 '괜찮거나 잘된 일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로, '-기 망정이지' 형식으로 쓰여 앞선 행동 덕에 나쁜 일을 피했다는 안도를 나타낸다. 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은 ⑤이다.

오답 노트 ❶, ❷, ❸, ❹ '-을망정'은 앞의 사실을 인정하고 뒤 절에 그와 대립되는 다른 사실을 이어 말할 때에 쓰는 연결 어미로, 쓰임이 다르다.

실전

05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 성석제

여러분은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모범을 보이던 착한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학교에 나오지 않고, 어디에 갔는지도 알 수 없다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나요? 작품 속 황만근 씨는 어디로, 왜 사라진 것일지 생각해 보면서 작품을 감상해 봅시다.

갈래 단편 소설, 농촌 소설
성격 향토적, 해학적, 풍자적
주제 ① 황만근의 덕성과 이타적인 삶에 대한 예찬
② 부채로 얼룩진 농촌 현실에 대한 고발과 각박한 인심에 대한 비판
특징 • '전(傳)'의 형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구성됨
• 1990년대 농촌 현실의 문제점을 고발함
• 이기적인 현대인에 대한 비판 의식이 드러남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①

본문 118~119쪽

감상 스킬로 확인하기

인물·사건
• 황만근이 없어진 것에 이장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나요?
> 황만근의 부재보다 소여물을 주지 못하는 것을 더 걱정하고 있어요.
• 민 씨가 이장에게 버럭 소리를 지른 까닭은 무엇인가요?
> 이장이 황만근에게는 경운기를 타고 가라고 하였으면서 정작 자신은 트럭을 타고 갔기 때문이에요.

배경·소재
• 농민들이 시위의 뜻과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해 국도에서 한꺼번에 여러 대를 끌고 가기로 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경운기

서술
• 이 글에서 사투리와 비속어를 사용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나요?
> 현장감과 사실감을 높이고 향토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어요.

문제

1 ⑤ **2** ⑤ **3** ④ **4** ④

학습 노트
• **진상:** 사물이나 현상의 거짓 없는 모습이나 내용.
• **역순행적 시간 구성:** 시간이나 사건의 순서를 뒤바꿔 전개하는 방식

1 서술 **서술상의 특징**
시간상 황만근이 궐기 대회에 갔다가 사라진 것이 먼저 일어난 일인데, 황만근이 실종된 후 마을 사람들이 모인 장면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여 황만근이 실종되기까지의 행적에 대한 독자의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다.

오답 노트 ❶ 이 글은 시점의 변화가 나타나 있지 않다.
❷ (나), (다)에서는 서술보다 민 씨와 이장 간의 대화를 중심으로 황만근의 실종이라는 사건의 정황을 제시하고 있다.

❸ 이 글은 전지적 시점으로 서술자가 작품 밖에 위치하고 있다.
❹ 이 글은 외부 이야기 속에 내부 이야기가 삽입된 액자식 구성을 취하고 있지 않다.

알아 두기 역순행적 구성의 효과

역순행적 구성	황만근이 사라진 것이 먼저 일어난 사건인데, 황만근이 실종된 후 마을 사람들이 모인 장면으로 이야기를 시작함
↓	
효과	• 독자가 이야기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흥미를 유발함 • 황만근의 삶을 추적하는 내용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짐 •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황만근의 죽음을 극적으로 제시함

2 인물·사건 인물의 특징과 태도

도시에서 귀농한 민 씨는 이장과 달리 황만근을 바보로 생각하지 않으며, 황만근의 실종에 관심을 갖고 이장에게 그 경위를 묻고 있다. 하지만 민 씨가 궐기 대회에 동참하지 않은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노트 ❶ 이장과의 대화에서 민 씨가 황만근을 바보로 생각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❷ 이장의 말에서 민 씨가 도시에서 살다가 망하여 귀농한 외지 사람임을 알 수 있다.
❸, ❹ 민 씨는 황만근이 없어진 경위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듯 이장에게 묻고, 이장은 계속 빈정거리듯 말하며 민 씨를 모욕한다. 이 과정에서 민 씨와 이장의 갈등이 점점 고조된다.

3 배경·소재 소재의 기능

궐기 대회는 농가 부채 문제가 심각했던 당시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보여 주는 소재로, 황만근은 이 궐기 대회에 방침대로 경운기를 타고 참석하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 따라서 궐기 대회는 황만근의 우직한 성품을 드러내는 동시에 황만근의 실종을 불러일으킨 계기에 해당한다.

오답 노트 ❶ 군청은 농가 부채 탕감 촉구 전국 농민 총궐기 대회가 열리기로 한 장소이다.
❷ 트럭은 이장이 궐기 대회의 방침을 어기고 대회에 참여할 때 이용한 교통수단이다.
❸ 경운기는 궐기 대회에 방침대로 참여한 황만근의 우직한 성격을 보여 주는 동시에, 혼자 경운기를 타고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황만근의 실종과 관련된 소재이다. 그러나 당시 농촌이 경제적으로 어려웠음을 보여 주는 소재로 볼 수 없다.
❺ 마을 회관은 이 소설의 배경이자, 발단 부분에서 황만근의 실종을 알리는 장소이다.

4 인물·사건 인물의 심리와 태도 + 서술 서술 방식

㉣에서 이장은 자가용으로 간 사람들과 자신을 구별하며 우월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동네 사람들의 행동을 핑계 삼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오답 노트 ❶ 돌아오지 않은 황만근의 안위보다 소여물을 주지 못하는 것을 더 걱정하는 이장의 모습에서 이장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면모를 알 수 있다.
❷ 이장은 자신은 이장의 직무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궐기 대회 방침을 지키지 않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다.
❸ 진짜로 경운기를 타고 가면 군 대회에는 늦었을 것이라는 말을 통해 경운기를 타고 가는 것이 실제로는 실천하기 어려운 방침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❺ 민 씨는 원칙을 지킨 사람은 손해를 보고, 약삭빠르게 행동한 사람은 손해를 보지 않은 것을 꼬집으며 이장의 모순된 행동을 추궁하고 있다.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②

본문 120~121쪽

감상 스킬로 확인하기

인물·사건
• (라)에서 마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 마을의 궂은일을 도맡아 하던 황만근의 부재를 느끼고 있어요.
• 마을 사람들이 시비를 가려 달라며 황만근에게 찾아가는 데서, 황만근이 어떤 인물임을 알 수 있나요?
> 공평무사하게 일을 처리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어요.

배경·소재
• 마흔다섯 살의 황영석이 젊은 축에 든다는 것에서 어떤 현실이 드러나나요?
> 고령화된 농촌의 현실이 드러나요.

서술
• (마)와 (바)에서는 황만근의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묘사하여 해학성을 극대화하고 있나요? (○, ⊗)
(마)와 (바)에서는 황만근의 성실하고 이타적인 모습이 드러날 뿐, 황만근의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묘사하여 해학성을 극대화하고 있지 않다.

문제

5 ④ **6** ③ **7** ②

학습 노트

• **이해타산**: 이해관계를 이모저모 모두 따져 봄. 또는 그런 일.

5 서술 서술상의 특징과 효과

(라)~(바)에서는 황만근이라는 인물의 됨됨이를 여러 가지 일화를 통해 보여 줄 뿐, 중심인물인 황만근의 심리 변화가 드러나 있지는 않다.

오답 노트 ❶ 등장인물의 말이 구어체의 사투리로 제시되어 현장감과 향토성이 잘 드러나고 있다.
❷ 황만근의 행적에 초점을 맞추어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❸ 황만근의 성실하고 이타적인 삶을 보여 주는 여러 가지 일화를 제시하고 있다.
❺ 이 글에서는 이타적인 황만근과 달리 이해타산적인 마을 사람들을 그려 냄으로써 황만근의 덕성을 예찬함과 동시에 각박한 인심을 비판하고 있다.

6 인물·사건 인물의 심리와 태도

(라)에서 황만근은 여씨 노인처럼 일찍 남편을 잃고 혼잣몸이 된 노인들에게는 더 자주 거름을 가져다주며 그들을 알게 모르게 보살폈음을 알 수 있다.

▶ 정답의 근거

라 『황영석처럼 제가 펐다고 바로 제 밭에 가져다가 뿌리지는 않았다. 특히 여씨 노인처럼 일찍 남편을 잃고 혼잣몸이 된 노인들에게는,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더 자주 거름을 가져다주었다.』

『 』: 공평무사하고 배려심이 있는 황만근의 성품이 드러남

황만근과 대비되는 황영석의 이기적이고 이해타산적인 면모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

오답 노트 ❶ (라)에서 마을 사람들은 '황만근가'를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리게 되면서 황만근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마을 사람들이 황만근을 그리워하며 '황만근가'를 부른 것은 아니다.

❷ (라)에서 황만근은 남들이 꺼리는 분뇨를 퍼내는 일을 군말 없이 하면서도 공평하게 분뇨를 나누어 주었다고 하였을 뿐, 황영석이 공평하게 분뇨를 나누는 황만근에게 불만을 표했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❹ (마)에서 황만근은 어머니와 아들을 지극정성으로 챙기면서도 정작 자신은 상 없이 밥을 먹었다고 하였다.

❺ (마)에서 황만근이 만든 음식을 맛본 마을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감탄을 하게 마련이었다고 하였다. "희한할세, 바보가."라고 한 것은 바보가 만들었음에도 음식이 맛있다는 감탄의 표현이다.

7 인물·사건 인물의 심리와 태도 + 주제 작가의 의도

황만근이 분뇨 퍼내기 같은 마을의 궂은일을 군말 없이 벙글벙글 웃으면서 했던 것은 그가 성실하고 낙천적인 성격임을 보여 줄 뿐, 그가 평균치에 못 미치는 인간임을 보여 준다고 볼 수는 없다.

오답 노트 ❶ (바)에서 황만근이 염습과 산역같이 다들 기피하는 마을의 일을 도맡아 했다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황만근의 희생정신을 엿볼 수 있다.

❸ (바)에서 황재석은 마을 일에 대한 황만근의 수고에 고마워하지 않고 그를 '반근이'라고 부르며 오히려 자신들이 일을 시켜 주는 것에 고마워하라는 태도를 보인다. 이를 통해 황재석이 황만근을 하대와 조롱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❹ (라)에서 황만근은 마을 공통의 분뇨를 퍼냈을 때 마을 공통의 분뇨장으로 가져가 충분히 익힌 후에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데 반해 황영석은 분뇨를 자기가 펐다는 이유로 자기 밭에 가져다 뿌렸다고 하였다. 이처럼 황영석이 황만근과 달리 자신의 이익을 우선으로 여기며 행동하는 것에서 이기적이고 이해타산적인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❺ (라)에서 일찍 남편을 잃고 혼잣몸이 된 여씨 노인은 거름이 오지 않자 자신에게 거름을 더 가져다주었던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또한 아이들은 소꿉장난을 하다가 시비를 따질 일이 생겨 황만근의 부재를 느끼게 되었다. 이처럼 마을 사람들이 황만근의 부재를 느끼는 데서 모자란 듯한 황만근이 정작 마을에서 가장 필요한 인물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알아 두기 황만근과 마을 사람들의 대비

황만근		마을 사람들
• 마을의 궂은일을 도맡아서 함 • 보살핌이 필요한 이웃을 더 챙김 • 공평무사함	↔ 대비	• 황만근에게 일을 시키고 제값을 주지 않거나 제값을 줄 때는 공치사를 함 • 이해타산적임

↓

황만근의 성실하고 이타적인 성품을 부각함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③

본문 122~123쪽

감상 스킬로 확인하기

인물·사건

• (아)에서 이장이 마을 회관 밖에서 황만근을 따로 붙들고 부탁한 일은 무엇인가요?

> 문구를 써 붙인 경 운 기를 몰고 궐기 대회에 가 달라는 것이었어요.

• (자)에서 알 수 있는 황만근이 평생 지키며 살아온 농사꾼으로서의 원칙은 무엇인가요?

> 남의 돈에 기대지 않고 빚을 지지 않으며 제 힘으로 농사짓는 것이에요.

배경·소재

• (사)에서 한 가구의 파산이 이웃의 연쇄적인 파산으로 이어지게 만든 제도는 무엇인가요? 연대 보증

서술

• (자)에서 괄호로 묶인 부분은 황만근의 말을 들은 민 씨의 해석을 덧붙인 것인가요? (◯ ×)

(자)에서 괄호로 묶인 부분은 농촌의 문제점에 대해 황만근이 한 말에 민 씨가 동조하는 입장에서 자신의 해석을 덧붙인 것이다.

문제

8 ④ 9 ④ 10 ②

학습 노트

• **팽배**: 어떤 기세나 사조 등이 매우 거세게 일어남.
• **경종**: 잘못된 일이나 위험한 일에 대하여 경계하여 주는 주의나 충고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8 인물·사건 사건의 전개 양상

(사)에 궐기 대회가 열리기 전날 마을 사람들이 모여 부채 문제를 언급하는 모습은 나타나지만 이를 두고 마을 사람들이 서로 대립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노트 ❶ (자)에서 황만근은 "저도 남도 해로운 농약 뿌리고 비싸고 나쁜 비료 쳐서 보기만 좋은 열매 뺏으마 그마이가?"라고 하였다.

❷ (아)에서 이장은 황만근에게 농민 궐기 대회에 자네같이 똑부러지게 농사짓는 사람이 앞장서야 한다며 경운기를 끌고 가는 일에 황만근을 앞세우려 했음을 알 수 있다.

❸ (자)에서 황만근은 자신이 빚을 지지 않은 이유가 사람들이 자신을 바보로 봐서 빚을 준다고도, 보증을 서라고도 하지 않아서라고 하였다. 하지만 그가 한 말들을 통해 농사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❺ (아)에서 민 씨는 우연히 이장이 황만근을 붙들고 궐기 대회에 참가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하였다.

9 서술 서술 방식의 특징과 효과

(자)는 당시 농촌의 문제점에 대해 황만근이 한 말을 제시하고, 민 씨가 이에 동조하는 입장에서 자신의 해석을 덧붙인 것을 괄호 안에 제시하고 있다.

오답 노트 ❶ 주인공 황만근의 말을 직접 인용 형태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인물의 내적 갈등을 보여 준 것은 아니다.

❷ 작중 인물인 민 씨의 시각에서 주인공 황만근이 한 말을 제시하고 있다.

❸ 주인공 황만근의 말에 민 씨의 생각을 덧붙이고 있는데, 민 씨는 황만근의 시각에 동조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가치관의 차이가 드러나고 있지는 않다.

❺ 서로 다른 장소에 동시에 일어난 사건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10 인물·사건 **인물의 가치관** + 배경·소재 **시대적 배경에 따른 작품 감상**

㉡에는 기계화 영농 정책에 따라 부채로 마련한 기계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는 기계화 영농이 농민에게 도움이 되기보다 오히려 빚을 지게 하는 당시 농촌의 현실을 보여 준다.

오답 노트 ❶ ㉠은 융자금으로 과도하게 시설에 투자한 사례들이다. ㉠ 앞에서 '한번 빚을 지면 그 빚을 갚으려고 무리하게 일을 벌인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이는 빚이 또 빚을 부르는 악순환의 현실을 보여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❸ ㉢에서는 과거와 달리 서로 도와 가면서 농사를 짓지 않는 농촌의 현실이 나타나는데, 이는 〈보기〉에서 언급한 개인주의의 팽배로 공동체 의식이 상실된 모습이라 볼 수 있다.

❹ ㉣에서는 융자를 쉽게 제공하여 농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정책이 오히려 사람들을 파산 지경으로 몰아넣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❺ ㉤ 앞에서 황만근은 바보라는 이유로 융자를 권유받거나 보증을 서 달라는 부탁을 받지 않아 빚을 지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자기 짓고 싶은 대로 농사지으면서 망하지 않고 살 것이라는 황만근의 말은, 부채 없이 성실하게 노동하는 삶의 가치를 보여 주고 있다.

알아 두기 **황만근의 말에 나타난 당시의 농가 부채 현실**

어수룩한 줄만 알았던 황만근의 말을 통해 작가가 비판하고자 한 농촌 사회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황만근의 말

"농사꾼은 빚을 지마 안 된다 카이."

↓

당시의 농가 부채 현실

- 기계화 영농 정책이 농가 부채 문제를 심화시킴
- 농기계 구입비 등 농사 비용에 비해 수매가가 낮아 농가의 빚이 늘어남
- 정부의 각종 자금 지원이 농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함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④

본문 124~125쪽

감상 스킬로 확인하기

인물·사건

- 황만근은 실종된 지 일주일 만에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나요?

> 항아리에 담긴 뼈가 되어 아들의 품에 안겨 돌아왔어요.

배경·소재

- (타)에서 황만근이 취하도록 마신 '땅의 젖'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 경우기에 실려 있던 (막걸리 농약)을/를 가리켜요.

서술

- (카)에서 황만근에 대한 서술자의 서술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 황만근을 황 선 생이라고 높여 부르고 있어요.

- 이 글은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나요?

> 황만근의 삶의 내력과 죽음에 대해 요약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드러내는 묘 비 명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문제

11 ⑤ **12** ⑤ **13** ⑤ **14** ③

학습 노트

- **경지:** 몸이나 마음, 기술 등이 어떤 단계에 도달해 있는 상태.

11 인물·사건 **인물의 면모**

(카)에서 황만근은 공에는 자신보다 남을 내세워 뒷사람을 놀라게 하는 사람이었다고 하였으므로, 자신의 공을 적절히 내세울 줄 알았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의 근거

카 황만근, 황 선생은 어리석게 태어났는지는 모르지만 해가 가며 차츰 신지(神智)가 돌아왔다. 하늘이 착한 사람을 따뜻이 덮어 주고 땅이 은혜롭게 부리를 대어 알 껍질을 까 주었다. 그리하여 후년에는 그 누구보다 지혜로웠다. 그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듯 그 지혜로 어떤 수고로운 가르침도 함부로 남기지 않았다. 『스스로 땅의 자손을 자처하여 늘 부지런하고 근면하였다. 사람들이 빚만 남는 농사에 공연히 뼈를 상한다고 하였으나 개의치 아니하였다. 사람 사이에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나 함께하였고 공에는 자신보다 남을 내세워 뒷사람을 놀라게 했다.』

황만근을 높여 이름 → 황만근에 대한 서술 방식의 변화
황만근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평가와 다른 평가
사람들이 황만근의 지혜를 알아보지 못한 까닭
『 』: 황만근의 이타적이고 성실한 삶에 대한 요약

오답 노트 ❶ (카)에서 '황 선생은 어리석게 태어났는지는 모르지만' '후년에는 그 누구보다 지혜로웠다'고 한 것으로 보아 적절하다.

❷ (카)에서 황만근은 '늘 부지런하고 근면하였'고, '사람 사이에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나 함께하였'다고 한 것으로 보아 적절하다.

❸ (카)에서 '그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듯 그 지혜로 어떤 수고로운 가르침도 함부로 남기지 않았다'고 한 것으로 보아 적절하다.

❹ (파)에서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감탄하지 않는 삶이었지만 선생은 깊고 그윽한 경지를 이루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적절하다.

12 인물·사건 **사건의 전개 양상**

황만근이 모는 경운기는 빠르게 달리는 차들과 여러 번 부딪힐 뻔하거나 사고를 당할 뻔했으나 실제 사고는 어두워진 뒤 경운기가 길옆의 논으로 떨어진 것이었다.

정답의 근거

타 경운기에는 빠르게 달리는 차량의 주의를 끌 만한 표지가 없어서 선생은 몇 번이나 사고를 당할 뻔했다. 그때마다 멈추었다가 다시 출발하는 바람에 시간은 점점 늦어졌다. 어두워지면서 경운기는 길옆의 논으로 떨어졌고 수레는 부서졌다.

황만근이 실제 겪은 사고

오답 노트 ❶ 황만근은 마른 봄바람에 섞인 먼지가 눈을 괴롭히고, 흐리고 추운 날씨에 비가 오는 것을 피할 수도 없었지만, 끝까지 방침대로 경운기를 타고 군청으로 갔다.

❷ 황만근이 궐기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경운기를 타고 면 소재지로 갔지만 경운기를 끌고 온 사람은 황만근뿐이었기에, 그는 홀로 경운기를 끌고 군청까지 갔다.

❸ 황만근이 군청 앞까지 갔을 때 이미 대회는 끝나고 아무도 없었다고 하였다.

❹ 황만근은 군청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나 길옆의 논으로 떨어졌고, 경운기 옆에서 술을 마신 뒤 추위와 졸음 속에서 죽음에 이르렀다.

13 종합 **작품의 종합적 감상**

㉤은 황만근의 죽음 이후, 그의 죽음을 기리는 글을 남긴 민 씨가 귀농했던 새터 말을 떠나 다시 도시로 돌아갔음을 의미한다.

오답 노트 ❶ ㉠에서 아들이 항아리에 '그의 뼈'를 담고 돌아왔다는 것은 황만근이 죽음을 맞이했음을 의미한다.

❷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부채를 갚기 어렵기에 ㉡과 같이 '빚만 남는 농사에 공연히 뼈를 상한다'고 한 것이다.

❸ ㉢은 더위를 식혀 주는 나무 그늘에 황만근의 덕을 비유한 것이다.

❹ ㉣에서 '이 어찌 하늘이 ~ 사람이라 아니할 수 있겠는가 / ~ 사람이 아니랴'와 같이 유사한 구절을 반복하여 황만근의 뛰어난 인품을 강조하고 있다.

14 인물·사건 **서술자의 태도** + 서술 **결말의 구성 방식과 효과**

묘비명의 형식을 빌려 황만근에 대한 민 씨의 예찬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황만근의 행적과 면모를 객관적으로 드러낸다고 볼 수 없다.

오답 노트 ❶ 묘비명은 묘비에 죽은 사람의 이름과 경력 등을 새긴 글로, 묘비명 형식으로 황만근의 삶을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그의 죽음을 기리고 있다.

❷, ❺ (카)에서 황만근이 살아온 삶의 내력을 제시함으로써 그의 성실하고 이타적인 삶을 보여 주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을 강조하고 있다.

❹ (타)에서 황만근의 행적을 요약적으로 밝혀 그의 실종 및 죽음에 이른 과정 등에 대한 독자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고 있다.

독해 체크 본문 126쪽

❶ 반근 ❷ 이타적 ❸ 긍정적 ❹ 흥미 ❺ 역순행적 ❻ 농촌

어휘 체크 본문 127쪽

1 ② **2** 솔선수범 **3** ④

1 '상환'은 빌린 돈이나 물건 등을 '갚거나 돌려줌.'이라는 뜻이고, '연대 보증'은 '보증인이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보증.'을 뜻한다. 재해를 입은 농가의 대출금을 갚는 기한을 미뤄 준 것이므로 첫 번째 빈칸에는 '상환'이, 이웃의 빚에 함께 책임을 지기로 약속한 사람들을 가리키므로 두 번째 빈칸에는 '연대 보증'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2 '남보다 앞장서서 행동해서 몸소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됨.'을 의미하는 말은 '솔선수범'이다. 이 글에서 민 씨는 마을의 지도자인 이장이 궐기 대회에 갈 때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지 않고 편하게 트럭을 타고 간 모순된 상황을 비판하고 있다.

3 〈보기〉의 '사설'은 '늘어놓는 말이나 이야기.'라는 뜻이다. 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은 ④이다. ①은 신문이나 잡지에서 글쓴이의 주장이나 의견을 써내는 논설을 뜻하고, ②는 판소리에서, 창을 하는 중간중간에 가락을 붙이지 않고 이야기하듯 엮어 나가는 말을 의미한다. ③과 ⑤는 어떤 시설을 개인이 사사로이 설립함을 뜻한다.

실전 06

운영전 | 작자 미상

슬픈 사랑 이야기는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가슴을 울리며 감동을 줍니다. 이 작품은 궁녀와 선비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그린 소설인데요, 고전 소설에서는 보기 드물게 비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궁녀인 운영과 김 진사의 목소리로 듣는 사랑 이야기, 지금부터 감상해 봅시다.

갈래 고전 소설, 애정 소설, 액자 소설
성격 비극적, 비판적
주제 이루어질 수 없는 비극적인 사랑, 억압된 삶에 대한 저항
특징
- 궁녀들의 억압된 삶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드러남
- 액자식 구성으로 외부 이야기는 전지적 서술자 시점, 내부 이야기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됨
- 고전 소설의 보편적인 주제인 권선징악에서 벗어나 자유연애 사상을 보여 줌

운영전 ① 본문 128~129쪽

감상 스킬로 확인하기

인물·사건

- (가)에서 대군이 김 진사를 술자리에 초청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 손님들이 진사가 지은 [시]를 돌려 보고 칭찬하며 그를 만나 보고 싶어 했기 때문이에요.
- (나)에서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김 진사에게 마음을 전했나요?
  > 벽에 구멍을 뚫고 그 사이로 봉한 [편][지]를 던졌어요.

서술

- 이 작품은 동일한 시기에 일어났던 두 가지 사건을 액자식 구성으로 전달하고 있나요? (○, ⊗)

  이 작품에서 내부 이야기인 운영과 김 진사의 사랑은 '수성궁'을 배경으로 전개된다. 그런데 유영이 등장하는 외부 이야기는 '수성궁 옛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운영과 김 진사의 사랑이 펼쳐진 시기와 유영이 수성궁 옛터를 찾은 시기는 서로 다르므로, 동일한 시기의 두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가)와 (나)의 서술자는 누구인가요?
  > 작품 속 인물인 [운][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고 있어요.

문제

1 ④ **2** ⑤ **3** ③ **4** ②

학습 노트

- **고사:** 유래가 있는 옛날의 일. 또는 그런 일을 표현한 어구.

1 인물·사건 **사건 및 인물의 심리와 태도**

대군은 이전과 달리 수척해진 김 진사의 모습을 보고, 위로하며 글 원의 고사를 인용하여 그 까닭을 묻고 있다. 따라서 언짢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노트 ❶ (가)에서 궁에 온 김 진사를 보고 '예전의 기상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운영은 이전에도 김 진사를 만난 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❷ (가)에서 대군이 술자리에 모인 손님들에게 김 진사가 지은 시 두 편을 내보였더니 모인 사람들이 칭찬하기를 마지않았다는 내용을 통해 김 진사가 뛰어난 글솜씨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❸ (가)에서 김 진사는 자신이 병이 들어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고 대군에게 말하였다. (나)에서 김 진사가 운영의 편지를 읽고 '그리워하는 정이 지난날보다 곱절이 되어 버틸 수 없을 지경'이었다는 내용을 보아, 김 진사의 병은 운영에 대한 그리움 때문임을 알 수 있다.

❺ (나)의 '제가 벽에 구멍을 뚫고 엿보니 진사 역시 제 뜻을 알고 모퉁이를 향해 앉아 있더군요.'라는 내용을 통해, 운영은 자신과 김 진사의 마음이 통했다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2 서술 시점 및 서술 방식의 특징

(가)와 (나)는 내부 이야기로, 1인칭 서술자인 운영의 경험과 생각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다. ⓜ은 김 진사가 집으로 돌아간 뒤 김 진사의 심리를 서술한 것으로, 운영이 그 자리에 없었으므로 직접 보거나 겪은 일이 아니다.

배경지식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제약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이야기 내부에 등장하는 인물이 자신이 경험하고 느낀 것을 서술한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건은 전달할 수 없으므로, 이런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거나 전해 들은 이야기를 요약해 제시하는 방법 등을 사용한다.

3 서술 구성의 특징

(가)와 (나)는 ⓑ에 해당하는 이야기로 운영과 김 진사가 겪은 과거의 일이다. ⓐ는 죽은 운영과 김 진사가 유영에게 나타나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므로, 시간상 현재인 ⓐ의 일이 과거인 ⓑ의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오답 노트 ❶ (가)와 (나)는 운영과 김 진사가 서로 마음을 확인하고 편지를 주고받으려 하는 사랑 이야기로, ⓑ에 해당한다.

❷ 이 작품은 선비 유영이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꿈속에서 운영과 김 진사를 만나(외부 이야기), 그들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내부 이야기)를 다 듣고 깨어나는(외부 이야기) 액자식 구성을 취하고 있다.

❹ ⓑ의 김 진사와 운영의 이야기를 듣는 청자는 ⓐ의 유영으로, 유영은 술을 마시고 잠들었다가 꿈속에서 운영과 김 진사를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❺ ⓐ의 공간적 배경은 안평 대군의 궁궐인 수성궁 옛터이고 ⓑ는 과거의 수성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알아 두기 이 작품의 구조

이 작품은 유영이 수성궁 옛터에 가서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꿈속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후 깨어나는 구조로 전개된다.

외부 이야기
유영이 수성궁 옛터에서 잠들었다가 깨어남 죽은 운영과 김 진사를 만남
내부 이야기
운영과 김 진사의 비극적 사랑 이야기

4 배경·소재 공간의 상징적 의미

〈보기〉에는 궁녀들의 억압된 삶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이 작품의 운영 역시 자신의 신분 때문에 김 진사에 대한 사랑을 자유롭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수성궁'은 궁녀로서의 사회적 제약이 나타나는 억압적인 공간을 상징한다.

오답 노트 ❶ 궁녀가 다른 남자와 사랑하면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수성궁을 자유로운 사랑을 꿈꿀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 없다.

❸ 이 작품에서는 궁녀라는 제한된 신분으로 인해 몰래 사랑을 전하는 궁녀의 이야기가 전개된다. 따라서 수성궁은 중세적 질서라는 시대의 모순에 대해 인물이 갈등하는 현실적인 공간이지만, 인물의 내면 자체를 형상화한 내면 공간이라고 볼 수는 없다.

❹ 수성궁은 궁녀라는 신분으로 인해 평생 궁의 주인만을 바라보며 살아야만 하는 불합리한 현실이 드러나는 공간이다. 수성궁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신분 상승을 꾀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❺ 수성궁이 궁녀로서의 비극적인 삶을 보여 주는 것은 맞지만, 궁녀가 능력을 펼치지 못한다는 내용은 (가)~(나)에 나타나 있지 않다. 또한 이 작품의 서 궁녀들은 시를 짓는 솜씨가 뛰어난 인물들로, 자신의 문학적 능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다만 궁녀들이 대군의 소유물과 같은 존재들이어서 억압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제약이 따를 뿐이다.

운영전 ②

본문 130~131쪽

감상 스킬로 확인하기

인물·사건

- (다)에서 무녀가 김 진사에게 편지를 전해 달라는 운영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은 까닭은 무엇인가요?

> 김 진사가 자신에게 마음이 없는 것에 유감을 품었기 때문이에요.

- (라)에서 운영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인물은 누구인가요?

자란

- (라)에서 운영은 비취의 물음에 자신의 처지를 솔직하게 밝히고 있나요? (○, ⊗)

비취는 이미 사정을 눈치채고 안색을 핑계 삼아 운영을 떠보고 있다. 이에 운영은 김 진사를 향한 마음을 감추려고, 더위 먹는 병이 도졌다는 말로 둘러대며 사실대로 밝히고 있지 않다.

배경·소재

- (마)에서 운영이 가을이 된 것을 기뻐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 중추에 밖으로 나가 무녀를 찾아 김 진사에게 편지를 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에요.

문제

5 ⑤ **6** ② **7** ①

학습 노트

- **추궁하는:** 잘못한 일에 대하여 엄하게 따져서 밝히는.

5 배경·소재 소재의 기능

㉠은 운영이 스스로 찾아 부탁한 대상이지만, ㉡을 기회로 삼는 방책은 자란이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마음을 전하려는 계획을 모두 운영이 스스로 마련한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정답의 근거

라 어느 날 저녁, 자란(운영의 조력자)이 저에게 몰래 말했습니다.

"궁중 사람들은 매년 중추(仲秋)에 탕춘대 아래 물가에서 완사를 하고 뒤이어 술자리를 마련한 다음 끝내곤 한다. 금년에는 이 자리를 소격서동에서 베풀고, 오가는 사이에 그 무녀를 찾아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책일 것이다." (운영을 돕기 위해 방책을 제시함 – 중추에 궁 밖으로 나갈 수 있으므로 이때 무녀를 찾아가라고 함)

6 인물·사건 대화의 양상과 인물의 의도

'비취가 어디서 그 말을 엿듣고는 짐짓 모른 체하면서 저에게 말했습니다.'라는 구절을 통해, 비취는 이미 운영의 상황과 처지를 모두 눈치채고 있으면서 운영을 걱정하는 척하며 은근히 떠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노트 ❶ 비취의 말은 조롱하는 의도로 이해할 수 있으나, 운영의 말은 퉁명스럽다고 보기 어렵다.

❸ 비취는 이미 운영의 사정을 눈치채고 있으면서 일부러 떠보고 있으므로 단순한 호기심에서 한 질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❹ 비취의 말은 운영을 걱정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운영의 처지를 다 알고 있으면서 운영이 진사와 사랑하고 있음을 말해 주기를 바라며 한 말이다.

❺ 비취가 진실을 말할 것을 추궁하고 있지는 않으며, 운영도 사실대로 말하고 있지 않다.

배경지식 서궁의 궁녀 자란, 은섬, 옥녀, 비취

운영과 함께 서궁으로 간 궁녀들은 운영과 김 진사가 사랑하는 사이임을 알게 된 후,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돕는다. 그뿐만 아니라 안평 대군이 사실을 알고 처벌을 하려 할 때에도 운영의 입장에서 변호를 해 주거나, 함께 책임을 지고 죽겠다고 기꺼이 나서는 등 운영의 입장에 공감하고 운명을 함께하고자 한다.

7 배경·소재 배경의 기능 + 주제 작품의 주제

〈보기〉를 통해 '장신궁'은 반첩여가 쓸쓸하게 늙어 간 곳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는 서궁을 독서당이라 한 옥녀의 말에 대해, 아름다운 곳이라도 자신들은 갇혀 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결국 쓸쓸하게 늙어 갈 수밖에 없다는 탄식을 드러낸 말로 볼 수 있다.

오답 노트 ❷ 서궁의 경치가 아름다워 독서당으로 적당하다는 옥녀의 말에, 운영은 자신들은 도를 닦는 사람도 아닌데 갇혀 있으므로 서궁은 쓸쓸한 '장신궁'과 같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자신들의 처지에 대해 한탄하는 의도이지, 서궁이 독서를 하는 곳도 도를 닦는 곳도 아니라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❸ 운영은 서궁이 독서당이 되려면 도를 닦아야 한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궁중에 갇힌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하는 것이다.

❹ 운영은 깊은 궁중에 갇혀 있는 자신들의 처지를 탄식하고 있다. 따라서 궁이 진정한 이상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❺ 운영은 깊은 궁중에 갇혀 있는 자신들의 처지를 '장신궁'에 빗대어 탄식하고 있을 뿐, 대군의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알아 두기 '궁'에 대한 운영의 생각

장신궁	=	서궁
반첩여가 성제의 관심에서 멀려나 쓸쓸히 늙어 간 곳		외부와 단절되어 사랑의 마음조차 억압당한 채 살아가는 곳

운영전 ③

본문 132~133쪽

감상 스킬로 확인하기

인물·사건

- (바)에서 특이 자기 옷을 찢고 코를 때려 피를 바른 까닭은 무엇인가요?
  > 강도에게 습격당한 것처럼 꾸며 운영의 재물을 가로채려 했기 때문이에요.
- (사)에서 특은 자기가 달아나도 될지 알아보기 위해 누구를 찾아갔나요?
  > 궁궐 담장 아래에 사는 맹인을 찾아갔어요.

서술

- (바)~(사)는 액자식 구성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하나요?
  > 운영이 자신의 지난 일을 들려주는 내부 이야기에 해당해요.

문제

8 ② 9 ③ 10 ②

학습 노트

- **부조리:** 이치에 맞지 아니하거나 도리에 어긋남. 또는 그런 일.

8 인물·사건 사건의 전개 양상

김 진사가 기절한 특에게 약을 먹여 주는 것은 특이 죽으면 재물을 묻은 곳을 알 수 없게 될까 염려했기 때문이다.

▶ 정답의 근거

바 "제가 강도에게 습격을 당했습니다." (운영의 재물을 가로채기 위한 거짓말)

그러고는 기절한 척했습니다. 진사는 특이 죽으면 재물을 묻은 곳을 알 수 없게 될까 염려되어, 약을 입에 흘려 넣는 등 특을 살려 냈습니다. (김 진사가 특에게 약을 먹인 까닭) 그러자 특이 십여 일 만에 일어나 말했습니다.

오답 노트 ❶ 특은 김 진사에게 거짓말을 하고 운영의 재물을 가로채기 위해 일부러 강도당한 척을 한다. 이때 강도를 당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자신의 옷을 찢고 코를 스스로 때려 피를 온몸에 흠뻑 발랐다.

❸ 김 진사는 뒤늦게야 특이 한 일을 알고 노비 십여 명을 거느리고 가서 불시에 특의 집을 포위하고 수색을 한다.

❹ 맹인의 이웃은 특의 거짓말을 듣는데, 이때 들었던 거짓말들이 전파되어 궁중으로 들어가 대군에게 알려지게 된다.

❺ 특은 자신의 죄를 알고 자신을 죽이려는 주인을 피해 달아나는 것이 길하겠냐고 물어보기 위해 맹인을 찾아갔다. 즉 특은 자신의 죄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도망가는 방법이 적절한지를 묻기 위해 간 것으로 볼 수 있다.

9 인물·사건 인물의 말하기 방식

[A]와 [B]는 모두 실제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특이 꾸며 낸 말이다. 따라서 직접 경험한 일을 실제보다 과장한 내용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노트 ❶ [B]에서 특은 '우리 주인은 본래 염치가 없어서'라고 김 진사를 깎아내리는 말을 하고 있지만, [A]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

❷ [A]에서 특은 '이 보물이 아니었다면 제가 어찌 이런 위험에 처했겠습니까?'라며 보물을 맡게 된 상황을 원망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B]에서는 상대방인 맹인을 원망하는 내용이 드러나지 않는다.

❹ [A]와 [B]에서 특이 한 거짓말로 인해 운영과 김 진사는 재물을 잃게 되고, 이 말들이 대군에게까지 전해져 운영이 자결을 하게 된다. 따라서 [A]와 [B]

를 통해 특이 운영과 김 진사의 사랑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⑤ [A]는 특이 운영의 재물에 대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한 거짓말이고, [B]는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고 자신이 처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 거짓말이다.

알아 두기 특의 인물형과 역할

운영의 재물을 가로채기 위한 탐욕 때문에 김 진사를 배신함
↓
안평 대군에게 궁궐의 담을 넘은 도둑 이야기가 알려짐
↓
역할 | 김 진사와 운영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됨

10 주제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의 주제

운영의 죽음은 이성에 대한 순수한 사랑마저 감추어야 하는 현실의 부조리에 대한 저항, 외부와 단절된 채 살아가야 하는 궁녀의 억압된 삶에 대한 저항의 의미를 갖는다.

오답노트 ① 운영은 김 진사와 진실한 사랑을 하지만 이를 억압하고 있는 현실 때문에 자결한 것이므로, 운영의 죽음이 영원한 사랑에 대한 욕망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운영은 자신의 사랑을 억압하는 현실 속에서 결국 자결한다. 따라서 운영의 죽음이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한 미련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억압적 현실로 인해 김 진사와의 사랑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자결하는 것이므로, 운영의 죽음이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순수한 마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⑤ 운영의 죽음은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마저 제한하는 현실의 부조리에 저항하는 행동으로 볼 수는 있지만, 죽음을 부조리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라고 볼 수는 없다.

알아 두기 운영의 죽음이 갖는 의미

인간의 본능적인 감정마저 감추어야 하는 유교 사회의 부조리와 궁녀의 억압된 삶에 대한 저항
↓
인간의 본성에 따른 자유로운 사랑의 추구

운영전 ④

본문 134~135쪽

감상 스킬로 확인하기

인물·사건

- (자)에서 두 사람이 본래 지내던 곳은 어디인가요?

> 옥황상제를 모시던 천 상 세계예요.

- 김 진사와 운영은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기 위해 자주 수성궁을 방문하였나요? (○, ⊗)

김 진사와 운영은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부하고 천상 세계로 돌아가는 중에 옛날 놀던 곳을 찾아온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추억을 떠올리기 위해 자주 수성궁을 방문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배경·소재

- 유영이 잠에서 깨어 현실 세계로 돌아오게 하는 소재는 무엇인가요? 산새 소리
- (카)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는 어떻게 세상에 남게 되었나요?

> 김 진사가 기록한 책 자 가 유영에게 남겨졌기 때문이에요.

서술

- (카)에서는 유영의 행적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나요? (○, ×)

(카)에서는 잠에서 깨어난 후 유영의 행적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며 작품을 마무리하고 있다.

문제

11 ④ 12 ⑤

학습 노트

- **금기:** 마음에 꺼려서 하지 않거나 피함.

11 서술 액자식 구성의 특징

'산새 소리'는 유영이 잠에서 깨어나는 계기가 되는 소재로, ㉡이 잠든 사이의 일이었음을 드러낸다. 따라서 ㉡의 사실성을 높여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노트 ① ㉠에 해당하는 (카)에서는 이야기 밖에 있는 전지적 서술자가 유영의 행적과 심리를 요약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② ㉡은 유영이 김 진사와 운영을 만나는 내용으로 (아)~(차)에 해당하는데, 이는 주로 대화를 통해 전개되고 있다.

③ (아)에서 운영이 이야기를 마치고 김 진사에게 다음 이야기를 이어 갈 것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의 이야기는 운영과 김 진사가 번갈아 가며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아)에서 김 진사가 두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차)에서 기록한 원고를 유영에게 주고 있다.

알아 두기 외화와 내화의 시점

외화(전지적 서술자 시점)
전지적 서술자가 유영과 운영, 김 진사의 행동과 심리를 제시함
내화(1인칭 주인공 시점)
운영과 김 진사가 각각의 시점에서 이야기함

12 인물·사건 사건의 전개 양상 + 배경·소재 소재의 기능

김 진사와 운영이 지상 세계에서 받을 벌은 이미 다 끝나고 옥황상제의 용서를 받은 상태이다. 두 사람이 다시 인간 세계에 태어나기를 거부한 것은 인간의 낙보다 천상의 낙이 낫다고 여겼기 때문이므로, 벌을 피하려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답노트 ① 김 진사와 운영이 인간 세계로 쫓겨난 것은 옥황상제의 명으로 따 온 반도를 함께 먹었기 때문이므로, 이는 '금기의 위반 모티프'라고 할 수 있다.

② 김 진사와 운영이 죽어서 삼청궁으로 올라간 것은 다시 천상 세계로 돌아간 것으로, 이는 지상 세계에서의 징벌이 끝났기 때문이다.

③ 〈보기〉를 보면 주인공이 천상 세계에서 지은 죄의 벌로 지상 세계에서 여러 고난을 겪는다고 했다. 따라서 김 진사와 운영이 인간의 괴로움을 겪는 것은 천상 세계에서의 죄로 인해 벌을 받는 것이다.

④ 김 진사와 운영이 천상 세계에서 반도를 먹은 죄로 인해 지상 세계에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적강 모티프'가 나타난 것이다.

배경지식 삽입 시의 역할

소설에 시를 삽입하면 인물들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낭만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또한 서술 방식을 바꾸어 줌으로써 산문의 단조로움을 피할 수 있다.

독해 체크 본문 136쪽

❶ 궁녀 ❷ 특 ❸ 액자식 ❹ 주인공 ❺ 비극 ❻ 저항

어휘 체크 본문 137쪽

1 ③ **2** (1) ㉢ (2) ㉡ **3** ⑤

1 서궁으로 옮긴 운영이 아무리 경치가 좋아도 갇혀 지내는 삶에 대한 답답함과 쓸쓸함을 토로하자, 다른 궁녀들도 이에 공감하며 탄식하고 슬퍼하고 있다. 따라서 궁녀들의 반응을 나타내기에 가장 적절한 한자 성어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김을 이르는 말.'인 '동병상련'이다.

오답노트 ❶ '각골난망(刻骨難忘)'은 남에게 입은 은혜가 뼈에 새길 만큼 커서 잊히지 아니함을 뜻하는 말이다.
❷ '노심초사(勞心焦思)'는 몹시 마음을 쓰며 애를 태움을 뜻하는 말이다.
❹ '절치부심(切齒腐心)'은 몹시 분하여 이를 갈며 속을 썩임을 뜻하는 말이다.
❺ '좌불안석(坐不安席)'은 앉아도 자리가 편안하지 않다는 뜻으로, 마음이 불안하거나 걱정스러워서 한군데에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안절부절못하는 모양을 이르는 말이다.

2 (1)은 찬 바람이 불 때마다 따뜻한 국물이 떠오른다는 내용이므로, '틀림없이 언제나.'를 뜻하는 '으레'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2)는 앞날을 알 수 없어 밤마다 마음을 놓지 못했다는 내용이므로, '매우 근심함. 또는 그런 마음.'을 뜻하는 '수심'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3 '연작'은 '제비와 참새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⑤는 친구와 다정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는 의미이므로, '연작'이 아니라 '담소' 등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실전 07 **허생전** | 박지원

이 작품은 허생이라는 인물을 통해 조선 후기 사회의 모습과 집권층에 대한 작가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어요. 작품 속에서 당대 사회적·문화적 상황이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작가가 허생이라는 대리인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작품을 감상해 봅시다.

갈래 고전 소설, 한문 소설, 풍자 소설
성격 풍자적, 비판적, 현실 개혁적
주제 무능한 양반 계층에 대한 비판과 현실 개혁 촉구
특징 • 당시의 사회적·문화적 상황이 잘 드러남
• 일반적인 고전 소설과 달리 미완의 결말 구조로 끝맺음
• 냉소적으로 현실을 풍자하며 작가의 실학사상과 가치관이 반영됨

허생전 ① 본문 138~139쪽

감상 스킬로 확인하기

인물·사건
• 허생이 십 년을 기한으로 삼아 몰두하던 일은 무엇인가요?
> 허생은 생계를 돌보지 않고 오직 독서에만 힘썼어요.

배경·소재
• 아내가 생계를 이어 가기 위해 한 일은 무엇인가요? 삯바느질
• 허생은 변씨에게 빌린 만 냥으로 무엇을 해서 십만 냥을 벌었나요?
> 과일과 망건을 사들여 값을 올리는 매점매석을 했어요.

서술
• (가)~(다)의 주된 갈등은 무엇인가요?
> 인물과 인물 사이의 외적 갈등이 드러나요.

문제

1 ② **2** ⑤ **3** ③ **4** ③

학습 노트

• **영웅의 일대기:** 고귀한 혈통 – 기이한 출생 – 버려진 아이 – 비범한 능력 – 시련과 위기 – 조력자의 도움 – 위기 극복과 위대한 업적
• **영웅 소설:** 인물의 출생, 성장, 활동, 사망까지의 일대기를 서술하는 구성
• **아사지경(餓死之境):** 굶어 죽게 된 지경.

1 종합 **작품의 특징**

영웅 소설은 비범한 출생부터 고난 극복까지의 일대기적 구성을 취하지만, 이 작품에는 허생의 출생이나 성장 과정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영웅 소설의 형식으로 볼 수 없다.

오답노트 ❶, ❸ 이 작품은 매점매석이 가능했던 조선 후기의 허약한 경제 구조와 명분만을 중요시하며 허례허식에 빠져 있던 무능한 양반 계층으로 인해 도탄에 빠진 서민들의 생활상 등 당대의 사회적·문화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❹ 이 작품은 이용후생(利用厚生)에 입각하여 상공업 발전을 중시하는 실학적 관점에서 현실 문제를 비판하고 있다.
❺ 이 작품은 전지적 시점으로, '허생은 오직 책 읽기만 좋아할 뿐이어서'와 같이 서술자가 인물의 성향을 직접 제시하고 있다.

2 인물·사건 인물의 처지와 상황

허생의 아내는 남편이 글만 읽을 뿐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즉 남편이 지닌 태도를 탓하는 것이지, 그 까닭을 타고난 처지에서 찾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 정답의 근거

나 부인이 화를 내며 내쏘았다.

『"밤낮으로 글만 읽었어도 배운 것이라곤 오직 '어찌 할 수 있겠소.' 소리뿐이구려. 공장 노릇도 못 한다, 장사치 노릇도 못 한다, 그러면 도둑질이라도 못 한단 말이오?"』

『』: 글만 읽는 양반의 현실적 무능을 정면으로 비판함

남편의 경제적 무능에 대한 반감이 최고조에 다다른 표현

3 인물·사건 인물의 처지와 상황 + 배경·소재 소재의 기능

아내는 허생이 평생 과거를 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은 허생이 하지 않은 일이므로, 이를 위해 준비해 왔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정답의 근거

다 허생이 어쩔 수 없이 책을 덮고 일어섰다.

『"애석하구나! 내 본디 십 년 기한으로 책을 읽으려 했지만, 이제 겨우 칠 년에 이르렀을 뿐이구나."』

『』: 허생의 뜻이 개인적 영달보다 더 큰 데 있음을 암시함

하고 휙 문밖으로 나가 버렸다.

오답 노트 ❶ 허생의 집은 사립문이 은행나무를 향해 열려 있는, 비바람도 채 가리지 못하는 작은 초가집이다. 집으로 드나드는 문 하나를 보여 주는 것만으로 허생 일가의 궁핍한 형편이 단적으로 드러난다.

❷ 허생이 책 읽기에만 몰두할 뿐이어서 그의 아내가 삯바느질로 간신히 입에 풀칠을 하는 지경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삯바느질은 아내가 집안의 생계를 홀로 떠맡고 있음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❹ 아내가 장사치 노릇이라도 해 보라고 하자 허생은 밑천이 없으니 어찌 할 수 있겠느냐고 답한다. 밑천은 허생이 아내의 요구를 거절하며 내세운 이유에 해당한다.

❺ 아내가 도둑질이라도 못 하겠느냐고 쏘아붙이자 허생은 그제야 책을 덮고 일어선다. 책 읽기에만 몰두하는 허생의 태도가 아내의 질타를 불러왔으므로, 책은 두 사람이 갈등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소재이다.

4 인물·사건 다른 작품과의 비교 감상

ⓐ는 현실적인 생계 문제를, ⓑ는 벗어날 수 없는 가난을 문제 삼고 있을 뿐, 두 인물 모두 정신적 가치와 물질적 가치 사이에서 어느 쪽을 택할지 갈등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노트 ❶ 허생의 아내와 〈보기〉의 흥부의 아내는 모두 가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❷ (나)에서 허생의 아내는 밤낮으로 책만 읽는 허생을 원망하고 있다. 하지만 〈보기〉에서 흥부의 아내는 가난 때문에 고생하는 남편에 대해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

❹ (나)에서 허생의 아내는 허생에게 장사라도 하라고 말하며, 가난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보기〉에서 흥부의 아내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말하며 가난한 현실에 대해 좌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❺ 허생의 아내는 일하지 않고 책만 읽는 허생을 탓하고 있고, 〈보기〉의 흥부의 아내는 열심히 일해도 벗어나지 못하는 가난한 상황을 탓하고 있다.

허생전 ②

본문 140~141쪽

감상 스킬로 확인하기

인물·사건

- 당시 지식 계층에 대한 허생의 부정적 인식이 나타나는 2음절의 단어는 무엇인가요? 화근
- 허생이 변씨에게 화를 낸 까닭은 무엇일까요?

> 글 읽기에 목표가 있는 자신에게 이자에 대해 말한 변씨의 태도가 자신을 장사치처럼 대하는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에요.

배경·소재

- 허생이 이상 사회를 건설하려고 한 곳은 어디인가요? 빈 섬
- '백만 냥이 한 나라 안에서 용납되지 않거늘'이라고 한 부분에 어떤 사회적 배경이 드러나나요?

> 백만 냥에 휘청거릴 정도로 당시 조선의 경제 구조가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어요.

서술

- (라)에서는 허생이 도적들을 데리고 빈 섬에 가서 생활하는 모습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사건 진행을 빠르게 하고 있나요? (◯, ×)

(라)에서는 허생이 도적들을 데리고 빈 섬으로 가서 생활하는 모습이 요약적으로 진술되어 있다. 이를 통해 사건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문제

5 ③ 6 ③ 7 ② 8 ③

학습 노트

- **입신양명(立身揚名)**: 출세하여 이름을 세상에 떨침.
- **봉건적**: 토지를 매개로 주종 관계와 신분 질서를 유지하던 봉건제도의 특성을 뜻하며, 현대에는 주로 낡은 관습이나 사상을 고집하는 태도, 그리고 엄격한 상하 계급 중심의 성향을 이르는 말로 쓰임.

5 인물·사건 인물의 의도

허생은 백만 냥이 좁은 섬에서 용납될 수 없다며 은 오십만 냥을 바닷물에 던져 버리기는 하지만, 이를 새로운 화폐를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알아 두기 조그만 시험

치안 문제 해결	도적들을 데리고 빈 섬으로 들어감
농업을 통한 자급자족	빈 섬에서 농사를 지어 자급자족함
해외 무역 시도	남은 곡식을 일본의 장기도에 팖

↓

빈 섬에서 이상 사회 건설을 시도함

6 종합 작품의 종합적 감상

허생은 섬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든 뒤 문자를 만들려 했으나, 땅이 좁고 자신의 덕이 부족하다며 섬을 떠난다. 따라서 문자를 만든 것은 아니다.

오답 노트 ❶ 허생은 추수가 끝나자 삼 년 동안 먹을 것을 쌓아 놓고, 나머지는 전부 배에 싣고 장기도로 가져가 팔았다. 따라서 장기도라는 곳이 현재 어느 지역을 가리키는지 궁금해할 수 있다.

❷ 이 작품에서 박지원은 '글을 아는 사람'을 화근으로 여기는 대목이 있으므로, 이를 계기로 당대 지식인이나 양반 계층을 비판한 작가의 다른 작품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❹ (라)에서 허생은 해외 무역을 통해 은 백만 냥을 벌 수 있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은 백만 냥이 오늘날 가치로 환산했을 때 얼마쯤 되는지 궁금해할 수 있다.

❺ 허생은 자신의 조그만 시험을 실행해 보기 위해 빈 섬에서 추수한 물건을 가지고 해외 무역을 한다. 따라서 당시 사회는 무역을 기반으로 한 경제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는지 궁금해할 수 있다.

7 주제 **인물의 태도**

㉠에서 허생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든 뒤에 문자와 문명을 세우려 했다고 말한다.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그 위에 문화와 도리를 세울 수 있다고 본 것이다.

8 인물·사건 **인물의 태도**

허생은 스스로 상업의 중요성을 역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장사치 취급을 받는 것은 못마땅해하고 있다. 따라서 ⓐ와 ⓑ는 허생이 갖고 있는 봉건적 계급 의식의 한계를 보여 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노트 ❶ ⓐ와 ⓑ에서 허생이 선비의 도와 상인의 도를 혼동하고 있지는 않고, 도와 재물, 선비와 장사치를 구분하여 말하고 있다.

❷ 허생이 실제로 상업 활동을 통해 이익을 얻고 이를 백성들을 구제하는 데 활용하므로 ⓐ와 ⓑ를 통해 부(富)의 축적보다 유교적 입신양명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❹ 허생이 ⓐ와 ⓑ를 통해 재물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더 많은 재물을 벌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워한다고 볼 수 없다.

❺ ⓐ와 ⓑ에서 허생은 스스로를 장사꾼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을 뿐, 큰 장사꾼임을 내세워 변씨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는 것은 아니다.

허생전 ③

본문 142~143쪽

감상 스킬로 확인하기

인물·사건

- (자)에서 허생은 이완 대장에게 무엇을 제안했나요?

> 올바른 인재등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제안했어요.

- (차)에서 허생은 이완 대장에게 무엇을 제안했나요?

> 조선을 떠도는 명나라 후손들에 대한 예우를 제안했어요.

배경·소재

- 허생이 뛰어난 인재를 가리키기 위해 끌어온 인물은 누구인가요?

>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인재를 와룡선생에 빗대어 말했어요.

서술

- (아)에서 이완 대장에 대한 허생의 태도는 무엇을 통해 드러나고 있나요?

> 이완 대장에 대한 반감이 허생의 행동을 통해 드러나고 있어요.

문제

9 ③ **10** ⑤ **11** ③ **12** ②

학습노트

- **사리사욕(私利私慾)**: 사사로운 이익과 욕심.
- **급진적**: 목적이나 이상 등을 급히 실현하고자 하는 것.
- **배척하고자**: 따돌리거나 거부하여 밀어 내치고자.
- **망명한**: 혁명 또는 그 밖의 정치적인 이유로 자기 나라에서 박해를 받고 있거나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사람이 이를 피하기 위하여 외국으로 몸을 옮기는.

9 인물·사건 **사건의 전개 양상** + 주제 **작가의 의도**

이완 대장은 허생이 제시한 두 가지 제안을 모두 어렵다고만 답할 뿐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못한다. 개혁 구상을 제시하는 인물은 허생이므로, 이를 위해 이완 대장을 등장시켰다고 볼 수 없다.

오답노트 ❶ 허생은 두 번째 제안에서 명나라 후손들을 예우하기 위해 임금의 친족들과 혼인을 시키고 세도가들의 재물을 빼앗아 이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완 대장은 이런 허생의 제안을 실행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이완 대장의 모습을 통해 명나라를 가까이하고 청나라를 멀리하고자 하는 친명 정책의 허구성을 비판한다고 볼 수 있다.

❷ 나라의 형편을 바로잡기 위한 허생의 제안에 대해 계속 실행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이완 대장의 모습을 통해 당시 무능하고 명분만을 추구하던 집권층을 비판한다고 볼 수 있다.

❹ 허생과 이완 대장의 대화를 통해 무능한 양반 계층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❺ 이완 대장은 실제로 존재했던 역사적 인물로, 실존 인물을 등장시켜 작품에 사실성을 부여하고 있다.

배경지식 **이완 대장과 북벌론**

이완(李浣, 1602~1674)은 조선 시대의 무관이다. 효종과 현종 때 훈련대장을 지냈으며, 효종이 북벌을 추진할 때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알려져 있다. 북벌론은 병자호란(1636~1637) 때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항전하다 삼전도에서 청나라에 굴욕적으로 항복한 치욕을 갚기 위해 청나라에 복수하자는 주장이다. 그런데 조선이 병자호란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안정이 되어 가고 청나라가 번성하게 되면서, 북벌론과는 반대로 청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이자는 북학론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허생전」에서 이완이 북벌론을 대표하는 인물이라면, 허생은 이와 반대로 북학론을 대표하는 인물로 볼 수 있다.

10 인물·사건 **인물의 태도**

허생은 임금이 격식을 낮추어 인재를 맞이하게 하고, 종실의 여자들을 명나라 후손에게 시집보내며, 권세가의 재산을 털어 그들의 거처를 마련하라고 요구한다. 모두 기존의 질서와 지배 계층의 이해를 흔드는 일이므로, 그 계층에 속한 이완 대장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이다.

오답노트 ❶ 허생의 태도가 이완 대장에게 냉랭하기는 하지만 이완 대장을 질책하면서 제안하고 있지는 않다.

❷ 허생이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과 욕심을 챙기고 있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❸ 이완 대장은 허생의 제안이 양반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이라고 생각할 뿐, 시대의 흐름과 동떨어진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❹ 이완 대장은 허생의 제안이 문제의 원인을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11 배경·소재 **사회·문화적 배경**

당시 조선은 명나라에 입은 은혜를 중요하게 여겼고, 그 후손들이 조선으로 건너올 수 있었던 것도 그 때문이다. 조정이 명나라를 배척하려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노트 ❶ (자)에서 적극적인 인재 등용을 위해서 임금에게 삼고초려를 하게 할 수 있냐는 질문에 이완 대장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는 데서 권위와 체면을 중시하는 사대부들의 현실을 보여 주고 있다.

❷ (자)와 (차)에서 허생의 제안을 모두 거절하는 이완 대장의 태도로 볼 때 지배층은 실질적인 개혁 의지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❹ (자)에서 올바른 인재 등용에 대해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인재 등용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❺ (차)에서 명나라가 망한 후 그 자손들이 조선으로 탈출하여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며 살고 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12 주제 **작품의 주제**

허생은 인재 등용의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실리 대신 명분만 앞세우는 사대부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여러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은 허생이 문제 삼는 태도가 아니다.

오답노트 ❶, ❸ 허생은 국가적 실리보다 명분을 앞세우고 기득권을 지키려 실천적 개혁을 꺼리는 당시 집권층을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실리보다는 국제적 명분을 중시하는 외교관이나, 공동체 의식 없이 개인적인 부의 축적에만 관심 있는 권력자는 허생이 비판할 만한 인물이다.

❹ 허생은 적극적이고 올바르게 인재를 등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뛰어난 능력을 지녔지만 학벌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지원자를 탈락시킨 기업가를 비판할 만하다.

❺ 허생은 실리를 위해 구체적으로 실천을 하지 않는 당시 집권층을 비판하고 있으므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실천적 대안을 알면서도 위신 때문에 나서지 않는 행정가를 비판할 만하다.

허생전 ④

본문 144~145쪽

감상 스킬로 확인하기

인물·사건

- 허생은 조선의 자제들을 어떤 모습으로 청나라에 보내라고 했나요?

> 변발을 하고 호복을 입혀 들여보내라고 했어요.

- 이완 대장이 허생의 마지막 제안마저 거절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 사대부들이 몸을 삼가고 예법을 숭상하기 때문이라고 답했어요.

배경·소재

- (카)에서 허생은 이완 대장에게 북벌을 위해 어디와 교류할 것을 제안하고 있나요? 청나라(만주의 무리들)

서술

- 이 작품은 고전 소설의 특징인 권선징악의 결말 구조를 보이고 있나요? (○, ⊗)

이 작품은 일반적인 고전 소설의 특징인 착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징계하는 결말 구조를 따르지 않고 미완의 결말로 마무리하고 있다.

문제

13 ⑤ **14** ① **15** ① **16** ③

학습 노트

- **복식**: 옷의 꾸밈새.
- **북벌론**: 중원을 차지한 청나라를 정벌함으로써 병자호란의 치욕을 씻고, 중화 질서의 재건을 모색한 조선 후기의 정치 담론
- **허례허식(虛禮虛飾)**: 형편에 맞지 않게 겉만 번드르르하게 꾸밈. 또는 그런 예절이나 법식.

13 인물·사건 **인물의 가치관**

허생은 형식적인 예법을 버리고 명분보다는 실리를 추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 예법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정답의 근거

카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의 자제(子弟)를 보내어 학문도 배우거니와 벼슬도 하여 당(唐), 원(元)의 고사(故事)처럼 하고, 상인들도 자유롭게 출입하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청한다면 그들은 우리의 친절을 기뻐하며 허락할 것이 분명하오.』 그러면 우리는 『자제들을 가려 뽑아, 변발(辮髮)하고 호복(胡服)을 입혀 들여보내면 되지요. 지식층은 빈공과(賓貢科)를 보게 하고 일반 백성들은 멀리 강남 땅에까지 장사를 가서, 그 허실을 염탐하고 그 고장 호걸들과 친분을 맺는 것이오. 그렇게 한다면 천하를 도모할 수 있고 과거의 치욕도 씻을 수 있지 않겠소?』

『 』: 청과의 교류 촉구(북학파적 입장)

「 」: 명분이 아닌 구체적인 행동 제시

오답노트 ❶, ❷ 대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다면 청나라의 복식도 수용하는 등 실용적인 태도를 가져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❸, ❹ 청나라와의 인적 교류 및 무역도 자유롭게 하도록 하여 청나라의 실상을 파악하고 실력을 기른 후에라야 천하를 도모하고 청나라에 당한 병자호란의 치욕을 씻을 수 있다고 하였다.

14 주제 **작품의 주제**

(카)에서 허생은 마지막 제안으로 청나라를 치기 위해 청나라와 교류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북벌론의 허구성(ㄱ)과 사대부들의 허례허식(ㄷ)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다. (타)에서는 지배층인 사대부들이 가진 허례허식과 이완 대장과 같은 지배 계층의 무능함(ㄴ)을 비판하고 있다.

오답노트 ㄹ, ㅁ. 도적들이 판치는 나라의 허술한 치안 문제와 매점매석이 가능할 정도로 취약한 경제 구조는 이 작품의 앞부분에서 다루고 있다.

15 서술 **결말의 특징과 효과**

(파)는 허생이 자취를 감췄다는 사실만 전한 채 끝난다. 이후의 사건을 예고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노트 ❷ 이 작품은 허생이 어디로 갔는지 밝히지 않은 채 이야기를 끝맺고 있다. 이처럼 완성되지 않은 결말 구조를 통해 사건 해결에 따른 여운을 남김으로써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❸ 당시 사대부를 비판한 허생이 이미 떠나고 없었다고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것은 허생의 제안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임을 암시한다.

❹ 일반적인 고전 소설은 착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징계하는 권선징악의 구조로 이야기가 마무리되는데, 이 작품은 일반적인 고전 소설과는 다른 결말 처리로 독자의 흥미를 끌고 있다.

⑤ 설화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허생의 행적을 신비하게 마무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인공 허생이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부각시키는 효과가 있다.

알아 두기 미완의 결말

결말 구조
• 집은 텅 비어 있고 허생은 이미 떠나고 없었다. → 설화적 분위기를 조성하며 완결되지 않은 채 마무리됨
↓
• 여운을 주며 허생이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나타냄 • 허생의 제안이 매우 급진적이어서 당시 사회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었음을 암시적으로 드러냄

16 주제 **작가의 비판 대상**

ⓒ, ⓓ는 허생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대상으로, 목적을 위해서 격식에 얽매이지 않았던 인물들이다. 반면, ⓐ, ⓑ, ⓔ는 허생이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대상으로, 당시 사대부들의 허울뿐인 명분과 허례를 드러내는 부정적 대상이다.

독해 체크 본문 146쪽

❶ 이익 ❷ 장사치 ❸ 집권층 ❹ 빈 섬 ❺ 설화적

어휘 체크 본문 147쪽

1 화근 **2** ③ **3** ⑤

1 '재앙의 근원.'을 뜻하는 말은 '화근'이다. 허생은 섬에 글을 아는 사람을 남겨 두는 것을 훗날의 화근으로 여겨, 그들을 함께 데리고 나오며 이 말을 썼다.

2 허생의 아내는 생활력 없는 무능한 양반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따라서 훌륭하고 점잖은 사람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실리를 중시하는 속담인 ③이 허생의 아내가 말할 속담으로 가장 적절하다.

오답 노트 ❶ '평양 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다'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당사자의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억지로 시킬 수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❷ '서당 개 삼 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는 서당에서 삼 년 동안 살면서 매일 글 읽는 소리를 듣다 보면 개조차도 글 읽는 소리를 내게 된다는 뜻으로, 어떤 분야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도 그 부문에 오래 있으면 얼마간의 지식과 경험을 갖게 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❹ '양반은 얼어 죽어도 겻불은 안 쬔다'는 아무리 궁하거나 다급한 경우라도 체면을 깎는 짓은 하지 아니한다는 말이다.

❺ '내 배 부르면 종의 밥 짓지 말라 한다'는 자기만 만족하면 남의 곤란함을 모르고 돌보아 주지 아니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3 '상투'는 '장가든 남자가 머리털을 끌어 올려 정수리 위에 틀어 감아 맨 것.'이라는 뜻이다. 가게를 여는 데 바탕이 되는 돈을 마련한 상황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데 바탕이 되는 돈이나 물건, 기술, 재주 등을 이르는 말.'을 뜻하는 '밑천'이 적절하다.

실전 08

홍계월전 | 작자 미상

조선 시대에 여성은 사회적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았답니다. 그럼에도 사회적 활동에 대한 욕구를 지닌 여성은 적지 않았어요. 이들은 억압된 욕망을 문학을 통해 간접적으로 해소하기도 했지요. 이 작품의 주인공인 홍계월은 남성보다 더욱 우월한 능력을 보이는 인물이에요. 이러한 그녀의 능력과 활약상에 초점을 맞추어 작품을 감상해 봅시다.

갈래 영웅 소설, 군담 소설
성격 영웅적, 일대기적
주제 여성인 홍계월의 영웅적 활약상
특징 • 영웅(주인공)의 일대기적 구성 방식을 취함
• 사회 활동을 위해 여성의 신분을 감추는 남장 화소가 사용됨

홍계월전 ①

본문 148~149쪽

감상 스킬로 확인하기

인물·사건

• 양씨 부인은 어떤 꿈을 꾸고 아이를 가졌나요?
> 선녀가 나오는 꿈을 꾸고 주인공 계월을 가졌어요.
• 곽 도사는 계월이 다섯 살이 되는 해에 어떤 일을 겪으리라 예언했나요?
> 부모와 이별하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문제

1 ④ **2** ⑤ **3** ④ **4** ③

학습 노트

• **요약적 서술**: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과 심리, 사건의 흐름 등을 직접 독자에게 간결하게 서술하는 것

1 서술 **서술상의 특징**

(가)의 앞부분에서 홍무에 대해 요약적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홍무의 내력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오답 노트 ❶ 홍무의 과거 행적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서술자가 사건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직접 드러내는 개입은 나타나지 않는다.

❷ 천상계와 지상계의 공간 설정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을 부각하고 있지는 않다.

❸ 초월적 존재인 선녀가 내려와 부인에게 말을 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인물의 고뇌가 드러나고 있지는 않다.

❺ 시간의 흐름을 역전시키지 않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하고 있다.

2 인물·사건 **사건의 전개 양상 및 인물의 심리**

홍무는 계월이 태어나자 자식을 얻은 것을 매우 기뻐하였으나 계월이 남자가 아님을 한탄하였다.

▶ 정답의 근거

나 부인이 시랑을 청하여 아이를 보이니, 얼굴이 도화(桃花) 같고 향내 진동하니 진실로 월궁항아(月宮姮娥)더라. 기쁨이 측량 없으나 남자 아님을 한탄하더라.
남존여비(男尊女卑)의 당대 현실을 반영함

오답 노트 ❶ 홍무는 자신을 시기하는 신하들의 모함으로 벼슬을 빼앗기고 고향에 돌아와 농업에 힘썼다고 하였다.
❷ 곽 도사는 계월이 공후작록을 올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❸ 양씨 부인이 첩을 들여 자식을 낳으라고 홍무에게 말하자 홍무는 다 자신의 팔자이니 부인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며 부인을 위로하고 있다.
❹ 양씨 부인이 계월을 낳자 선녀가 내려와 아기를 씻기고, 이 아기를 잘 길러 후복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홍무와 양씨 부인이 훗날 계월에 의해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나타낸다.

3 배경·소재 시대적 배경

[A]에서 양씨 부인은 삼천 가지 불효 중에서 자식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불효라고 하였다(ㄴ). 또한 양씨 부인은 남편에게 자식을 보기 위해 첩을 얻을 것을 권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당시에는 일부다처 제도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ㄷ).

4 인물·사건 인물의 특성 + 서술 구성상의 특징

㉣은 주인공이 양씨 부인 댁으로 온 상황을 이야기한 것일 뿐, 주인공이 천상계에서 신분이 높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오답 노트 ❶ 영웅 소설에서는 일반적으로 부모가 명문 집안의 사람임을 나타내 주인공이 고귀한 혈통임을 드러낸다.
❷ 양씨 부인은 선녀가 나타나는 꿈을 꾸고 계월을 낳게 되는데, 양씨 부인의 꿈속 선녀는 계월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는 주인공의 비정상적인 출생을 나타낸다.
❹ 곽 도사의 예언에 따르면, 계월은 다섯 살이 되는 해에 부모와 이별하게 된다. 이는 유년기에 주인공이 겪게 되는 시련을 나타낸다.
❺ 계월이 글을 한 번 보면 다 기억한다는 것은 계월의 비범한 능력을 보여 주는 것이다.

홍계월전 ②

본문 150~151쪽

감상 스킬로 확인하기

인물·사건

- 계월은 여공의 집에서 보국과 함께 공부하고 과거에 급제했나요? (◯×)

  계월은 여공에게 구출된 후 여공의 집에서 평국이란 이름으로 보국과 함께 공부해 과거에 급제한다.

- 벽파도에서 계월에게 사로잡힌 반란군의 우두머리는 누구인가요?

> 난을 일으켰다가 도망쳐 온 서 달 이에요.

배경·소재

- 계월이 반란군을 물리치고 부모와 재회하게 되는 공간은 어디인가요?

> 계월이 배를 강변에 매고 진을 친 벽 파 도 예요.

- 계월이 남자 이름인 평국으로 살아가야 했던 데에서 알 수 있는 당대의 현실은 무엇인가요?

> 사회 활동이 주로 남 성 에게 허용되던 시대였어요.

서술

- 계월이 대과에 급제하여 한림학사가 되고, 이후 대원수가 되었다는 부분은 영웅의 일대기 구조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 비 범 한 능 력 에 해당해요.

문제

5 ④ 6 ② 7 ③ 8 ④

학습 노트

- **내통했다고**: 외부의 조직이나 사람과 남몰래 관계를 가지고 통했다고.

5 인물·사건 사건의 전개 양상

(마)에서 양씨 부인은 계월과 함께 강물에 빠져 그때 죽었더라면 이런 욕을 면했을 것이라고 한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부인은 계월이 물에 빠져 죽은 것으로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노트 ❶ 계월 군대의 제장이 벽파도를 둘러싸니 서달은 어찌할 도리가 없어 자결하고자 하였다.
❷ 시랑(홍무)은 계월에게 자신이 장사랑 난에 잡혀 유배 온 죄인으로, 죽어 마땅하다고 말하였다.
❸ (바)에서 보국은 평국(계월)이 부모를 잃은 줄로 알고 있었다고 하였다.
❺ 계월은 군졸로부터 시랑에 대해 적병과 동심합력했다고 보고를 받고, 이에 근거해 시랑 일행이 적의 무리에 내응되었다가 잡혔다고 생각했다. 이 때문에 계월은 시랑을 잡아내어 베라고 명령한 것이다.

6 인물·사건 사건의 전개 양상 + 서술 고전 소설의 특징

(마)에서 계월은 군졸이 잡아 온 죄인이 뜻밖에도 자신의 부모임을 알게 된다. 이처럼 필연적 인과 없이 우연히 사건이 해결되는 것은 고전 소설의 특징 중 하나이다.

정답의 근거

마 이때, 『군졸이 원수께 여쭈오되,
「」: 군졸이 계월의 부모님을 데려옴 → 사건의 우연성
"어떤 사람이 여인 수인을 데리고 산중에 숨었기로 잡아 대령하였나이다."』〈중략〉
=홍시랑=홍무=계월의 아버지

급히 뛰어내려 부인을 붙들고 통곡하며 말하기를,

"어머님, 제가 물에 들던 계월이로소이다."
계월이 양씨 부인이 자신의 어머니임을 알고 나서 한 발화임

하며 기절하니 부인과 시랑이 이 말을 듣고 서로 붙들고 통곡 기절하니 천여 명 제장과 팔십만 대병이 이 광경을 보고 어쩐 일인지 알지 못하고 서로 돌아보며 공동(共同)하여 혹 눈물을 흘리며 천고에 없는 일이라 하며 영 내리기를 기다리더라.
병사들은 원수인 계월이 부모를 만난 것을 알지 못함

7 인물·사건 인물의 지칭

㉠과 ㉤은 서달의 난에 출정한 계월의 직책이고, ㉢은 계월이 남복을 입은 뒤 고친 이름이다. ㉡은 양 부인이 딸의 이름을 부른 것이다. 반면 ㉣은 계월을 길러 준 여공의 아들이다.

8 인물·사건 인물의 역할 + 서술 구성상의 특징

계월은 장사랑의 난으로 부모와 헤어져 물에 빠지는 시련을 겪는다. 이때 여공이 계월을 건져 친자식같이 기르고 학문을 배우게 하여, 계월은 과거에 급제해 능력을 펼칠 수 있었다. 따라서 여공은 주인공의 조력자에 해당한다.

오답 노트 ❶, ❺ 서달과 장사랑은 계월에게 시련을 주는 존재들이다.
❷ 양윤은 양씨 부인의 시비일 뿐, 〈보기〉의 조력자와는 거리가 멀다.
❸ 천자의 명으로 계월이 전쟁에 나가게 되므로 〈보기〉에서 설명하는 조력자와는 거리가 멀다.

홍계월전 ③

본문 152~153쪽

감상 스킬로 확인하기

인물·사건

- 어의가 평국의 병세를 진맥한 후 수상하게 여긴 까닭은 무엇인가요?
  > 평국의 맥을 짚어 보니 남자의 맥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 천자는 평국이 여자일지도 모른다는 어의의 말을 듣고 어떻게 대처했나요?
  > 평국이 과거에 세운 엄청난 공을 떠올리며, 아직 이 사실을 누설하지 말라고 지시했어요.
- (아)~(자)에서 규중에 있던 평국이 다시 황성으로 부름을 받고 전장으로 출정하게 된 까닭은 무엇인가요?
  > 오, 초 두 나라가 반란을 일으켜 남관을 넘어 황성을 공격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배경·소재

- 평국의 '작록'을 거두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 평국이 여자임에도 그녀의 벼슬이 (바뀌었음, 바뀌지 않았음)을 의미해요.

문제

9 ⑤ **10** ⑤ **11** ④

학습 노트

- **등용할**: 인재를 뽑아서 쓸.
- **규중처자**: 집 안에 들어앉아 있는 처녀.

9 배경·소재 **소재의 기능**

평국은 남복을 입음으로써 여자라는 사실을 감추고(ㄷ), 과거에 급제해 벼슬에 오르는 등 사회 활동을 할 수 있었다(ㄹ). ㄱ과 ㄴ은 작품에 나타나는 내용이지만 남복이 그것을 드러내는 소재는 아니다.

오답노트 ㄱ. 평국은 천상계의 인물이지만, 남복이 이를 나타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ㄴ. 평국은 비범한 능력을 지닌 인물이지만, 남복이 그녀의 비범성을 나타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10 인물·사건 **인물의 심리와 태도**

㉤에서 평국이 놀란 것은 천자가 자신을 부를 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규중에서 장기와 바둑으로 세월을 보내던 중 갑작스레 명을 전해 들은 상황이므로, 등용을 미리 알고 준비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오답노트 ❶ ㉠은 아픈 평국에게 어의를 보내면서 상태가 위태로우면 본인이 직접 가 보겠다고 말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천자가 평국을 매우 아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❷ 어의가 천자에게 평국의 맥을 보니 남자의 맥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 ㉡은 어의가 평국에게서 여성의 맥을 느꼈음을 알 수 있다.

❸ ㉢은 평국이 여자임이 들통났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자신의 신분이 밝혀지면 어쩔 수 없이 여자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한 부분이다.

❹ ㉣에서 평국이 눈물을 흘린 것은 자신이 여성임이 밝혀짐에 따라 예전과는 다르게 규중에서 세월을 보내야 하는 것이 서러웠기 때문이다.

11 주제 **작품의 감상**

평국은 남장을 하고 큰 공을 세웠음에도 여자임이 드러나자 규중에 머물러야 했다. 즉 남장은 남성 중심 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도구이지만, 이러한 남장을 벗어나는 순간 다시 사회 질서와 부딪히게 된다는 점에서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이다.

오답노트 ❶ 평국은 여자임이 드러나 규중에 머물러야 하는 처지였으나, 오, 초 두 왕의 반란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여복을 벗고 조복으로 갈아입은 뒤 천자의 명을 받든다. 이는 자신의 개인적 처지를 뒤로하고 나라의 일을 앞세우는 태도로 볼 수 있다.

❷ 우승상 명연태가 평국으로 하여금 도적을 막게 해야 한다고 말하자, 천자는 '지금은 규중처자라 어찌 불러 전장에 보내리오.'라고 말한다. 이는 당시 여성의 사회 활동에 대해 사회적 제약이 있었던 것을 고려하여 말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❸ 신하들은 평국이 여성임을 알고 있음에도 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인물로 평국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다. 이는 평국이 여성임에도 사회적으로 능력을 인정받았음을 보여 준다.

❺ 평국은 여성임에도 오왕과 초왕이 일으킨 반란을 진압하는 중책을 맡게 된다. 이는 평국이 자신의 능력으로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음을 나타낸다.

알아 두기 「홍계월전」에 나타난 남장의 의미

남장의 의미	• 여성이 뛰어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여성의 신분으로 사회 활동을 하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 줌 • 남장은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이 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도구이지만, 일시적인 해결책으로 기능할 뿐 근본적으로 여성의 지위를 변화시키지 못함

홍계월전 ④

본문 154~155쪽

감상 스킬로 확인하기

인물·사건

- 보국이 다가오는 장수를 원수가 아닌 적장 맹길이라고 의심하게 된 결정적인 까닭은 무엇인가요?
  > 칼과 깃발은 원수의 것이 맞았지만, 타고 있는 말이 평소와 달랐기 때문이에요.
- 보국이 가짜 적장에게 붙잡혀 목숨이 위태로울 때 누구를 애타게 불렀나요?
  평국(계월)

배경·소재

- 평국이 정체를 감추기 위해 갑옷 위에 덧입은 것은 무엇인가요?
  > 보국이 적장으로 오해하도록 검은군복을 입었어요.

서술

- 평국이 눈 깜짝할 사이에 태풍과 안개를 일으키는 장면에서 알 수 있는 고전 소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비현실성(전기성)

문제

12 ⑤ **13** ④ **14** ⑤

학습 노트

- **논평하고**: 어떤 글이나 말 또는 사건 등의 내용에 대하여 논하여 비평하고.
- **전말**: 처음부터 끝까지 일이 진행되어 온 경과.

12 서술 **서술상의 특징**

서술자가 인물의 과거 행동에 대해 논평한 부분은 제시된 지문에서 찾아볼 수 없다.

오답 노트 ❶ 천자와 평국이 보국의 진으로 향하고 보국이 평국을 적장으로 의심하며 두 사람이 대결하는 순서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❷ 평국이 곽 도사에게 배운 술법을 베푸니 눈 깜짝할 사이에 태풍이 일어나며 검은 구름 안개가 자욱해지고 있다. 이는 비현실적 요소를 활용하여 사건을 전개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❸ 평국과 보국의 대결을 통해 긴장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❹ 서술자가 '보국이 어떻게 할 줄 몰라 겁을 먹고 당황하더니', '슬픔은 간 데 없고 도리어 부끄러워' 등과 같이 인물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13 배경·소재 **소재의 기능**

㉣은 평국이 적군으로 위장하기 위해 입은 것으로, 오히려 보국이 평국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구실을 한다.

오답 노트 ❶ ㉠은 보국이 오, 초 두 왕의 반란군을 진압했다는 소식을 담고 있는데, 이 소식을 접한 천자는 기뻐하고 있다.

❷ 평국은 준총마를 탔는데, 천자와 함께 보국의 진으로 향할 때 백총마를 탔다. 이에 보국은 평국이 평소에 타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평국을 적군으로 의심하게 된다.

❸ 깃발과 칼 빛은 원수의 칼과 깃발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은 평국의 군대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식임을 알 수 있다.

❺ 평국이 ㉤을 베풀어 태풍을 일어나게 하고 검은 구름 안개가 자욱하게 만들자 보국은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겁을 먹고 당황하고 있다.

14 인물·사건 **사건의 전개 양상**

천자는 보국을 위로하면서 보국이 평국과 대결을 벌이게 된 까닭을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국은 ⓒ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다.

▶ 정답의 근거

차 천자가 크게 웃으시고 보국의 손을 잡으시고 위로 왈,

"중군은 원수에게 욕봄을 조금도 마음에 두지 말라. 원수 자의로 함이 아니라 짐이 경 등의 재주를 보리라 하고 시킨 바라. 지금은 전장으로 하여금 욕을 보았으나 평정 후 돌아가면 예로써 중군을 섬길 것이니 부부의 의를 상하지 말라."

(천자가 대결을 시킨 뜻을 밝힘 / 평정 후에는 아내로서 남편을 섬기라는 당부 → 작품의 한계)

하시고 재주를 칭찬하시고 보국을 위로하시니 보국이 그제야 웃고 여쭈어 왈,

"하교 지당하여이다."

오답 노트 ❶ 천자와 평국은 보국이 오, 초 두 왕의 항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보국을 맞이하기 위해 보국의 진으로 이동한 것이다. 따라서 ⓐ에서 천자와 평국은 보국의 소식을 알고 있다.

❷ 검은 군복은 ⓒ에서 평국이 보국을 속이기 위해 갑옷 위에 입은 것으로, ⓑ의 의심은 평국이 평소 타던 말이 아닌 백총마를 타고 있었기 때문이다.

❸ 평국은 검은 군복을 입고 적장인 체하며 정체를 감춘 채로 보국과 겨루고 있다.

❹ 보국이 평국을 적장으로 오인하자 천자가 평국에게 적장인 체하고 중군을 속여 오늘 재주를 시험해 보자며 제안한다. 따라서 평국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천자에게 보국과의 대결을 먼저 제안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알아 두기 여성 영웅 소설로서의 의의

계월	• 여성의 몸으로 입신양명하고 남성인 보국보다 큰 활약을 함 •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전군을 호령하는 원수로 출정함 • 천자의 인정을 받고 영웅이 됨

↓

계월은 조선 시대 여성들을 억압했던 규범이나 제도에 저항하는 인물

↓

- 여성이 보조적인 위치에서 벗어나 남자보다 우월한 능력을 가진 영웅으로 등장함
- 조선 사회의 남존여비 사상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반영됨

독해 체크 본문 156쪽

❶ 영웅 ❷ 원수 ❸ 남성 ❹ 선녀 ❺ 조력자 ❻ 남존여비

어휘 체크 본문 157쪽

1 장중보옥(掌中寶玉) **2** (1) ㉠ (2) ㉣ (3) ㉡ **3** ①

1 손안에 있는 보배로운 구슬이라는 뜻으로, 귀하고 보배롭게 여기는 존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은 '장중보옥(掌中寶玉)'이다. 이 작품에서 홍무 부부는 나이 사십이 되도록 자식이 없다가 어렵게 계월을 얻은 뒤, 딸을 더없이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이 말에 담아 드러내고 있다.

2 (1)은 저항하는 범인을 밧줄로 제압한 상황이므로, '몸이나 손 등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동여 묶음.'을 뜻하는 '결박'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2)는 권력 다툼에서 밀려난 인물이 먼 변방으로 쫓겨난 상황이므로, '죄인을 지방이나 섬으로 보내 그곳에서 지내게 하던 일.'을 뜻하는 '정배'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3)은 임금이 곡식을 나누어 주라고 이른 상황이므로, '임금이 명령을 내림. 또는 그 명령.'을 뜻하는 '하교'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한편 '내응'은 '내부에서 몰래 적과 통함.'을 뜻하는 말이다.

3 '백골난망(白骨難忘)'은 '죽어서 백골이 되어도 잊을 수 없다는 뜻으로, 남에게 큰 은덕을 입었을 때 고마움을 이르는 말.'이다. 병들어 쓰러진 자신을 거두어 보살펴 준 데 대한 깊은 감사를 나타내는 내용이므로 ①이 적절하다.

오답 노트 ❷ '동심합력(同心合力)'은 마음을 같이하여 힘을 합친다는 뜻이다.

❸ '산천초목(山川草木)'은 산과 내와 풀과 나무라는 뜻으로, '자연'을 이르는 말이다.

❹ '만조백관(滿朝百官)'은 조정의 모든 벼슬아치라는 뜻이다.

❺ '칠거지악(七去之惡)'은 전에,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이유가 되었던 일곱 가지 허물로, 시부모에게 불손함, 자식이 없음, 행실이 음탕함, 투기함, 몹쓸 병을 지님, 말이 지나치게 많음, 도둑질을 함 등이다.

3 극·수필

예제 01 결혼 | 이강백

이 작품은 빌린 물건으로 부자인 척하는 남자와 그를 만나게 된 여자의 이야기를 통해 소유와 사랑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희곡이에요. 남자가 빌린 물건을 하나씩 돌려주는 과정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는지 파악하고, 관객을 극에 참여시키는 표현 방식에 주목하며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하며 감상해 봅시다.

갈래 현대 희곡, 단막극, 실험극
성격 희극적, 비판적
주제 소유의 본질과 진정한 사랑의 의미
특징 •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으며 무대와 관객석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음
• 관객을 극 안으로 끌어들여 등장인물과 관객의 소통이 이루어짐

결혼 ①

본문 164~165쪽

감상 스킬로 확인하기

인물·사건
• 여자의 어머니가 중시하는 결혼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 남자가 부자라면 꼭 붙들어야 한다고 한 것으로 보아, (재산 재능) 소유의 정도와 같은 (내적 외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배경·소재
• 이 글에서 관객을 작품 속으로 끌어들이는 장치로 사용된 소품은 무엇인가요?
넥타이

형상화 방식
• 하인이 남자가 빌렸던 물건을 다시 회수해 가도록 연출한 작가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 빌린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해서예요.

문제

1 ② **2** ⑤ **3** ②

1 형상화 방식 **갈래의 특징**

이 글은 희곡으로, 연극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하여 쓰인 대본이다(ㄱ). 따라서 연기자가 하는 '말'인 대사와, 인물의 동작·표정·심리 상태 등을 설명하거나 조명·효과음 등을 지시하는 지시문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ㄴ). 또한 극의 내용이나 분위기에 부합하는 배경이나 소품으로 무대를 연출하는데, 이 글은 모자, 넥타이 등 인물이 빌린 소품을 통해 소유의 의미라는 글의 주제 의식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ㄹ).

오답노트 ㄷ. 희곡은 실제 무대에서 상연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갈래이므로 공연 시간과 무대 규모라는 물리적 조건의 제약을 받는다. 따라서 작품의 길이나 등장인물의 수가 자유롭다고 보기는 어렵다.
ㅁ. 이 글은 별도의 무대 장치나 조명 전환 없이 사건이 이어지므로, 장면의 변화가 다양하다고 보기 어렵다.

2 인물·사건 **인물의 역할**

이 글에서 하인은 남자가 빌린 물건을 정해진 시간이 되면 회수하며 남자와 갈등 관계를 형성한다. 이 과정에서 남자가 난처한 상황에 놓이면서 글에 희극적인 성격이 나타난다.

오답노트 ❶ 하인은 대사 없이 행동으로만 반응하는 인물로, 여자에게 상황을 왜곡해 전달하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는다.
❷ 하인은 남자와 갈등할 뿐, 남자와 여자의 다툼을 부추기지 않는다.
❸ 하인은 남자가 빌린 물건을 회수할 뿐, 두 사람의 화해를 유도하지 않는다.
❹ 하인의 행동은 '정해진 시간에 빌린 물건을 회수한다'는 규칙을 집행하는 것일 뿐, 두 사람의 만남 자체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본문에 드러나지 않는다.

알아 두기 이 글에 나타난 희극적 효과

하인의 무반응
↓
남자가 하인의 말을 들은 것처럼 행동함
↓
하인이 빌린 물건을 회수하여 남자가 난처해짐
↓
인물의 엇갈린 행동과 상황을 통해 희극적 효과가 나타남

3 형상화 방식 **형상화 방식의 효과**

〈보기〉를 통해 이 글은 무대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지만 그 공연 장소에 모인 사람들(관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그들로부터 소도구를 빌린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관객과 가까운 공간에서 관객에게 직접 소도구를 빌리는 장면을 효과적으로 연출하기 위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정답의 근거

다 남자, 관객석을 투덕투덕 걸어 다니다가 넥타이를 맨 남성 관객 앞에 앉는다. (배우가 객석으로 이동하여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묾)

남자: 〈중략〉 저어, 당신 넥타이 참 좋습니다. (관객에게 직접 말을 걸어 소통함) 정말 좋아요. 『아름다운 색깔, 기막히게 멋진 무늬, 딱 오 분만 빌립시다. 정확하게 오 분만. 더 이상은 어기지 않겠습니다. 빌려주시렵니까?』
『 』: 관객에게 소품을 빌려 달라고 하여 극에 참여하도록 유도함

(남성 관객으로부터 넥타이를 빌려 착용하며) 고맙습니다. (관객이 실제로 극의 진행에 참여함)

오답노트 ❶ 〈보기〉는 소도구의 상징성보다 관객의 극 참여를 위한 공연 방식과 관련된다.
❸ 〈보기〉에서 "별다른 조명이나 효과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조명 효과를 부각한다는 서술과 모순된다.
❹ 〈보기〉는 "무대를 따로 만들 필요도 없다"고 하였으므로, 사실적인 무대 배경을 강조하려는 의도와는 맞지 않다.
❺ 〈보기〉는 대사 전달의 정확성이 아니라 관객으로부터 소품을 빌려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알아 두기 관객의 참여

관객에게 말을 걸고 넥타이를 빌림

↓

- 배우와 관객의 경계를 허묾
- 관객의 참여와 몰입을 유도함
- 극의 일부로 참여하는 관객의 역할을 부각함

관객은 남자가 건네는 말을 듣거나 넥타이를 빌려주며 극에 참여한다. 이때 '넥타이'는 관객을 극 속으로 끌어들이는 장치로 사용된다.

결혼 ②

본문 166~167쪽

감상 스킬로 확인하기

인물·사건

- 여자의 어렸을 때 별명이자, 여자의 아버지가 여자의 어머니에게 사랑과 함께 준 것은 무엇인가요? 덤
- 여자의 아버지와 남자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 여자의 아버지와 남자는 모두 빌린 재산으로 부자인 것처럼 꾸며 상대를 속이려고 했어요.

- 여자는 자신이 태어나자 달아난 아버지를 미워하고 있나요? (○, ⊗)

여자는 (라)에서 "저는 아버질 미워 안 해요."라며 아버지에 대한 미움을 직접 부정하고, 덤이라는 이름에 "그리운 데가 있어요."라고 말하거나 아버지 또한 자신과 비슷한 처지로 태어났을지 모른다며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이므로, 여자가 아버지를 미워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형상화 방식

- 덤 이야기를 들은 후 남자의 여자에 대한 사랑은 무엇을 통해 드러나나요?

>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음이 (해설, 지문, 대사)을/를 통해 드러나요.

문제

4 ③ **5** ④ **6** ② **7** ③

4 형상화 방식 **형상화 방식**

(라)에서는 여자의 대사를 통해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과거사와 '덤'이라는 별명의 유래를 전달한다. 이처럼 이 글은 대사를 통해 무대 위에 직접 드러나지 않은 사건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 정답의 근거

라 여자: 덤, 덤, 덤……. 아버진 덤이 태어나자 달아나셨대요. (대사를 통해 과거의 사건을 전달함) 말하자면 빵소닐 치신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고 어머니에게 보여 줬던 그 많은 재산은 모두 다 잠시 빌렸던 거래요.』 / 남자: 덤, 덤, 덤.

여자: 하지만요, 저는 아버질 미워 안 해요.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는 여자의 태도가 직접 드러남) 그분에겐 뭔가 덤이라는 옛 이름처럼 그리운 데가 있어요. 덤, 혹시 그분도 그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셨던 건 아닐지……. 안 그래요?

『 』: 대사를 통해 무대 위에 직접 드러나지 않은 과거의 사건 정보를 전달함

오답노트 ❶ 넥타이 등의 소도구는 남자의 상황이나 '소유'의 의미를 드러내는 데 활용되지만,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
❷ 여자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과거사를 이야기하지만, 이는 현재의 대화 속에서 과거의 일을 회상하여 전달하는 것이다. 극중 시간이 과거로 전환된 것은 아니므로 시간의 흐름을 바꾸어 화제를 전환한다고 볼 수 없다.
❹ (라)~(마)는 여자가 자신의 과거를 차분히 회고하는 대화로 이루어져 있어 속도감 있는 대화나 갈등의 부각과는 거리가 멀다.
❺ 지시문도 제시되어 있으나, 이 부분은 주로 인물들의 대사를 통해 사건과 심리가 전달되고 있다.

5 인물·사건 **인물의 처지와 상황**

여자는 '덤' 이야기를 남자에게 처음으로 하였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 주고 자신의 처지를 이해해 주는 남자에게 고마워하고 있다. '덤' 이야기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에게 한 발 더 마음을 여는 계기가 되고 있을 뿐, 여자가 남자를 의심하는 발단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이야기는 남자가 자신의 처지와 소유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여자에 대한 사랑을 깨닫는 계기가 된다.

오답노트 ❶ 본문에서 여자가 직접 '덤'이라는 별명의 유래를 설명하고 있다.
❷ '덤' 이야기는 이후 남자가 빌린 물건을 하나씩 돌려주는 과정과 함께, 소유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계기로 작용한다.
❸ 중략 부분 줄거리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진정한 사랑을 느꼈다고 서술되고 있다.
❺ 여자는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과 '덤'이라는 처지가 홀가분하다는 자신의 생각을 직접 밝히고 있다.

알아 두기 '덤' 이야기의 의미와 역할

여자의 이야기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사랑과 함께 여자를 '덤'으로 주어 별명이 '덤'이 됨

↓

남자에게 미친 영향	'덤'의 의미에 대해 새롭게 깨달아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됨

여자의 '덤' 이야기는 남자가 소유의 본질을 깨닫고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소유의 본질과 진정한 사랑이라는 작품의 주제 의식을 드러내는 데 기여한다.

6 인물·사건 **인물의 심리** + 형상화 방식 **형상화 방식**

㉡을 통해 여자의 어머니가 아버지와 같은 사기꾼에게는 절대 여자를 시집보내지 않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후 여자가 사기꾼인 남자와 결혼하게 된다는 점에서 상황의 반전은 나타나지만, ㉡ 자체는 어머니가 자신의 의도를 있는 그대로 직접 드러낸 말이므로 반어적 표현으로 볼 수 없다.

오답노트 ❶ "갑자기 이런 말을 하면…"이라는 발화로 새로운 화제인 덤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
❸ (라)에서 여자는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남자에게 처음 털어놓았다고 말하고 있다.
❹ 여자의 '덤' 이야기를 들은 직후 눈물을 보이는 모습은 남자가 감정적으로 동요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❺ 넥타이를 빌려준 관객에게 직접 말을 건네며 물건을 돌려줌으로써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물고 관객을 극에 참여시키고 있다.

7 형상화 방식 **형상화 방식**

남자가 ⓐ를 말할 때 여자는 무대 위에 함께 있지만, 남자의 말은 여자에게는 들리지 않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처럼 무대 위의 다른 인물에게는 들리지 않고 관객에게는 들리는 것으로 약속된 대사를 '방백'이라고 한다.

오답 노트 ❶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상대역이 듣지 못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방백의 정의와는 다르다.

❷ '독백'에 대한 설명으로, 독백은 상대방 없이 혼자서 하는 말이라는 점에서 방백과 다르다.

❹ 방백은 발화의 반복 여부나 주술적 성격과는 무관한 개념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❺ 방백은 상대역에게 속삭이는 말이 아니라, 다른 인물에게는 들리지 않고 관객에게만 들리는 것으로 약속된 대사이다.

알아 두기 **독백과 방백**

희곡에서 인물이 하는 말을 대사라고 한다. 대사에는 등장인물들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 외에 독백과 방백이 있다. 독백과 방백은 모두 인물의 생각이나 감정을 관객에게 드러낼 수 있다. 독백은 상대역 없이 혼자 하는 말이고, 방백은 다른 인물에게는 들리지 않고 관객에게만 들리는 것으로 약속된 말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독백	• 등장인물이 상대역 없이 혼자서 하는 대사 • 인물의 생각이나 감정을 직접 드러내는 데 활용됨
방백	• 무대 위의 다른 인물에게는 들리지 않고 관객에게만 들리는 것으로 약속된 대사 • 인물의 속마음이나 상황을 관객에게 알려 주어, 관객이 무대 위의 다른 인물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게 하는 데 활용됨

결혼 ③

본문 168~169쪽

감상 스킬로 확인하기

인물·사건

• 여자가 "아, 어쩌면 좋아?"라고 말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 남자가 빈털터리임을 알았지만 이미 남자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고, 어머니와의 맹세로 인해 내적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이에요.

배경·소재

• 남자가 빌린 것들을 모두 돌려줄 때가 되었음을 알리는 소재는 무엇인가요?

경고문

형상화 방식

• (바)에서 긴장된 분위기를 조성하고 남자를 내쫓는 데 사용된 4어절의 소도구는 무엇인가요? 큰 구두 한 짝

• (바)의 "당신을 빌린 동안에 오직 사랑만을 하겠습니다."라는 대사에는 남자의 어떤 마음이 담겨 있나요?

› 여자를 (소유하는 빌리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는, 빌리는) 것이므로 더 아끼고 사랑하겠다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문제

8 ① **9** ⑤ **10** ②

8 인물·사건 **인물의 심리**

여자는 처음에 남자를 부자라고 생각하였고, 대화를 나누며 점차 마음을 열고 있었다. 그런데 남자가 가진 모든 것이 빌린 것이며 자신의 소유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즉 남자가 빈털터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여자는 충격을 받은 것이다.

▶ 정답의 근거

바 여자: 나가라……. 그럼 당신 것이 아니었어요?

남자: 내 것이라곤 없습니다. (자신이 빈털터리임을 밝힘) 남자가 가진 것들이 모두 빌린 것이었음을 밝힘

여자: (충격을 받는다.) / 남자: 모두 빌린 것들뿐이었지요.

남자가 부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음

오답 노트 ❷ 하인은 정해진 시간이 되자 남자가 빌린 물건을 회수하는 역할을 할 뿐이며, 그 물건들을 직접 소유한 주인이라는 내용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없다.

❸ 여자의 아버지도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은 앞서 언급되지만, 남자와 아버지가 서로 알거나 함께 일한 사이라는 근거는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❹ 남자가 여자의 재산을 노렸다는 내용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없다.

❺ 어머니가 사기꾼에게는 딸을 주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라)에서 여자가 알고 있던 내용으로, 이 장면에서 새롭게 충격을 받을 이유가 되지 않는다.

9 주제 **작가의 의도** + 배경·소재 **사회·문화적 배경**

이 글은 관객이 필요한 소품을 극중 인물에게 빌려 주는 방식으로 연극 공연에 참여하게 하고 있으며, 소유의 본질과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노트 ❶ 남자는 소유의 본질을 깨닫고 여자에게 진실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으므로, 허영과 욕망으로 인해 파멸하는 인물의 이야기라고 볼 수 없다.

❷ 이 글은 관객을 극에 직접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전개되며, 민속극의 형식을 재현한 작품이 아니다.

❸ 남자는 결말에서 자신의 정체와 진심을 모두 드러내며 진실하게 사랑을 고백하고 있어, 본심을 끝까지 숨긴 채 성공을 거두는 이야기로 볼 수 없다.

❹ 남자의 무례함이나 본분을 망각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알아 두기 **관객과 소통하는 실험적 기법**

실험적 기법: 관객과 무대의 경계를 허묾 ↔ 일반적 희곡

• 관객의 극중 참여와 몰입을 유도함
• 극의 상황과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함

「결혼」은 별다른 무대 장치 없이 관객에게 소품을 빌리는 등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또한 이야기책을 읽던 남자가 이야기 속 인물이 되거나 관객에게 직접 말을 거는 등 일반적인 희곡과 다른 실험적인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기법은 관객의 극중 참여를 유도하면서 극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고, 작품의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10 형상화 방식 **형상화 방식**

㉡에서 남자는 달, 구름, 바람 등을 언급하는 시적인 표현을 사용하지만, 이는 모든 것이 잠시 빌린 것이라는 소유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드러내는 말이다. 따라서 들뜬 기분이나 환희에 찬 표정으로 연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노트 ❶ ㉠은 '나가라'라고 쓰인 경고문을 보고 그 뜻을 묻는 여자의 대사이므로, 의아함이 드러나도록 연기하는 것은 적절한 의견이다.

❸ ㉢은 하인이 큰 구두를 신으며 남자를 위협하는 장면이므로, 긴박감이 느껴지는 배경 음악을 삽입하는 것은 적절한 연출이다.

❹ ㉣은 하인이 남자에게 위협적으로 다가가는 상황을 나타낸 지시문이므로, 무게감 있게 천천히 다가가도록 연기하는 것은 적절한 의견이다.

❺ ㉤은 떠나려는 여자를 붙잡으며 진심을 고백하는 대사이고 '절규하듯이'라는 지시문도 제시되어 있으므로, 절규하는 듯한 어조로 연기하는 것은 적절한 의견이다.

예제 02

차마설 | 이곡

이 작품은 말을 빌려 탔던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소유에 대한 보편적인 깨달음을 제시한 수필이에요. 글쓴이가 경험한 구체적인 내용과 그 경험 속에서 소유의 본질적 의미를 깨닫는 과정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작가가 독자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하며 작품을 감상해 봅시다.

갈래 설(說), 한문 수필
성격 경험적, 교훈적, 성찰적
주제 말을 빌려 탄 경험으로 얻은 소유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
특징
- 경험한 내용 – 깨달음(의견)의 구성 방식을 취함
- 개인적 경험을 일반화하여 보편적인 깨달음을 이끌어 내는 유추의 방식을 활용함
-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여 주장의 설득력을 높임

차마설

본문 170~171쪽

감상 스킬로 확인하기

글쓴이

- ⓐ '여위고 둔하여 걸음이 느린 말'과 ⓑ '준마'를 빌렸을 때 글쓴이의 태도는 각각 어떠하였나요?

> ⓐ를 빌렸을 때에는 조심해서 타서 후회하는 일이 적었고, ⓑ를 빌렸을 때에는 장쾌함을 느끼며 타다가 때로는 떨어질까 위태로움을 느꼈어요.

표현

- 이 작품의 내용은 어떻게 전개되나요?

> 글쓴이의 경험을 담은 사실을 제시한 후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을 밝히고 있어요.

- 이 작품은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고 있나요? (◯×)

글쓴이는 (라)에서 맹자의 말을 직접 인용하여 "남의 것을 오랫동안 빌려 쓰고 있으면서 돌려주지 아니하면, 어찌 그것이 자기의 소유가 아닌 줄 알겠는가?"라는 권위 있는 견해를 제시하고, 이어 "내가 여기에 느낀 바가 있어서 차마설을 지어 그 뜻을 넓히노라"라며 이 인용을 자신이 글을 쓰게 된 동기와 연결 짓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여 잘못된 소유 관념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그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제

- 글쓴이가 이 작품을 쓴 의도는 무엇인가요?

> 소유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알리기 위해서예요.

문제

1 ⑤ **2** ② **3** ④ **4** ③ **5** ④

1 표현 **작품의 전개 방식**

이 작품은 말을 빌려 탄 개인적인 경험을 제시한 후, 이를 인간의 소유 문제로 일반화하여 소유에 대한 보편적인 깨달음과 의견을 드러내고 있다.

알아 두기 글의 구성 방식

사실(일상적 경험)		의견(경험의 일반화)
상태가 다른 말을 빌려 타면서 서로 다른 마음과 태도를 보임	+	•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모두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것임 • 진정한 자기 소유는 없으므로 잘못된 소유 관념을 경계해야 함

2 주제 **작가의 의도**

이 작품의 글쓴이는 자기 소유일 경우 물건에 따른 심리 변화는 더 심할 것이라고 하면서, 본래 자기의 소유인 것은 없고 모두 빌린 것임을 깨닫고 잘못된 소유 관념을 경계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전하고 있다.

오답노트 ❶ 글쓴이는 소유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릇된 행동을 하게 된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것도 본래 빌린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❸ 큰 뜻을 이루기 위한 자세에 대해서는 이 글에서 다루고 있지 않다.

❹ 글쓴이는 외물에 따라 사람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음을 언급하지만, 초심을 지켜야 한다는 깨달음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❺ 소유에 따라 사람의 마음과 태도가 달라질 수 있음은 드러나지만, 소유가 많을수록 교만해지므로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알아 두기 「차마설」의 제목과 '설'

「차마설」의 '차마(借馬)'는 '말을 빌린다'는 뜻이며, '설(說)'은 사물이나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과 생각을 펼쳐 보이는 한문 산문이다. 이 작품은 말을 빌려 탄 경험을 바탕으로 소유의 의미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3 글쓴이 **글쓴이의 관점과 태도**

빌린 말의 상태에 따라 글쓴이의 심리와 태도가 달라지는 모습은 나타나지만, 이는 외물의 차이에 따라 사람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음을 성찰한 것이다. 말을 차별적으로 대했던 자신의 태도를 반성한 것은 아니다.

▶ 정답의 근거

(가) 여위고 둔하여 걸음이 느린 말이면 비록 급한 일이 있어도 감히 채찍질을 가하지 못하고 조심조심하여 곧 넘어질 것같이 여기다가, 개울이나 구렁을 만나면 내려서 걸어가므로 후회하는 일이 적었다. 발이 높고 귀가 날카로운 준마로서 골짜기가 평지처럼 보이니 심히 장쾌하였다. 그러나 어떤 때에는 위태로워서 떨어지는 근심을 면치 못하였다.

아! 사람의 마음이 옮겨지고 바뀌는 것이 이와 같을까?

(가): 둔마를 탔을 때의 태도 / 준마를 탔을 때의 태도 / 빌린 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자신의 마음을 성찰함

4 표현 표현상의 특징

글쓴이는 맹자의 말을 인용하여 잘못된 소유 관념을 경계해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오답 노트 ❶ [A]에 의문형이 나타나지만, 이는 잘못된 소유 관념을 비판하고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기 위한 설의적 표현이므로 독자의 관심과 호기심을 유발하는 데 초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❷ 문제의식을 부각하기 위해 '남의 것을 오랫동안 빌려 쓰고 있으면서 돌려주지 아니하면'이라는 상황을 가정하여 제시하고 있을 뿐,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예측하고 있지는 않다.

❹ 맹자의 말을 직접 인용하고 있지만, 이는 글쓴이의 경험을 생동감 있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❺ 맹자의 말을 의문형으로 제시하였지만, 이는 잘못된 소유 관념을 비판하는 설의적 표현이지 독자에게 실제 답을 요구하는 질문은 아니다.

알아 두기 주장을 뒷받침하는 인용

「차마설」에서 글쓴이는 맹자의 말을 직접 인용하여 빌린 것을 자기 소유라고 여기는 잘못된 소유 관념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주장과 관련된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인용함
↓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보충함
↓
주장에 대한 신뢰성과 설득력을 높임

5 주제 주제와 관련된 한자 성어

글쓴이는 사람이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빌린 것이라는 깨달음을 전하고 있다. 따라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뜻으로 재물이나 소유에 집착할 필요가 없음을 나타내는 '공수래공수거'가 작품의 주제와 가장 관련이 깊다.

오답 노트 ❶ 회자정리(會者定離)는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진다는 뜻으로, 모든 것이 무상함을 나타내는 말이다.

❷ 일각여삼추(一刻如三秋)는 일각이 삼 년처럼 길게 느껴진다는 뜻으로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을 이르는 말이다.

❸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은 열흘 동안 붉은 꽃은 없다는 뜻으로, 한 번 성한 것이 얼마 못 가서 반드시 쇠하여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만방의 임금도 외톨이가 되고"와 일부 관련되지만, 이 작품은 권세의 흥망보다 모든 소유가 본래 빌린 것임을 강조하므로 주제의 초점이 다르다.

❺ 풍마우불상급(風馬牛不相及)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 전혀 관계가 없음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다.

실전 01

소 | 유치진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누군가에게 빼앗긴다면 얼마나 절망적일까요? 이 작품에서 국서는 자식보다 더 소중한 소를 빼앗기는데요, 작품을 읽으면서 누가, 왜 국서에게서 소중한 소를 빼앗아 가는지 파악하며 작품을 감상해 봅시다.

갈래 현대 희곡, 장막극, 사실주의 극
성격 사실적, 현실 고발적
주제 일제 강점기 가난에 시달리는 농촌의 비참한 모습
특징 • 사실주의 경향의 장막극임
• 희극적인 요소를 통해 비극성을 강조함
• 비속어와 방언을 사용하여 극적 사실감을 높임

소 ①

본문 172~173쪽

감상 스킬로 확인하기

인물·사건

• 개똥이가 만주에 가서 돈을 벌어 오겠다며 아버지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인가요?
> 소를 팔아 노자를 만들어 달라고 해요.
• 아버지는 소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 집안의 자랑으로 여기고 있어요.

형상화 방식

• 이 글에서 형을 못 봤다고 말하는 개똥이의 심리는 무엇을 통해 드러나나요?
> '(퉁명스럽게)'라는 지시문을 통해 드러나요.

문제

1 ③ 2 ② 3 ①

학습 노트

• **우회적:** 곧바로 가지 않고 멀리 돌아서 가는.
• **원천적:** 사물의 근원에 관계된.

1 형상화 방식 형상화 방식과 효과

'죽일 놈들', '대가리' 등의 비속어를 사용하여 국서의 투박스러운 성격과 못마땅해 하는 감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오답 노트 ❶ 국서와 개똥이가 대립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소에 대한 생각의 차이 때문이다. 선인과 악인의 대립이라고 볼 수 없다.

❷ 사건이 극적으로 전환된 부분도 없고, 인물 사이의 갈등이 해소된 것도 아니다.

❹ 소에 대한 입장 차이로 국서와 개똥이가 갈등하고 있는 장면으로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말과 행동은 드러나지 않는다.

❺ 국서와 개똥이의 갈등만 제시되어 있을 뿐, 유사한 장면이 반복되지는 않는다.

2 인물·사건 인물의 태도

[A]에서 국서는 개똥이의 겉모습과 생활 태도를 문제 삼으며 개똥이의 제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즉, 개똥이의 말을 어리석은 것으로 몰아붙임으로써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도록 차단하고 있다.

▶ 정답의 근거

나 개똥이: 아버지, 요즘 만주만 가면 돈벌이가 참 많대요. 이 때가 바로 물땝니다.
(만주에 가기만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믿음)

국서: 흥, 이놈아, 『건성으로 돈이 사람을 따르는 줄 알아서는 안 돼. 너 따위 배 타러 다니는 놈이 그렇게 대가리에다가 지꾼지 뭔지를 처바르고 게다가 비단조기까지 잡숫고 그래 가지고두 돈을 벌어?』 당최 그런 생각일랑 염두에두 두지 말고 뒷길에 가서 소 마구간이나 치워라. 그리고 성 녀석 만나거든 어서 타작마당으로 오라구 그래.
(『』: 만주만 가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아들 개똥이의 생각이 허황되다고 지적함)

개똥이: 아버지, 그렇지만.

국서: 얼른, 이놈아! 시키는 대로 좀 고분고분히 해라!
(국서의 완고하고 권위적인 성격)

오답노트 ❶ 아들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에 대해 이야기할 뿐, 국서 자신의 처지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다.
❸ 아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❹ 아들이 대답하기 힘든 질문을 하고 있지 않다.
❺ 소를 팔아 노자를 마련해 달라는 말은 아들이 먼저 한 말로, 국서가 아들이 하고 싶어 하는 말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

알아 두기 「소」에 나타난 사실주의 경향

- 지주와 소작인 사이의 계층적 갈등을 통해 식민지 현실의 부조리를 드러냄
- 농촌의 가난한 모습과 농민의 비참한 생활을 구체적으로 드러냄
- 등장인물이 비속어와 방언을 사용함

→ 극에 현실감을 부여함

3 주제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가)와 (나)는 소를 팔아 만주로 가려는 아들 개똥이와 소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으로 소를 절대 팔 수 없다는 국서와의 갈등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국서와 개똥이가 갈등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소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이다.

오답노트 ❷ 개똥이가 만주로 떠나려고 하는 것은 큰돈을 벌기 위해서이다. 이런 개똥이의 모습을 〈보기〉의 내용과 관련지어 본다면, 가난에 시달리는 농촌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❸ 〈보기〉를 통해 국서와 개똥이의 갈등에 영향을 준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농촌을 더 궁핍하게 만드는 일제의 수탈 정책임을 알 수 있다.
❹ 국서는 개똥이의 의견을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묵살하고,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히 하라고 호통치는 모습을 통해 권위적인 구세대의 모습이 드러난다.
❺ 개똥이라는 이름과 투박한 국서의 대사와 행동은 이 작품의 희극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소 ②

➡ 본문 174~175쪽

감상 스킬로 확인하기

인물·사건

- 국서, 말똥이와 갈등하는 인물은 누구인가요?
  > 지주와 소작인 사이에서 논밭을 관리하는 마름이에요.
- 마름이 국서에게 이번 추수까지 해결하라고 못 박은 것은 무엇인가요?
  > 몇 해에 걸쳐 갚지 못하고 밀린 도지예요.

배경·소재

- 이 글에서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단서는 무엇인가요?
  > '농지령'이라는 말을 통해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형상화 방식

- 이 글에서는 가혹하게 수탈당하는 소작인의 현실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나요?
  > "벼가 빠지게 농사지어 놓은 것 막 다 가져갔죠."라는 말똥이의 대사를 통해 드러나요.

문제

4 ③ 5 ② 6 ③

학습 노트

- **모면:** 어떤 일이나 책임을 꾀를 써서 벗어남.

4 인물·사건 인물이 처한 상황

말똥이의 대사를 통해 뼈 빠지게 농사를 지었지만 도지로 다 바쳐서 풍년이어도 집에 양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정답의 근거

다 마름: 『만일 이번에 묵은 것을 못 갖다 갚으면 좋지 못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사정없이 딱 잘라서 최후 결단을 지어 버리고 말 거란 말야! 잘 알아 생각해!』
(『』: 밀린 도지를 받아내기 위해 장차 벌어질 상황을 언급하며 협박함)

말똥이: 아니 뼈가 빠지게 농사지어 놓은 것 막 다 가져갔죠. 그러구 그게 무슨 말유? 올해가 풍년이래두 우리 집에 어디 쌀 한 톨 남았나 봐요! 막 뒤져 봐요!
(일제 강점기 지주와 마름의 횡포가 드러남)
(풍년에도 지주의 수탈로 남는 것이 없는 소작인의 현실)

오답노트 ❶ 마름이 국서에게 밀린 도지를 갚으라고 재촉하는 것으로 보아, 국서가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도지 대신 소를 끌고 가겠다고 위협하는 마름의 대사를 통해 국서가 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❷ 마름은 명년에 농지령이 새로 실시되면 밀린 도지를 받는 일에 문제가 생길까 봐 이번 추수까지 밀린 도지를 다 받아 내려는 것이다.
❹ 마름은 도지 대신 기둥이라도 빼어 가고 솥이라도 떼어 가며 소마저 몰고 가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마름이 도지를 빌미로 무엇이든 빼앗아 가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❺ 마름은 '나는 그저 논임자가 하라는 대로 허는 사람이야.'라고 말하며, 논임자의 지시에 따라 국서에게 밀린 도지를 갚으라고 압박하는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배경지식 작품에 반영된 시대상

이 작품은 소를 둘러싼 여러 가지 갈등을 중심으로 일제 강점기 농촌의 비참한 현실을 형상화하고 있다. 국서에게 소는 소중하지만, 묵은 도지를 해결하고 장남 말똥이가 결혼할 처녀인 귀찬이가 빚 대신 일본인에게 팔려가는 것을 막으려면 소를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밤낮없이 땀 흘려 농사지어도 빚에 치여 허덕일 수밖에 없고, 담보가 없어 돈을 빌리지 못하거나 빌린다 하여도 비싼 이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 속에서 소작하는 농민들은 가난을 벗어날 방법이 없는 것이다.

5 인물·사건 인물의 말하기 방식

마름은 밀린 도지를 갚지 않으면 최후 결단을 짓겠다고 하고, 기둥이나 솥은 물론 소까지 몰고 가겠다고 말하며 국서네를 위협하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 정답의 근거

다 말똥이: (악을 쓰고) ……아버지 좀 놔요. 노……농지령이란 건 뭐야요? 그저 사람을 골릴려구! 최후 결단을 하면 어쩔 테야요? 어디 할 대루 해 봐요! 흥! 할래야 할 거나 있어야 말이지……. (지주와 마름의 횡포에 대한 분노 / 더 빼앗길 것도 없는 소작인들의 열악한 상태)

국서: (말리다가 못해 말똥이를 헛간 밖으로 끌어낸다.) 저리 나가! 이눔, 버릇없이!

마름: 이런 분할 일이 있나! 그럼 못할 거라구! 두고 봐! 기둥이라두 빼어 가고 솥이라두 떼어 갈 테니까……. 흥 저놈의 소는 못 몰고 갈 줄 아나? (도지를 빌미로 소작인들을 가혹하게 수탈하는 지주와 마름의 횡포가 드러남)

오답노트 ❶ '지금 와서 그런 소릴 해두 소용없다니깨'라는 말을 통해 국서의 사정을 봐주지 않는 마름의 냉정한 태도가 드러난다.

❸ 논임자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라며 마름이라는 지위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를 통해 위기를 모면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몰아붙이고 협박하고 있다.

❹ 농지령의 실시를 내세워 밀린 도지를 한꺼번에 다 받으려 하지만, 이를 논리적인 대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새로 시행되는 법령으로 인해 자신의 상황이 불리해질까 봐 소작인을 몰아붙이고 있다.

❺ 논임자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라고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부당한 현실에 맞서 싸우고 있지는 않다.

6 인물·사건 인물의 행동과 사건의 의미 + 형상화 방식 형상화 방식과 효과

국서는 마름에게 대드는 아들 말똥이 때문에 혹시라도 마름의 노여움을 살까 봐 황급하게 말똥이를 헛간으로 끌어내고 있다. 이는 직접적으로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므로, 계층 간의 갈등이 드러나는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답노트 ❶ 당시에 농촌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헛간', '볏섬' 등의 소재를 연극적 장치로 사용하면 무대에 현실감을 부여할 수 있다.

❷ 국서의 처가 마름에게 쩔쩔매고 애걸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당시의 마름과 소작농 사이의 지배 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❹ 말똥이를 지팡이로 때리는 마름의 행동과 비속어의 사용을 통해 마름과 말똥이 사이의 갈등을 실감 나게 보여 주고 있다.

❺ '농지령'은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를, '작인', '도지'는 당시 소작 관계의 실상을 드러내는 말로, 이를 통해 당시 농촌 사회의 구체적인 실상이 드러난다.

소 ③ 본문 176~177쪽

감상 스킬로 확인하기

인물·사건

- 논임자가 밀린 도지 대신 가져간 것은 무엇인가요?
  > 국서의 소를 가져갔어요.
- 국서네가 소를 포기하는 대신 얻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 갚아야 할 도지를 탕감받고, 부치던 논도 다시 부치게 되었어요.

배경·소재

- 이 글에는 당시 농촌의 어떤 모습이 드러나나요?
  > 지주의 수탈로 인해 가난하게 살아가는 농민들의 비참한 모습이 드러나요.

형상화 방식

- 재판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을 통해 드러나나요?
  > 국진과 국서의 (대화, 방백, 독백)을/를 통해 드러나요.

문제

7 ③ 8 ④ 9 ② 10 ④

학습 노트

- **우물에 가 숭늉 찾는다:** 모든 일에는 질서와 차례가 있는 법인데 일의 순서도 모르고 성급하게 덤빔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음을 비꼬는 말.
- **코가 꿰이다:** 약점이 잡히다.
-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기본이 되는 것보다 덧붙이는 것이 더 많거나 큰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갑갑한 놈이 송사한다:** 제일 급하고 일이 필요한 사람이 그 일을 서둘러 하게 되어 있다는 말.

7 배경·소재 사회적 배경

국서는 논임자에게 도지 대신 소를 빼앗기고 재판을 통해 이를 되찾으려고 하지만 재판 비용이 많이 들고 논임자에게 소작권까지 잃을 수 있어서 결국 재판을 포기하게 된다. 이를 통해 소작인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법적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오답노트 ❶ 논임자가 밀린 도지 대신 국서의 소를 끌고 간 상황으로, 소를 매매하려면 땅 주인의 허락이 필요했는지는 알 수 없다.

❷ 국서의 대사를 통해 동네 주민들이 증인으로 재판에 나서 준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지만, 소작인들이 조직을 만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❹ 논임자가 묵은 도지를 받기 위해 집행을 하면 국서네는 집과 집터를 모두 잃고 화전이나 파먹는 신세가 된다는 내용을 보아 화전을 경작한다는 것은 소작권을 잃고 생활이 더 어려워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화전을 경작할 수 있게 되면서 농민들의 생활이 나아졌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❺ 땅 주인과 소작인 사이의 갈등을 중재해 주는 관청에 대한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대서소는 갈등을 중재해 주는 곳이 아니라, 서류를 대신 작성해 주는 일을 하는 곳이다.

알아 두기 국서가 소송을 포기하는 이유와 타협 결과

소송을 하면 일어날 수 있는 문제
• 재판에서 이긴다고 하여도 논임자가 묵은 도지를 두고 집행을 하면 집과 집터를 모두 잃게 됨 • 소송하는 비용이 소 값보다 많이 듦 • 재판을 하면 지주의 미움을 받아 소작권을 잃게 되어 생계가 막힘
↓
타협 결과: 소를 포기하는 대신 밀린 도지를 탕감받고 소작권을 유지함

8 인물·사건 인물의 특성

국진은 재판을 했을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를 국서에게 차근차근 설명하고, 논임자를 찾아가 소 대신 도지를 탕감받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인물이다.

오답 노트 ❶ 융통성이 없는 국진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❷ 소에 대해 강한 집착을 보이는 사람은 형 국서이다.
❸ 국진은 재판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여러 방면으로 생각해 보고, 형 국서에게 재판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자신의 입장만을 주장하는 권위적인 인물과 거리가 멀다.
❺ 국진은 형 국서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9 형상화 방식 **형상화 방식의 적절성**
㉡에서 국진은 재판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국서에게 설명하고 있다. 즉 재판에서 이겨 소를 다시 찾아도 논임자가 묵은 도지에 대해 집행을 하면 집과 집터를 모두 잃게 된다는 것을 국서에게 설명해 주는 상황이므로, 심각한 표정으로 차근차근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노트 ❶ 재판을 하면 소를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에 대한 반응이므로, 반가워하며 기대감을 가지고 다음 이야기를 궁금해하는 모습이 적절하다.
❸ 재판을 하면 소는 다시 찾을 수 있지만 집과 집터를 잃는 것은 물론이고 재판 비용도 소 값보다 많이 든다는 이야기에 대한 반응이므로, 예상치 못한 상황에 어처구니없어하는 모습이 어울린다.
❹ 자긍심과 애정의 대상인 소를 그냥 빼앗길 수 없다는 분함이 드러나야 하므로, 목소리를 높여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
❺ 국서는 소에 강한 애착을 보였는데, 결국 소를 되찾지 못하고 도지와 서로 탕감하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있으므로, 원통함과 절망감이 드러나는 모습이 어울린다.

10 인물·사건 **인물의 심리** + 어휘 **속담 및 관용 표현**
ⓐ에서 국진은 재판 한 번 거는 비용이 소 값보다 많을 것 같다고 하였다. 소를 되찾으려다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되는 상황이므로, 국서에게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일로 여겨졌을 것이다.
오답 노트 ❶ '우물에 가 숭늉 찾는다'는 일의 순서도 모르고 성급하게 덤빔을 이르는 말이다. ⓐ는 국진이 재판에 드는 비용을 하나하나 따져 본 끝에 내린 말이므로, 국서가 국진을 성급하다고 여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❷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없음을 비꼬는 말이다. 국서는 소를 빼앗긴 뒤 되찾을 방법을 찾고 있을 뿐, 미리 대비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❸ '코가 꿰이다'는 약점이 잡힌다는 뜻이다. ⓐ는 재판에 드는 비용을 말한 것이지 국서의 약점을 언급한 것이 아니며, 국서가 마름에게 약점을 잡혀 괴로워하는 대목도 찾을 수 없다.
❺ '갑갑한 놈이 송사한다'는 일이 급한 사람이 그 일을 서둘러 하게 된다는 말이다. 국진은 재판을 서두르는 국서를 대신해 소송 절차를 알아보았으므로, 국서가 소송 절차를 직접 알아보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고 볼 수 없다.

독해 체크 본문 178쪽
❶ 소 ❷ 도지 ❸ 방언 ❹ 일제 강점기 ❺ 농촌

어휘 체크 본문 179쪽
1 노자 **2** 쌍지팽(팡)이를 짚고 나서다
3 (1) ㉣ (2) ㉢ **4** ②

1 '노자'는 먼 길을 떠나 오가는 데 드는 비용을 뜻하는 말이다. (가)에서 개똥이는 아버지에게 부아만 내지 말고 노자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나)에서는 소를 팔아 노자를 마련해 달라며 만주로 가서 돈을 벌어 오겠다고 말한다.

2 '쌍지팽(팡)이를 짚고 나서다'는 '어떤 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간섭하여 나서다.'라는 뜻이다. (다)에서 마름이 국서에게 밀린 도지를 갚으라고 말하는 중에 말똥이가 끼어들어 따지고 들자, 마름은 어른이 말하는 데 쌍지팽(팡)이를 짚고 나선다며 못마땅해한다.

3 (1)은 온 동네 사람들이 서로 일손을 거들어 주는 상황이므로 '힘든 일을 서로 거들어 주면서 품을 지고 갚고 하는 일.'을 뜻하는 '품앗이'가, (2)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밝은 낮에 도둑질이 벌어진 상황이므로 '환히 밝은 낮.'을 뜻하는 '백주'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4 '너절하다'는 '하찮고 시시하다.'라는 뜻이므로, 오랜 연구 끝에 학계의 주목을 받을 만한 성과를 거둔 상황에는 적절하지 않다.

실전 02 **실수** | 나희덕

여러분은 일상생활 속에서 실수를 자주 하나요? 혹시 친구나 동생이 자신에게 실수를 하면 어떻게 반응하나요? 이 작품의 글쓴이는 스스로 실수가 잦은 인물이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실수에도 긍정적 의미가 있음을 깨달았다고 하네요.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작품을 감상해 봅시다.

갈래 현대 수필, 경수필
성격 교훈적, 자기 고백적
주제 • 실수의 긍정적 의미
• 실수를 너그럽게 용납해 주는 태도의 필요성
특징 • 실수와 관련된 일화를 통해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함
•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쉬운 대상(실수)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보여 줌
• 한시를 인용하거나 속담 및 관용 표현을 활용하여 글쓴이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함

실수 ① 본문 180~181쪽

감상 스킬로 확인하기

글쓴이

• (나)에서 글쓴이가 한 실수는 무엇인가요?
> 비구니들만 사는 암자에서 노스님께 빗을 빌려 달라고 했어요.
• 글쓴이는 자신의 실수를 부끄러운 잘못으로 여기고 있나요? (○, ⊗)
글쓴이는 당황하던 노스님의 표정이 자꾸 생각나서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고 하였으므로, 자신의 실수를 부끄럽게 여긴다고 볼 수 없다.

표현

• (나)에서 노스님의 눈빛 위로 스쳐 지나가는 오랜 시간을 무엇에 빗대었나요?

> 흐르는 시간을 거슬러 과거로 향한다는 점에서 연 어 떼에 빗대었어요.

• (나)에서 글쓴이는 자신의 실수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며 스스로를 위로했나요?

> 작은 보 시 를 한 셈이라고 표현했어요.

문제

1 ⑤ **2** ③ **3** ⑤ **4** ③

학습 노트

• **역설적 표현:** 겉으로 보기에는 의미가 모순되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중요한 진리와 진실을 담고 있는 표현 방법

1 표현 일화의 효과 + 주제 글쓴이의 깨달음

이 글은 실수가 삶에 여유와 여백을 만들어 준다는 깨달음을 전달한다. ⑤는 실수의 가치를 결과가 좋은지에 따라 판단하는 진술이므로, 실수가 때로 의외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 글쓴이의 관점과는 차이가 있다.

오답노트 ❶ (가)의 일화는 사소한 실수가 의외의 긍정적 효과를 불러온 경우로, 글의 도입부에서 독자의 흥미와 재미를 유발한다.

❷, ❸ (가)와 (나)의 일화는 실수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의외의 사례가 된다.

❹ (가)와 (나)는 실수의 긍정적인 효과를 드러내는 일화이므로, 작품의 주제와 연결된다.

알아 두기 '실수'와 관련된 일화

곽휘원의 일화	글쓴이의 일화
떨어져 사는 아내에게 문안 편지 대신 흰 종이를 잘못 넣어 보낸 실수가, 아내에게 의외의 기쁨을 줌	스님에게 빗을 빌려 달라고 한 실수가, 산사의 생활에 익숙해져 있던 스님의 잠든 시간을 깨움

2 표현 표현상의 특징

이 글은 글쓴이가 자신의 경험과 그로부터 얻은 깨달음을 진솔하게 풀어낸 수필이다.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주장을 내세우고 있지는 않다.

오답노트 ❶ (가)에서 곽휘원의 아내가 보낸 답 시를 인용하고 있고, (가)와 (나)에서 '꿈보다 해몽이 좋다',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는 속담을 인용하고 있다.

❷ (가)의 '행복한 오해'에서 역설적 표현을, (나)의 '20년 또는 30년, 마치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 떼처럼 ~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에서 비유적 표현을, '파르라니 깎은 스님의 머리가 유난히 빛을 내며 내 눈에 들어왔다.' 등에서 묘사를 사용한 표현을 확인할 수 있다.

❹ (나)에서 글쓴이는 암자에서 스님에게 빗을 빌려 달라고 말했던 자신의 실수를 제시하고 있다.

❺ (나)에서 글쓴이는 자신의 덜렁거리는 성격이나 실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자신의 가치관을 진솔한 표현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

3 글쓴이 글쓴이의 경험 + 표현 표현상의 특징

㉤의 '잠든 시간'은 스님이 잊고 지낸 과거를 비유한 말로, 실수가 그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는 의미이다.

정답의 근거

나 그러나 그 순간 나는 보았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검은 머리칼이 있던, 빗을 썼던 그 까마득한 시절을 더듬고 있는 그분의 눈빛을. 20년 또는 30년, 마치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 떼처럼 참으로 오랜 시간이 그 눈빛 위로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비유적 표현을 통해 스님이 지난 시간을 회상하는 모습을 생생하고 아름답게 표현함)

그 순식간에 이루어진 회상의 끄트머리에는 그리움인지 무상함인지 모를 묘한 미소가 '반짝'하고 빛났다. 나의 실수 한마디가 산사의 생활에 익숙해져 있던 그분의 잠든 시간을 흔들어 깨운 셈이니. (글쓴이의 실수가 불러온 긍정적 효과(자신의 실수가 스님에게 잊고 있던 추억을 선물하게 되었다고 여김))

4 표현 일화 속 인물의 심리 및 구성 방식

(가)의 아내는 남편이 자신에 대한 그리움을 말로 다할 수 없어 흰 종이를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답 시를 적어 보낸 것이다. 따라서 남편을 향한 자신의 그리움을 한시로 표현한 것이라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노트 ❶ 아내도 처음에는 남편이 보낸 편지가 백지인 것을 보고 당황했을 것이다.

❷ 아내는 남편이 실수로 잘못 보낸 흰 종이를 말로는 다할 수 없는 그리움을 표현한 것이라고 믿고, 그 감정을 적어 답 시를 보낸다.

❹, ❺ 글쓴이는 (가)의 일화를 통해, 의도치 않은 실수가 때로는 신선한 충격과 행복한 오해로 이끌 수도 있다며 실수의 긍정적인 면을 말하고 있다.

실수 ②

본문 182~183쪽

감상 스킬로 확인하기

글쓴이

• (다)에서 글쓴이가 사소한 실수를 번번이 저지르는 것은 어떤 버릇 때문인가요?

>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면 나머지 일에 대해 거의 백 지 상 태 가 되어 버리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 (바)에서 글쓴이가 스스로를 돌아보며 반성한 점은 무엇인가요?

>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받아 주지) 못한 태도를 성찰하고 있어요.

표현

• (라)에서 글쓴이가 실수의 속성을 설명하기 위해 어떤 말의 의미를 이야기했나요?

> 일이 너무 뜻밖이어서 기가 막힘을 의미하는 '어 처 구 니 없 음'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주제

• (마)에서 글쓴이는 실수가 무엇에 해당한다고 보았나요?

> 삶과 정신의 여 백 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문제

5 ③ **6** ③ **7** ②

학습 노트

• **다잡으며:** 단단히 다스리거나 잡도리하며.

5 글쓴이 **글쓴이의 관점**

(다)에서 글쓴이는 실수가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하면서도, 그 효과 때문에 상습적으로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 정답의 근거

다 그렇다고 이런 효과 때문에 상습적으로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어디에 정신을 집중하면 나머지 일에 대해서 거의 백지상태가 되는 버릇은 쉽사리 고쳐지지 않는다.

실수의 긍정적인 효과 때문에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힘

오답노트 ❶, ❷, ❹ 악의가 섞이지 않은 실수가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에 해당한다.

❺ (라)에서 상상력이 풍부하고 자유로운 사람은 실수가 잦은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6 표현 **구절의 함축적 의미**

㉠ 앞뒤의 '기억의 어둠 속에서 건져 내도록'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빗 하나'는 글쓴이의 실수로 인해 노스님이 떠올리게 된 잊고 지내던 젊은 시절의 추억을 비유한 것이다.

7 글쓴이 **글쓴이의 태도** + 주제 **작품의 주제**

글쓴이는 실수를 삶과 정신의 여백으로 여기며, 그 여백마저 없다면 각박한 세상에서 숨을 돌릴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다잡아야 한다는 것은 실수를 줄여야 할 대상으로 본 것이므로, 제시된 깨달음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 성찰로 볼 수 없다.

오답노트 ❶, ❸, ❹, ❺ (마)~(사)에서 글쓴이는 '실수는 삶과 정신의 여백에 해당한다.'라고 말하며, 빠르고 각박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잠시 숨을 돌리고 마음의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다른 사람의 실수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정신과 마음을 내려놓은 채 '우두커니' 있는 시간을 가지며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알아 두기 글쓴이의 성찰과 깨달음

오늘날의 세태와 글쓴이의 성찰
• 발 빠르게 돌아가는 각박한 세상임 • 사소한 실수조차 짜증과 비난의 대상이 됨 • 수많은 실수를 하고 살면서도, 다른 사람의 실수는 너그럽게 받아 주지 못했음

↓

글쓴이의 깨달음(작품의 주제)
실수는 삶과 정신의 여백임을 이해하고, 실수를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함

독해 체크 본문 184쪽

❶ 기쁨 ❷ 추억 ❸ 수확 ❹ 악의 ❺ 속담 ❻ 여백

어휘 체크 본문 185쪽

1 우두커니 **2** (1) ㉣ (2) ㉤ (3) ㉢ **3** ③

1 '우두커니'는 '넋이 나간 듯이 가만히 한자리에 서 있거나 앉아 있는 모양.'을 뜻하는 말이다. (사)에서 글쓴이는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뛰어가는 자신을 세워 두고 '우두커니'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2 (1)은 형식만 갖춘 인사를 나누고 할 일을 하는 상황이므로 '형식이나 격식만을 갖춘 것.'을 뜻하는 '의례적'이, (2)는 도자기 감정에 남다른 안목을 지닌 상황이므로 '어떤 문제에 대해 독자적인 경지나 체계를 이룬 견해.'를 뜻하는 '일가견'이, (3)은 산속 암자와 대비되는 세상을 가리키는 상황이므로 '불가에서 일반 사회를 이르는 말.'인 '속세'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3 '무안하다'는 '수줍거나 창피하여 볼 낯이 없다.'라는 뜻이므로, 바라던 대회에서 우승하여 기쁨을 느끼는 상황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실전 03

빙그레의 영역 | 김소연

여러분의 방에는 오래 간직해 온 물건이 있나요? 값이 나가지 않아도 볼 때마다 누군가가 떠올라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것 말이에요. 이 작품의 글쓴이도 곁에 둔 사물들을 하나씩 짚어 가며 그것이 자신에게 오던 때를 떠올립니다. 글쓴이에게 선물이란 무엇일지 헤아리며 작품을 감상해 봅시다.

갈래 현대 수필, 경수필
성격 체험적, 성찰적, 회고적
주제 선물이 선물답게 되는 비결
특징 • 구체적 사물에서 얻은 작가의 깨달음을 전달함
• 체험을 바탕으로 대상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드러냄

빙그레의 영역 ① 본문 186~187쪽

감상 스킬로 확인하기

글쓴이

• 글쓴이는 과거에 어떤 선물을 받는 것을 좋아했나요?
› 영영 간직하지 않아도 되는, 사 라 지 는 것을 좋아했어요.
• 글쓴이는 과거에 선물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좋아했나요? (○, ⊗)
글쓴이는 과거에 선물을 받는 것과 주는 것 중에 선물을 받는 것이 더 기뻤다고 하였다.
• 글쓴이는 선물에 대해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 선물이 무엇이냐보다 선물이 '되 는' 사건, 시간, 사람, 말, 표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표현

• 이 글은 체험을 바탕으로 대상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나요? (◯×)

(가)와 (나)에서 선물을 주고받던 경험과 그때의 생각을 이야기한 뒤 (다)에서 선물은 '되는' 것이라는 새로운 인식을 밝힘으로써, 체험을 바탕으로 대상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문제

1 ② **2** ⑤ **3** ④

학습 노트

• **절충하여:** 서로 다른 사물이나 의견, 관점 등을 알맞게 조절하여 서로 잘 어울리게 하여.

1 표현 내용의 전개 방식

(가)와 (나)에서 글쓴이는 사라지는 선물을 좋아하고 받는 쪽이 더 기뻤던 과거를 떠올리는데, 이는 선물을 사물의 주고받음으로 여기던 때의 경험이다. 그러다 (다)에 이르러 선물은 '되는' 것이라는 새로운 인식에 다다르고, (라)에서는 그렇게 달라진 눈으로 자신의 일상을 다시 바라본다. 이처럼 이 글은 겪은 일을 통해 대상의 의미를 깨닫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오답 노트 ❶ 선물에 담긴 의미는 드러나지만, 선물이 무엇인지 개념을 풀이하거나 그 의미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있지는 않다.

❸ 과거에 선물을 받았던 경험을 떠올리며 선물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있을 뿐, 여러 경험을 시간 순서에 따라 나열하고 있지는 않다.

❹ 선물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이를 절충하여 새로운 결론을 도출하고 있지도 않다.

❺ (나)에서 글쓴이는 선물을 주는 게 더 좋다고 선택하는 이들에게 백 프로 공감할 수 없었다고 하며, 선물을 받는 것이 더 기쁘다는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선물에 대한 자신의 과거 생각을 밝힌 것일 뿐, 다른 사람의 관점과 자신의 생각을 대조하여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제시한 것은 아니다.

2 주제 글쓴이의 깨달음

(다)에서 손과 손 사이에서 전달되는 사물은 무엇이 되어도 상관이 없다고 한 것은, 선물 자체보다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말, 표정, 그 순간의 분위기가 어우러져 의미 있게 전달될 때 진정한 선물이 된다는 의미이다.

▶ 정답의 근거

다 선물은 주거나 받는 것이라기보다는 되는 것이라고. 선물이 (선물에 대한 '나'의 새로운 인식) 되는 사건, 선물이 되는 시간, 선물이 되는 사람, 선물이 되는 (선물이 '되는 것'이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소) 말, 선물이 되는 표정. 선물이 되는 사람이 선물이 되는 말과 함께 선물이 되는 표정을 지으며, 자그마하고 사소한 선물 하나를 (선물을 주고받는 사람이 함께 선물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생성해 낼 때) 건넸을 때, 그것은 선물이 되는 시간이자 선물이 되는 사건이다.

3 글쓴이 글쓴이의 관점과 태도

(라)에서 글쓴이는 사물들의 소곤거림을 배경 음악처럼 등에 업고서 책을 읽거나 글을 쓴다고 하였다. 이는 지난날 받은 사소한 선물들에 둘러싸여 지내는 일상을 나타낸 것으로, 그 사물들을 짐스럽게 여기는 태도는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노트 ❶ (가)에서 글쓴이는 사라지는 선물을 좋아하던 시절을 떠올린다. 그리고 그것이 선물에 대한 부담이라기보다 자신의 여림에 대한 불만에 더 가까웠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그때 자신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지금의 눈으로 돌아보고 있는 것이다.

❷ (나)에서 글쓴이는 주는 게 더 좋다고 하는 이들에게 공감할 수 없었으며, 아무리 생각해도 선물을 받는 것이 기뻤다고 하였다. 이는 선물을 사물의 주고받음으로 여기던 지난날의 인식을 보여 준다.

❸ (다)의 '지금은 이런 식으로 말해 보고 싶다.'는 앞서 밝힌 과거의 생각과 달라진 관점을 꺼내는 말이다. 이어서 선물은 주거나 받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선물을 바라보는 틀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❺ (라)에서 글쓴이는 자신의 글쓰기가 어쩌면 대답 같은 것이고 어쩌면 약속 같은 것이라고 하였다. 선물이었던 사물들에 둘러싸여 글을 쓰는 일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므로, 사물들과 맺은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는 태도가 드러난다.

빙그레의 영역 ②

본문 188~189쪽

감상 스킬로 확인하기

글쓴이

• (아)에서 '나'가 친구에게 선물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는 사물은 무엇인가요? 라디오

• (아)에서 글쓴이는 친구에게 줄 선물을 고르며 무엇을 하게 되었나요?

> 친구가 사는 환경을 상상하며, 선물을 주는 것에 담긴 배려와 정성을 깨닫게 되었어요.

표현

• 글쓴이가 받은 선물을 보며 웃음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자 시간을 나타낸 말은 무엇인가요? 빙그레의 영역

주제

• 글쓴이가 깨달은 '선물이 선물답게 되는 비결'은 무엇인가요?

> 선물을 건네면서 해 준 한마디와 그때의 표정이 선물을 볼 때마다 함께 떠오르는 것이에요.

문제

4 ③ **5** ④ **6** ③

학습 노트

• **시선의 이동:** 화자의 시선이 원경에서 근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혹은 위에서 아래로 옮겨지면서 시상이 전개되는 것

4 표현 내용의 전개 방식

(마)는 글쓴이가 받은 선물들의 사례를 나열하여 제시한 것으로,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의 이동에 따라 서술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선물과 얽힌 여러 경험을 각각 제시하고 있을 뿐, 사건을 원인과 결과로 이어 전개하고 있지 않다.

오답 노트 ❶ (마)는 선물들을 열거하다가 "돌멩이 하나, 도토리 하나, 저금통 하나 ……"로 끝맺는다. 나머지를 말줄임표로 남겨 아직 적지 못한 선물이 더 있음을 짐작하게 하면서 내용을 인상 깊게 마무리하고 있다.

❷ "왕창 사 와서 다 주고 하나 남았어.", "갖고 싶다던 게 이거예요?", "언니 목마 좋아하잖아."처럼 선물을 건네며 한 말을 그대로 옮겨 놓아 그때의 장면을 생동감 있게 전하고 있다.

❹ 베이징을 다녀온 선배에게 받은 케이스, 벼룩시장에서 산 항아리를 들고 와 건네준 친구 등 글쓴이가 직접 겪은 일을 하나하나 제시하여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❺ 마오쩌둥이 그려진 케이스, 게르 미니어처, 목마 소품, 항아리, 연필깎이, 오르골 등은 모두 사연이 담긴 선물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러한 대상을 죽 늘어놓아 사소한 사물도 선물이 된다는 내용을 부각하고 있다.

배경지식 인용의 방식과 표현 효과

• 인용 방식

직접 인용	•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형식과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여 인용하는 방식 • 큰 따옴표로 인용절을 표시하고, 인용절 뒤에 조사 '라고'나 '하고'를 붙임
간접 인용	•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지금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바꾸어 전달하는 방식 • 따옴표 없이 해당 인용절 다음에 조사 '고'를 붙임

• 인용의 표현 효과

- 생각이나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함
- 인물의 성격과 생각을 제시함
- 작품의 중심 생각이나 주제 의식을 부각함
- 현장감과 생동감을 부여함
- 다른 사람의 말이나 자료를 활용하여 내용의 신뢰성을 높임

5 글쓴이 글쓴이의 관점과 태도 + 주제 글쓴이의 깨달음

(사)에서 글쓴이는 '그들은 알고 있을까'라고 물으며, 자신이 사물들을 볼 때마다 혼자 웃는다는 사실을 선물을 준 이들은 모를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빙그레의 영역'은 선물들이 놓인 방이라는 공간이자 그 사물들을 보며 혼자 웃게 되는 시간을 뜻하므로, 선물을 준 사람들과 그때를 이야기하며 함께 웃는 자리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알아 두기 '빙그레의 영역'의 의미

공간적 의미	시간적 의미
• 선물들이 놓여 있는 글쓴이의 방 창가 선반 • 선물들의 소곤거림으로 둘러싸여 있는 작가의 방	• 선물들을 쳐다보며 선물을 준 사람의 말과 표정을 떠올리는 시간 • 선물들을 청소하며 먼지를 닦아 줄 때마다 선물에게 말을 건네는 시간

6 주제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바)에서 글쓴이는 선물을 건네면서 해 준 한마디와 그때의 표정이 선물을 볼 때마다 저절로 떠오른다고 하였다. 이는 사물이 본래 지닌 쓰임이 아니라 그것을 주고받던 순간에서 의미가 생겨남을 보여 주는 것이다.

오답 노트 ❶ (마)에는 마오쩌둥 케이스나 게르 미니어처뿐 아니라 돌멩이, 도토리, 저금통 같은 하찮은 사물까지 선물로 열거되어 있다. 이는 사물 자체의 값이나 쓰임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건넨 사람과의 관계와 그때의 사연 때문에 선물로서 의미를 지니게 되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의미가 대상이 본래 지닌 성질에서 나오지 않음을 보여 준다.

❷ (마)에서 글쓴이는 선물을 하나하나 소개하며 "왕창 사 와서 다 주고 하나 남았어.", "언니 목마 좋아하잖아."처럼 그때 들은 말을 함께 떠올린다. 사물이 그것을 건넨 사람과의 관계 속에 놓여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❹ (사)에서 글쓴이는 먼지를 닦아 줄 때마다 옆의 사물에게 소개해 주듯 말을 건넨다고 하였다. 선물이 그것을 준 사람과 맺은 관계를 지금도 이어 주고 있음을 보여 준다.

❺ (아)에서 글쓴이는 라디오가 낡아 가는 만큼 친구와 깊이 친해지고 있다고 하였다. 사물에 쌓인 시간이 두 사람의 관계가 깊어져 온 과정을 보여 준다는 뜻이므로, 관계 속에서 의미가 생겨난다는 〈보기〉의 관점과 같다.

독해 체크 본문 190쪽

❶ 되는 ❷ 시간 ❸ 변화 ❹ 웃는 ❺ 말

어휘 체크 본문 191쪽

1 빙그레 **2** (1) ㉢ (2) ㉠ **3** ③

1 이 글에서 글쓴이는 혼자 있는 방에서 선물들을 하나씩 바라보며 빙그레 웃고 있는데, 여기에는 사물마다 얽힌 순간을 떠올리며 조용히 즐거워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이때 '빙그레'는 '입을 약간 벌리고 소리 없이 부드럽게 웃는 모양.'이라는 뜻이다. 제시된 문장은 할머니가 손자의 편지를 읽으며 마음이 흐뭇해졌다는 내용이므로 '빙그레'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2 (1)은 다음 경기에서 이기겠다고 마음을 다잡은 상황이므로 '어떤 일을 이루려고 마음속으로 준비를 단단히 하고 기회를 엿보다.'라는 뜻의 '벼르다'가, (2)는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으로는 알 수 없는 속마음을 헤아리려는 상황이므로 '어떤 일에 대한 여러 가지 마음의 작용.'을 뜻하는 '심사'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3 〈보기〉의 '매만지다'는 '부드럽게 어루만지다.'라는 뜻이다. ③은 할머니가 잠든 손자의 손을 애정을 담아 어루만지는 상황이므로 〈보기〉와 같은 의미로 쓰였다. 나머지는 모두 '잘 가다듬어 손질하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memo



memo

